



2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2호

(루게 580)



◆◆◆◆◆◆◆◆◆◆ 차 례 ◆◆◆◆◆◆◆◆◆◆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문학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	4
조선의 2월	6
우리의 최고사령관	7
잊을수 없는 밤	8
백두고향집(외 3 편).....	17
넓은 품	17
주체사상탑	17
당창건기념탑.....	17
탄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18
인민위해 바치신 사랑의 서사시	21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23
우리의 하늘은 영원히 밝다	24
향도의 해발아래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	27
금조각상	29
태양과 위성	32
바다사람들	33

영원한 그 모습 백두밀영고향집	43
다리는 그리움속으로.....	44
백두밀영고향집앞에서(외 1 편).....	44
정일봉의 달이여!.....	45
정일봉의 서정에 대한 감동깊은 시형상	46
시대의 딸.....	48
이날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53
명제해설	54
선포	55
우리의 집.....	56
감사를 드리노라	67
나는 고향을 사랑한다.....	68
조국의 거리	69
내곁에 있으라 병사시절이여	70
증오여, 네가 말해다오!(외 1 편)	70
나는 병사시절에 무엇을 배웠는가.....	71
더 젊어지리	72
모국어	73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문화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

시대의 준엄한 폭풍을 뚫고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작가들은 지난해에도 주체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한 크나큰 공지를 안고 1996년을 맞이하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풍랑사나운 소용돌이속에서 휘몰아쳐오는 역풍을 강철의 의지로 밀어제끼고 우리 식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며 주체문화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게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자욱우에 빛나는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지난해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가 높이 휘날린 신념과 의지의 자랑스런 해였다.

이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해에 우리 작가들은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신념으로, 량심으로, 도덕으로, 생활로 그리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당을 받들고 충성의 길을 힘차게 걸었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명작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명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90년대의 적기가로 불리우는 《높이 들자 붉은기》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인간학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 《동해천리》와 같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화건설에서는 더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참으로 이 모든 작품들에 맥맥히 관통되어있는 것은 우리 주체혁명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믿음과 충성, 의리와 효성이 결합되어 온 사회가 충효일심의 결정체로 되었다는 진리가 형상되었다.

지난해 주체문화건설에서 달성한 이 성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벽두에 우리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어 우리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속에서 수령을 더 높이 모시고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기풍을 세우며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의리적관계가 활짝 꽃피나게 하고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게 한 원천으로 되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 숭고한 감정을 체질화한 작가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당과 뜨거운 혈액으로 이어진 작가들의 면모를 더욱 일신해가고있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창작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제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작가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참답게 보답하는 길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문제전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우리 시대 작가들의 삶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고 그들이 영원히 자기의 창작활동에서 틀어쥐고나아갈 근본지침을 명시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70여성상을 헤아리는 혁명투쟁력사의 장구한 로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성의 최고봉의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다.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우리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게 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형상적화폭속에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전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완벽하게 형상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우리 작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의리의 최고표현이다. 위대한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본분이며 최고의 혁명적의리이다.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창작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붉은기는 우리 작가들의 신념이고 량심이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요구대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만이 주체

조선의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인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와 경제적, 군사적 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데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가는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져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 큰 창작적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작가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어가는것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작가들은 올해 창작전투에서도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실감있게 형상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올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참모습과 함께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일군들의 투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는 모습도 잘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의 근로자들의 투쟁모습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사회주의군사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다.

작가들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도 있다는것을 형상으로 깊이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이며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지퍼주신 혁명의 화불을 높이 추켜들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더 잘 준비되어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이 창작하고있는 형상적 화폭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민족적위업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더 많이 할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것만큼 작가들은 이에 기초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현실적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형상으로 설득력있게 잘 보여주어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올해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작가들은 사상을 틀어쥐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충진군으로 불러일으키는 당조직들의 활동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밑에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훌륭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생동한 모습도 잘 그려야 한다.

당과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사업성과로써 령도자를 받들줄 아는 김책형의 인간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뛰고 또 뛰며 높은 정치적안목과 기발한 착상,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형상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리념의 승고성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전도양양하며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확고한것으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진로가 빛나게 개척되어나가는 시대, 세월이 흐를수록 혁명적기백이 뜨겁게 맥박치고 더 큰 승리가 펼쳐지는 시대, 이것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모든 작가들은 이 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창작전투를 벌림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할것이다.

조선의 2월

차영도

가장 밝은 해가
이날에 뜹니다
가장 큰 기쁨이
인민의 가슴에 파도칩니다

곳곳마다
무수한 기발이 나뭇길마다
겨우내 정히 피운 첫 봄꽃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날에
제일 일찍 일어납니다
애써 아껴두었던 노래
이날에 목청껏 부릅니다

경사로운 축등아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칩니다
청춘들은 광장으로
물결치듯 모여듭니다

명절의 의미를 압니다
이날의 행운을 압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없이 크게 맞는 우리의 날입니다

가슴이 뉘웁니다
심장이 불탑니다
우리 장군님 모신 영광
정말로 온몸에 사무치는 날입니다

늘 들어오던 기관차의 기적소리
이날은 왜 저리도 높습니까

발전소의 화력타빈은 왜 저리도 힘차고
쇠물은 왜 저리도 사품칩니까

이날은 우리 인민이
아버이 장군님과
언제나 하나로 뉘뉘는 그 피줄이
더 억척같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오로지 장군님만 믿고사는 마음
그것이 엮어져 꽃다발이 되고
그것이 아름이 되어 꽃바구니가 되는
이날이 우리의 만수축원의 2월입니다

이날은 태양과 대륙도
하나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만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
전파와 전파로 우주를 휘덮습니다

오, 2월!
조선의 무궁세월앞에
그리도 창창한 푸른 하늘을
가없이 열어준 2월!

이날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인민이 기원하고 인류가 기원하는
만수축원의 명절이어서

가장 밝은 해가
이날에 뜹니다
가장 큰 기쁨이
이날에 파도칩니다, 강산이 설레입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영길

친근한 그이이시다
고향집의 어머니처럼
한생에 못잊을 스승처럼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분

위대한 그이이시다
수령님 남기신 유훈
필생의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생전에 수령님 그처럼 아끼시던
전사들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걸으시는분

그날에는 누구도 미처 몰랐어라
가슴저미는 상실의 아픔
마음속 깊이 감추시고
맹세어린 첫 노을속에 나서실 때
그 길이 어디로 뻗었는지

텔레비죤화면앞에 모여앉아
사람들 생각도 많던
그 설날아침
꿈같이 들으며 우리러보았어라
다박솔초소를 진감하던 열광의 환호성을
피멍든 가슴들을 따듯이 녹여주던
환하신 그 미소를

오리오리 장군의 풍모가 어린
털모자도 벗으시고
찬 바다바람속
못가신다 녀전사들 막아서는
미끄러운 얼음길을 지나시여
포진지에도 찍으신 그 자욱

어찌 한두 초소만이라
몇백몇천의 전사들뿐이라
나라의 최대중대사를 안고가신
하늘 땅 바다길에
불멸의 력사로 자욱들은 새겨졌다

사연깊은 《개선》호의 갑판우
바다 멀리 해병들의 섬초소에도
철조망 굽이쳐간 민경초소
파도 높은 녀성해상훈련장에도

날을듯 신기루같이 솟아오른
반월도의 청류다리
풍치수려한 향산관광도로

감격 넘친 전사들의 축원속을 지나시여
장엄한 열병식광장의 단상우에 오르신
그이의 승엄한 모습에서
우리는 새겨안았다

초소에서 초소로
전사들속으로
끝없는 길 가고 또 가시는
그이의 철석같은 의지!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
무적필승의 강철의 대오로
무장력을 더 억세게 키워
혁명의 붉은기 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시려는 결심이여!

당의 군대
나의 병사들이라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
기어이 이루시려는 맹세여

이런분이시다
수령님의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이어 지니신분
백두산의 장군
천하제일명장의 술기와 담력을
그대로 펼쳐가시는분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오오-
강대한 철의 대오는 대를 이어 받든다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주저가 있으라
멈춤이 있으라
하늘에 닿은 수령님의 그 위업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총폭탄되여 웅위하며
끝까지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서사시를 총대로 수놓아가리라

잇을수 없는 밤

김성원

1

정원은 정적에 휩싸여있었다.

그 정적을 깨치기 저어하듯 살랑살랑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가 유난스레 들렸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천천히 정원길을 걸으시었다. 정향나무며 은행나무 푸른 잎사귀들에서 재글재글 튀노는 한껏 영근 해저물녘의 봄벌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시선을 리종구에게로 옮기시었다.

자애깊은 그 안광에 따뜻한 정이 흐르고있었다.

《동무가 건설장지휘부로 떠나간것이 한달도 되나마나한데 벌써 공장기초를 얹히기 시작했다면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래 앓는 동무들은 없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건설자들이 모여왔으니 물이 맞지 않아 고생하는 동무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한껏 양양된 기분으로 따라걸던 리종구는 그이의 다심하신 물음에 가슴이 몽클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하수를 뿔아먹기때문에 물은 일없습니다. 모두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대로 세상에 아직 없는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건설한다고 사기가 부쩍 올라 욱욱 하고있습니다.》

기다려온 이 날, 이 순간을 맞고보니 건설장에서의 그 한달이 가슴 빼근한 궁지속에 되새겨지는 리종구였다.

건설력량의 편성과 건설부지의 확정, 세멘트공업분야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들, 설계집단의 편성과 설계의 추진...

그이를 뵈웁고 이미전부터 공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받고싶었던 리종구는 몹시 서두르며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안광으로 키가 작고 오달진 리종구의 철색 얼굴을 이윽히 여겨보시었다.

《리종구동무, 하루이를 하고말일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그이께서는 별로 수척해보이는 리종구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그이의 근심어린 말쑥에 워낙 말주변이 없는 리종구는 가슴이 격해져서 괜히 두손을 몇적게 주물렀다. 그이께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그 행동에 더 정이 가시어 어깨를 다독여주시었

다.

손탁이 세고 내밀성이 있으며 투신력이 좋은 리종구는 **김정일** 동지께서 아끼시는 일군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리종구는 20 여년전만 하여도 중부 지구의 어느 한 세멘트공장 소성공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 공장을 찾으시였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 소성공이었던 리종구의 작업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었다. 순조롭게 돌아가던 소성로에서 갑자기 경보신호가 울리며 로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때였다.

20 대의 청년이었던 리종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로안에 중유와 산소를 뿔어주는 대차를 숨씨있게 조절하여 순식간에 성이 났던 로안의 불길을 진정시켜놓았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리종구의 소행에 내심 감탄하시였던 그이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몸소 그를 건설건재대학에 추천해주시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무원의 여러 부서들을 거쳐 건재공업부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는 오늘까지 그의 성장의 매 단계마다에는 그이의 사랑의 손길이 알게 모르게 뜨겁게 닿아있었다. 하기에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어느 한 대상의 준공식테프를 끊던 기쁨넘치던 그날에 그 대상건설을 책임졌던 리종구는 한껏 기분이 들떠 이렇게 말쑥드렸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방전부터 세멘트를 구워내며 살아가는 우리 고장에서는 저를 두고 개천에서 룡났다고 자랑스러워들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개천의 미꾸라지를 룡으로 키워주신 품이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당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성정이 고지식하면서도 또한 손탁이 세고 내밀성이 있는 그에게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대상들을 맡겨주시곤하시었다. 그를 믿는 마음이 그리도 크시여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뜻에 따라 자신께서 직접 받기하신 상원세멘트공장의 건설책임자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에도 제일먼저 눈앞에 떠오른것이 리종구의 통통한 철색 얼굴이었다.

《리종구동무, 상원세멘트공장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건설을 맡기했습니다. 나는 동무를 믿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믿음에 찬 그이의 말쑥에 이렇게 단마디의 소

박한 대답을 남기고 건설장으로 떠나간 리종구였다.

그것이 바로 한달전의 일이었다. 건설에 대하여 누구보다 조예가 깊으신 그이께서는 한달사이에 전국에서 모여온 건설자들의 새 생활을 전개하고 설계를 완성하며 땅을 파헤쳐 기초를 얹히기 시작했다는것이 얼마나 공력을 들이는 일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었다. 그 일이 오죽 배웠으면 리종구의 철색 얼굴이 컴컴한 적동색으로 변했을가?

그이께서는 오늘 자신께서 리종구를 부르게 된 것이 공장의 건설정형도 궁급했지만 그보다 리종구를 몹시 보고싶었기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리종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채 몇 걸음 더 옮기며 말쑤를 이으시었다.

《사람에게서 건강은 큰 재부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혁명을 위해서도 그 재부를 아낄줄 알아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일밖에 모르는 그가 이제 일에 문히게 되면 또다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하게 될것이 못내 우려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그에게 담당의사를 붙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었다. 리종구의 건강문제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귀짓고보니 다소 마음이 개운해지신 그이께서는 그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우시며 화제를 돌리시었다.

《그래 공장부지는 어디에 정했습니까?》

《공장부지는... 이제 형성도안을 완성하여 올리겠습니다.》

리종구는 어쩐지 대답을 갑작랐다.

그 어조에서 그곳 지형을 알지 못하시는 그이께 어떻게 설명해드릴가 하고 난감해하는 기색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말로 해도 일없습니다. 상원천기슭의 소촌마을은 수령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나도 한번 가본 고장입니다.》

그이께서 상원천기슭의 소촌마을까지 거드시는 바람에 리종구는 눈이 둥그래져 그이를 우려했다.

다음순간 리종구는 그처럼 력사적인 고장에 제 손으로 공장을 세우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뻗듯해오름을 느끼었다. 정원의 한가운데 덩쿨진 장미꽃을 응시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 시절 다녀오신 고장의 낮익은 산천이 눈앞에 수채화처럼 선명히 떠올라 감회가 새로와지시었다.

1949년의 어느 가을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상원천기슭의 소촌마을을 다녀가신적이 있으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상원천기슭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이고장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의논해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뒤동산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상원천을 잘 다스려 논도

풀고 그래서 이고장이 살기 좋은 산촌으로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론 수령님께서도 아직 그 고장을 다시 찾아주지 못하시었다. 지금까지 수십년이 흘러간 그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것은 수령님께서 상원천에서 손수 낚으신 물고기로 어머니께서 어죽을 쑤시여 이고장 농민들과 함께 나누시던 인상깊은 생활의 한토막이 흘러간 고장이어서만이 아니었다. 지금도 일요일을 맞을 때면 드문히 어머니의 마지막 일요일이 흘러간 그 상원천기슭과 어머니께서 이고장 인민들과 하신 약속이 가슴을 저미며 추억되곤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상원천기슭의 그 산들에 세멘트원료인 석회암이 무진장하게 묻혀있다는 탐사자료를 보고받으실 때 여기에 세멘트공장을 세우고 산중의 리상도시를 건설할 결심을 굳히신 그이이시었다.

《이제는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촌도 아마 몰라보게 달라졌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감회깊이 말씀하시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리종구를 웃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정원길옆의 의자에 가 앉으시며 끝이 뻗죽한 돌맹이를 주어드시었다. 의자앞의 포장길에는 잠간사이에 산에 둘러싸인 농촌마을의 룼곽이 그려졌다. 그제서야 리종구는 오금을 꺾고앉으며 굵고 투박한 식지를 그림의 한 점에 꼭 박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공장기초는 소촌앞의 이 넓은 골바닥에 앉히고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그중 넓은 평지이고 광산에서 석회석을 콘베아로 나르기도 적합한 위치입니다. 철길이나 자동차에 의한 수송조건도 아주 좋아서 공장부지로는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수궁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로동자들의 살림집은 어디에 앉히게 됩니까?》 바닥의 그림을 지켜보시며 그이께서 물으시었다.

《로동자들의 살림집은 소촌이 의지하고있는 이 남산의 우측 산기슭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남산이라!... 그 소촌앞으로 상원천이라는 개천이 흘렀는데 공장과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상원천은 공장과 살림집구역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만족하신듯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얼굴을 기웃하시며 리종구를 보시었다.

《종구동무, 그곳의 바람방향은 어떻습니까? 내 기억에는...》

말쑤를 끊으시는 그이께서는 조금 심중해진 기색이시었다. 리종구는 그이께서 살림집들에 미칠 바람의 영향을 두고 마음쓰신다는것을 가슴 후덥게 깨달으며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람은 소촌앞 넓은 골짜기에서 늘 소촌쪽으로 들이불고있습니다. 비바

람이 칠 때에는 그 반대입니다.》

《내 기억에도 바람은 그렇게 불었던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공장쪽에서 살림집구역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묻는듯한 눈길로 리종구를 보시었
다. 그이의 비상한 기억력에 리종구는 감탄하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제진기술과 설
비로 공장의 먼지를 기본적으로 잡는것으로 타산
했습니다.》

《음, 바람방향을 무시했다?...》

이렇게 외우시는 그이의 얼굴에 가벼운 그늘이
비끼였다. 그이께서는 의자에서 조용히 몸을 일
으키시였다. 그리고 말없이 몇발자국 옮기시였다.
그이를 따라가는 리종구의 마음도 불안해졌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리종구를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얼굴에는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히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
려있었다.

《종구동무, 동무에게 어려운 일감을 맡겨놓고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여 안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늦어서라도 오늘 건
설장에 나가봅시다.》

그이께서는 리종구의 어깨를 또한번 두드려주
시였다.

2

승용차는 한밤중의 대기를 가르며 수도의 거리
를 조용히 미끄러져갔다.

환한 정원등의 조명속에 웅건하게 바라보이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새벽 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수도의 밤하늘을 은은히 메아리쳐갔다. 의자등반
이에 몸을 맡기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을 감으시
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운전사의 옆에 앉
은 리종구의 가슴에서는 지금 상반되는 두 감정
이 교착되고있었다. 그를 지배하는 압도적감정은
그이를 건설장에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
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이였다. 리종구로서는 참
으로 기다려온 이 순간이였다. 하지만 지금 리종
구의 가슴에 환희의 감정만 들어차있는것은 아니
였다.

어제저녁 공장부지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그이
의 얼굴에 한순간 비꼰다 사라진 그들은 리종구
의 가슴에 불쑥불쑥 불안의 그림자를 몰아오는것
이였다. 리종구는 자기를 포함한 건설집단이 품
을 들어 구상한, 이제 그이께 보여드리고 가르치
심을 받아야 할 공장과 살림집들의 설계형성안을
두고 땀겨운 눈으로 다시한번 음미해보았다. 했
으나 이 한달 온 심혼을 깡그리 거기에 바쳐온
그로서는 도무지 미흡한 빈구석을 찾아낼수가 없
었다. 자기를 건설장으로 떠나보내며 세계적으로

꼭필만한 세멘트공장을 한번 본때있게 건설해보
라는 그이의 말씀을 리종구는 순간도 잊은적이
없었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말그대로 멋쟁이로 설계된
공장건물들, 그안에 들어앉힐 전자기산기에 의해
원격조종되는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설비들과 로
보트들, 세칸, 두칸에 전실까지 결달린 중앙난방
의 리상적인 살림집들, 최신 먼지잡이 기술과 설
비들, 상원일대의 지형과 수송조건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정해진 공장부지... 제진효률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정해진 살림집 위치도 그만하면 나무랄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한순간 그이의
얼굴에 비꼰던 그들은 무엇을 뜻하는것인가? 리
종구는 오히려 자기가 구상한 이 세멘트공장의
설계형성안이 그이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릴수도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그 불안의 그늘을 눌러버
리고 불쑥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리종구의 가슴
에 끓던 이 불안과 희망의 감정은 눈을 감으시고
의자등반이에 몸을 맡기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
러르는 순간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여졌다. 이즈음에 어느 한밤도 편히 쉬어보
신적이 없으시였을 그이이시였다. 리종구는 시시
각각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바이지만 우리 나
라의 수도 평양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진행할것을 구상하고계시는 그이께서는 벌써부터
그 준비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계시였다. 그이
께서는 만경대갈림길에서부터 팔골다리까지의 방
대한 부지에 건설력사에서 류레가 드문 광복거리
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이미 올해 1
월초에 그 착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그이
께서는 어제밤에도 날이 썰 무렵까지 거리형성도
안과 그안에 들어앉히게 될 학생소년궁전, 교예
극장, 안골지구 여러 실내경기장들의 형성도안을
검토해주시였다. 오늘 저녁무렵에도 역시 청년
사업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마련하신 그이께서
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서
진행할것을 발기하게 하시고 집회이름으로 세계
청년학생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어 우리의 발기를
적극 지지옹호하여나서도록 구체적인 활동방향
을 주시였다. 청년일군들이 떠나기 바쁘게 그이
께서는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들과 마주 앉으시
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팀 스
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이 끝난후에도 연습에
끌어들였던 최신식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그대
로 전개하는 한편 새로운 군사훈련을 준비하고있
는 그 검은 속심과 위협성에 대하여 날날이 까밝
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놈들의 무력증강과 반공
화국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킬 구체적인 전략전술
을 제시해주시였다.

무력부일군들을 보내고나서 그이께서는 다시
리종구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히려 이 깊
은밤 건설장에서 수고한 동무를 쉬지도 못하게
해서 안되었다고 미안해하시면서 이제부터 좀 시

간이 있으니 건설장에 나가보자고 하시였었다.

그러니 그이께서 내시겠다고 한 시간은 결국 잠시라도 쉬셔야 할 새벽녘의 시간이었던것이 다...

《저것 보시오. 대동강의 밤낚시질풍경이 과연 장관입니다.》

리종구의 생각을 깨뜨리며 그이의 음성이 승용차안을 울리였다.

리종구는 그이께서 지금껏 쉬지 않으셨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며 눈길을 대동강반에 던지였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야! 하고 감탄하였다. 빨간 불들이 줄을 늘어놓은듯 대동강 양쪽 유보도를 따라 끝없이 깜빡이고있었다. 낚시질에 심취된 밤낚시꾼들이 새날이 시작되는것조차 감각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양이였다.

《종구동무, 한번 구경하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우신듯 리종구의 얼굴을 의미있게 바라보시였다. 승용차는 다리 한중간에 천천히 멈추어섰다. 그이께서는 다리란간에 바투 다가서시여 봉화가 붉게 타는 주체사상탑이며 어둠속에서 관화처럼 안겨오는 옥류관아래쪽에 줄을 지어 늘어선 낚시꾼들의 등불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대동강은 역시 우리 평양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갑문들을 세워 우리 인민이 어머니 강이라 자랑스레 부르는 대동강을 하나의 대인공 호수로,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놓은데 대하여 언제나 긍지를 느끼고있습니다. 이 어머니 대동강에 또다시 서해갑문이라는 전대미문의 구조물이 건설되어 이제 자기의 준공을 세상에 알리게 될것입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 대동강의 풍치는 더 아름다와질것이고 낚시꾼들도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밤낚시꾼들의 저 등불이 대동강과 얼마나 어울리는 풍치입니까!》

리종구는 대동강을 두고 그토록 애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감동에 겨운 눈길로 우러렸다. 이 순간 그에게는 세멘트공장이 들어앉게 될 상원지구에도 이런 강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마저 갈마들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하류쪽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대동강을 더 훌륭히 꾸리자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저 양각도에는 축구경기장도 짓고 국제영화관도 번듯하게 세우자는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각도를 횡단하는 다리를 놓으면 우리 평양의 교통조건은 더 편리해질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민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끊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강상류쪽으로 돌아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둠에 묻힌

릉라도를 손들어 가리키시였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껴오던릉라도부지에도 이번에 15만석규모의 세계적인 경기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새로운 다리와 모란봉밀을 통과하는 동굴길을 형성하여 문수거리와 새로 선 안상택거리를 연결하자는것입니다.

그리고 전망적으로는릉라도를 횡단하는 특색있는 쇠바줄다리를 또하나 건설하고 그 다리와 련못동방향의 금성거리를 련결하는 동굴길을 형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불타는 대동강반은 말그대로 락원의 고장으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리종구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이의 놀랄만한 도량과 어마어마하게 여겨지는 건설규모에 그저 가슴이 벅차지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리종구를 마주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전례가 없는 우리의 건설계획에 비생산적건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고 겁먹은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건설, 인민들의 생활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건설을 비생산적건설로 보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결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칙이 없었다면 40억팔라가 들어가는 서해갑문을 건설할데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도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하나의 다리, 하나의 갑문을 놓고도 그것을 철저히 인민의 리익, 인민의 기쁨과 결부시켜 생각하시는 그이의 풍모에서 리종구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는듯하여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대동강이 우리 인민에게 이처럼 충실히 복무하듯이 모든것이 인민에게 복무해야 하며 인민에게 복무하는 그 정도에 따라 존재가치를 론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참, 종구동무. 상원천의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대동강에 대하여 것처럼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그이께서 뜻밖에도 흐르듯마듯하는 상원의 실개천에 대하여 물으시는바람에 리종구는 일순 얼떠름해졌다.

《예?!... 그것은 미처...》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답에 궁한 리종구의 마음을 능쳐주시려는듯 유쾌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때 상원천에는 물고기가 참 많았습니다. 동무들이 공장을 짓는 이번 기회에 잘 다스려놓으면 상원천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것입니다.》

그 순간 리종구는 그이께서 이 깊은 밤 낚시질 풍경이나 부감하시려고 승용차를 대동강상에 세운것이 아님을 어렵כות이 깨달았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의 밤풍경을 또한번 애정에 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승용차문을 여시였다. 리종구는 방금

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들뜨게 하던 설계형성안이 어쩐지 자신이 없어지는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의식하였다.

3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상원천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차고 산산한 새벽대기가 온몸을 휘감고 돌며 폐장깊이 스며들었다.

줄줄 물흐르는 유난스러운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더해주는듯싶었다. 물소리나는 그 기슭을 따라 백양나무들이 기운차게 솟았다.

어둠속에 우중충하게 솟은 백양나무들은 마치 컴컴한 절벽이 막아선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평양에서 떠나시기전부터 건설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 소동을 일으킬수 있다고 그이께서 너무 엄하게 신칙하시는바람에 지금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는 일군이란 리종구와 몇명의 수행원뿐이였다. 적막한 산촌의 이 위대한 사변을 알리없는 건설자들도, 산기슭에 총총히 들어앉은 문화주택의 농민들도 아직은 새벽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때였다. 리종구는 오직 자기만이 거대한 전변의 구상을 안고오신 그이의 이 력사적걸음을 목격하고있을뿐이라는 의식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조용히 그이를 따르고 있었다.

백양나무의 담벽에 푸릿한 공간이 열리더니 빨간 불빛이 한점 드러났다.

이어 돌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들려온다. 몇걸음 더 옮기니 길가에 정방형으로 아담하게 지은 집이 나타났다. 처마에 매달린 축수 높은 전등이 건물옆 물웅덩이에서 금방 돌을 들어올리고있는 한사람의 형체를 흐릿하게 내리비쳤다. 리종구는 어둠속에서도 그가 소촌마을 고문관리위원장 소봉철로인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근 30년의 관리위원장경력을 가진 로인은 소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양수장 물웅덩이를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묻는듯한 시선을 리종구에게로 돌리시였다.

《소촌마을 고문관리위원장 소봉철로인입니다. 아마 양수장 물주머니를 손질하는것 같습니다.》

소촌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어서 무작정 반가움이 앞서신 그이께서는 알뜰하게 만 들어놓은 제방의 계단을 밟아 물주머니로 내려가시였다.

강냉이오사리로 값지게 만든 농립모뎀으로 허연 귀밑머리가 드러나보였다.

《수고하십니다.》

그이께서는 반갑게 말씀하시며 로인이 들어올리는 돌을 받아 면을 맞추어놓으시였다. 리종구가 황급히 따라서며 그이를 거들어드렸다. 로인은 처음 얼퍼름해진 얼굴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그이의 미소어린 환한 존안을 우려했던 로인의

눈에서는 놀라움이 빛발쳤다.

《아니?!》

로인은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게라고 생각한듯 머리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어댄후 눈을 두어번 꿈벅거리고나서 다시 그이를 우려했다. 자기앞에 서계시는분이 분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심을 알아본 로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로인님, 안녕하십니까? 제 **김정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마치 오랜지거나 만나신듯 스스로 없이 자신을 소개하시였다.

로인은 황망히 돌담우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어쩔사이없이 그이앞에 깊이 허리를 굽혔다.

《제 여기 고문관리위원장 소봉철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히 로인의 량팔을 부축해 일으키시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소촌농민들은 다 잘 있습니까?》

그이께서 가까운 이웃의 안부라도 물으시듯 이렇게 따듯이 물으시는바람에 로인은 돌연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49년의 그 가을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저 산기슭에서 삭정을 주어 다 불을 지피던 한창나이 젊은이가 이젠 이렇게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이께서도 흥분이 살아오르신듯 로인의 손을 또한번 힘주어 잡아주시였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눈귀에 물기가 축축해진 로인은 개천기슭의 알뜰하게 다듬어진 자갈밭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존경하는 어머니를 모셨던 그 자리가 바로 여깁니다. 오늘도 그때가 그리워 이곳에 나왔다가 이런 영광을...》

로인은 눈을 습벽이며 주름이 찌지도록 환하게 웃었다. 그날의 영광을 오늘까지도 잊지 못해하는 로인의 마음에 **김정일**동지께서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시였다. 로인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는 소촌농민들이 때없이 이 기슭을 찾았으리라는것도 그이께서는 짐작하시였다. 푸릿한 새벽빛속에 희뵈히 드러나는 낮익은 지형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로인의 손을 놓으시고 상원천기슭의 그 자갈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기슭에 크고작은 바위들이 일부러 가져다놓은듯 듕성듬성 솟았는데 때 한점 묻지 않은 말쑥한 자갈들이 그 바위들사이의 넓은 기슭에 덮여있었다. 그이께서는 돌돌 구는듯한 물소리에 끌리듯 물가에 바투 다가서시였다. 양수장의 등불에 구슬알처럼 투명한 물이 흐르는 개천바닥이 뽀뽀하게 들여다보이였다. 그 기슭을 말없이 걸으시며 그이께서는 상원천의 상류와 하류, 주변지형

을 오래도록 살펴보시었다. 리종구와 소봉칠로인이 조용히 그이곁에 다가섰다. 그이께서는 웃음 어린 얼굴로 로인에게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상원천에는 그전에 자라가 유명했습니다. 그때 한시간도 되나마나한사이에 아마 두마리의 자라가 낚시에 물렸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자라가 많습니까?》

그이의 즐거운 추억에 소봉칠로인도 얼굴이 환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라가 아직 많습니다. 자라는 우리 상원천의 특산입니다.》

로인의 자랑어린 말을 들으시며 또한번 상원천과 주변지형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제방우에 그림처럼 안겨오는 양수장을 보시고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상원천물량이 이만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물이 바른 봄철영농기에 이렇게 사방에서 물을 뿜아올리면 상원천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맘때면 저 읍에서부터 한 네댓대의 양수기가 밤낮 물을 퍼내는데 상원천물은 그저 그만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로인의 말을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리종구를 의미있게 바라보시었다.

양수장을 떠나신 그이께서는 로인의 팔을 끼신채 나지막한 언덕우로 오르시었다. 푸릿한 새벽빛속에 그이의 눈에 먼저 안겨오는것은 사방 우중중하게 막아선 산들이었다. 마주보이는 앞산과 등지고선 뒤산이 남북방향으로 우줄우줄 길게 뻗어나갔는데 그사이에 골짜기라 하기에는 너무 넓고 벌이라 하기에는 너무 좁은 평지가 북쪽으로는 크게 막힌곳이 없이 길게 뻗어있었다. 그 한가운데로 상원천이 흰 띠같이 우불구불 골바닥을 사선으로 가르며 기여나갔다.

그 골바닥의 한가운데 거뭇거뭇한 흙더미들이 솟아났다. 사방에서 용접불꽃이 병긱거리고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휘저으며 분주히 오갔다. 이따금 건설자들의 웨침소리도 들려왔다. 공장터전은 아마 거기에 앉히고있는 모양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강냉이밭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도 산이 막아서고있었다.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감회깊이 지형을 더듬으시던 그이께서는 왼쪽 산기슭에 줄을 지어 늘어선 살림집들을 눈여겨 바라보시었다.

《소촌이구만. 그대에는 초가들이 울망줄망 널려있었는데 문화주택들을 아주 알뜰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저 앞산에 층층이 다락을 만들고 심은것은 과일나무들이 아닙니까?》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이 그득해 서있던 소봉칠로인은 자랑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고장에서 과일동산이라 부르는 저기에 사과, 배, 복숭아, 대추와 왕포도... 없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로인이 과

일동산이라 이름한 앞산을 정깊은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상원천이 흘러간 저 골바닥은 논이 아닙니까? 그때 수령님과 함께 어머님께서 상원천을 잘 다스려 논도 풀고 과일나무도 많이 심으라고 일깨워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자고 애쓴것이 알립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소봉칠로인은 감격에 목메어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리종구도 오늘따라 새삼스런 의미로 안겨오는 소촌마을과 과일동산 그리고 논밭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돌아보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는 눈앞에 펼쳐진 지형들을 부감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한번 살아보고싶은 고장입니다. 어느해인가 함흥시를 현지도하시면서 동흥산마루에 오르신 수령님께서는 성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장엄한 함흥시의 공장지구와 황금나락 설레이는 농장벌을 부감하시면서 이야말로 사회주의경치라고 크게 기뻐하시었습니다. 로인님, 우리는 여기에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세우자고 합니다. 동산에 과일이 주렁지고 상원천기슭에 황금물결 설레이는 여기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세멘트공장과 창광거리식 살림집거리를 들여얹으면 이야말로 세상에 다시없을 사회주의경치로 될것입니다.》

그 모습을 수령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고장 농민들도 아마 좋아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밤을 새우신것 같지 않게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궁벽한 우리 고장에도 희한한 공장이 세워져 도시부럽지 않게 되겠다고 농장원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거침이 없던 로인은 문득 말을 끊었다. 로인의 얼굴에서 하고싶은 심중한 이야기가 있음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다정한 어조로 재촉하시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한동안 갑자르던 로인은 결심한듯 말을 이었다.

《여기에 세멘트공장을 세우게 되면 농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세멘트공장이란 워낙 먼지가 많은 공장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얼굴에 심중한 기색을 지으시며 로인의 말을 긍정해주시었다.

《대대로 살아오며 여기에 알뜰한 보금자리를 꾸려놓은 이고장 농민들로서는 응당 있을수 있는 걱정입니다. 로인님, 그에 대해서는 건설을 책임진 이 리종구동무가 이야기해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리종구를 바라보시었다. 리종구는 자못 긴장해서 로인에게 설명하였다.

《로인님, 마음 놓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먼지나 연기가 거의 없는 현대적인 공장을 세우고있습니다.》

로인은 납득이 안가는데 고개를 기웃거렸다. 리종구 역시 설명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먼지잡이대책이 소로인의 물음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으로 되겠는가 하는 위구가 문득 생겨났다. 그리고 이고장에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사는 소촌농민들의 지향에 대해서는 거의나 관심 밖에 두어온 자신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리종구의 대답이 로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지 못한것을 아쉽게 여기신 그이께서는 로인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이제 사관실에 가보면 여기에 어떤 공장이 서게 되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사관실로 가보십시오.》

그러자 로인은 황송한 얼굴로 한걸음 물러섰다.

《제가 그런데를 어떻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농사군들은 그런걸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순진한 로인의 그 거동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의 팔을 끼시였다.

《모를것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 가면 로인님이 한생을 살아온 이 산천을 손금보듯 알수 있습니다. 로인님은 주인의 자격으로 웅당 우리의 건설 계획을 보아주어야 합니다.》

너무도 소탈하고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에 로인은 주책없이 눈물이 나올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팔을 끼신채 천천히 언덕길을 내리시였다. 지금 그이의 가슴속에는 공장도, 살림집도 훌륭히 건설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이고장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자신께서 꼭 지켜드려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있었다. 그이를 모시고 모형사관실로 향하는 리종구의 마음은 불안으로 허둥거리졌다. 그는 자기들의 설계형성안이 결코 잘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황한 마음으로 느끼고있었다.

4

사방 두어발이 채 못된직한 나무들속에 방금 밖에서 본 아름다운 산천이 어방없이 작게 축소되어있었다. 마치 어린애들의 장난감같은 소성로며 가스탑, 둥글둥글한 싸이로들이 사관의 골바닥을 거의 다 차지하고 드문드문 널려있었다.

그리고 골짜기의 남쪽을 막아선 산기슭에 5~7층짜리 살림집들이 숨이 가쁠정도로 비좁게 세워져있었다. 골바닥을 두개의 삼각으로 가르며 흐른 상원천도 큰 변화없이 우물구불한 흐름을 끝까지 퍼놓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장건물이며 살림집구역, 공공건물 등 형성안을 보실수록 허전해지는 마음

을 누르기 힘드시였다.

어제저녁 살림집위치를 바람받이에 정했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가슴에 서러오르던 우려의 마음이 지금에 와서는 어쩔수 없이 실망으로 바뀌여지시였다.

그이를 섭섭하게 하는것은 여기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리익과 요구와 지향이 설계형성에 옹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의안자들이 현대적인 공장만을 중시한 그점이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제진설비만을 믿고 바람받이에 정한 살림집 위치나 소촌농민들의 기본 농경지인 골바닥의 논밭에 예견한 공장부지 그리고 변함이 없는 상원천 등 사관의 곳곳에서 느끼시였다. 사방 산으로 둘러싸인 이 일대에서 산과 하천을 잘 리용하면 살림집도 더 좋은 자리에 세울수 있고 농경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특색이 있는 공장과 산중의 도시를 형성할수 있었으나 의안자들은 이 훌륭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멘트공장마을에서 나서 자란 소성공출신의 리종구가 이런 형성안을 내놓은것이 더구나 섭섭하시였다. 형성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인민성,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의 허약은 일군 리종구를 두고 은근히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한밤을 지새우시였어도 건설장에 나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자신께서 이밤의 시간과 걸음을 아꼈더라면 이런 형성안을 볼 기회를 놓쳤을것이고 인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사관에서 눈길을 드신 그이께서는 긴장한 자세로 말씀을 기다리는 리종구와 그 옆에서 신기해하는 얼굴로 사관을 보고있는 소로인을 바라보시였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사관옆에 세워놓은 지시봉을 드신 그이께서는 소로인에게 이것이 골바닥에 정한 공장건물들이고 이것이 남산에 세울 살림집들이라고 일일이 설명해주시였다. 소로인은 알만하다는듯 황송스레 웃음을 몇번 곱혀보였다. 그이께서는 소로인에게 물으시였다.

《로인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 땅을 가꾼 주인의 자격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시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슨 의견을... 제가 보기에는 그저 신기하고 훌륭해보일뿐입니다.》

로인은 이렇게 황망히 대답올리면서도 얼굴에 어딘가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인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고계시였다.

《로인님, 공장에서 먼지가 나면 농사에 영향이 있을것도 물론 걱정하겠지만 대대로 가꾸며 살아온 논밭에 공장이 앉게 되는데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소로인은 그이께서 그렇게도 신통히 소촌농민들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시는바람에 가슴깊이에서 불뭉치가 화끈 솟아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나라에서 큰 일을 벌려 놓았는데 논밭 몇배기쯤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공장이 없게 되는 그 논밭은 우리 농장 농경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말을 음미하시듯 머리를 끄덕이시다가 시험성적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해서 서있는 리종구에게 몸을 돌리시며 마디마디 력점을 박아 말씀하시였다.

《종구동무, 내보기에는 건설안이 전반적으로 잘되지 못했습니다. 이 형성안에는 인민의 리익과 요구, 리상이 옳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이께서는 한마디로 형성안의 부족점을 밝혀 주시고 나서 지시봉을 들어 사판을 가리키시였다.

《이 설계형성안에서 제일 중요한 결함은 로동자들의 살림집과 공장부지를 바로 정하지 못한것입니다. 우선 살림집위치부터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종구동무, 공장의 먼지잡이는 어떻게 계획되어있습니까?》

제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론의를 거쳐 명백한 안이 세워져있었으나 리종구는 지금 전과 같은 자신심을 가지고 대답올릴수가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이미 앞선 제진 기술과 설비들에 대하여 료해하여보았는데 건설투자의 한 20프로를 들여서라도 90프로까지는 제진대책을 세우자고 계획하고있습니다. 먼지공업이라고 하는 세멘트공장에서 제진효률이 90프로이면 세계적수준입니다.》

《90프로란 말입니까? 하기는 세멘트공업의 제진문제가 힘든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만났던 서방의 한 세멘트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 세멘트먼지에 쫓기위 40층꼭대기에 올라가 산다고 그랬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얼굴에 떠돌던 미소를 거두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이 90프로 제진효률을 계획하면서도 살림집위치선정에서 바람향을 무시한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소봉칠로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되는바가 컸습니다. 세멘트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알뜰히 가꾸어놓은 삶의 보급자리를 두고 걱정하는것은 이 소촌마을 농민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의 목소리이고 인민의 요구입니다. 공장먼지를 90프로가 아니라 100프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투자의 절반을 밀어넣는 한이 있어도 먼지와 연기를 100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굴뚝이면 의례히 연기가 솟구쳐야 한다고 보는 기존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예? 100프로를 말입니까?》

세멘트공업에서의 제진이 어떤것인가를 잘 아는 리종구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물었다.

소로인도 놀란 눈으로 그이를 우려했고있었다.

《먼지와 연기를 100프로 잡는다고 하여도 살림집위치를 바람받이인 남산에 정하여서는 안됩니

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인민이 과학기술의 혜택만이 아니라 자연의 혜택도 충분히 입을수 있는 이 남향받이 서쪽산기슭, 이곳 농민들이 가꾼 이 과일동산기슭을 따라 살림집들을 앉히려는 의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골안에 도시를 세우는것만큼 골바닥의 농경지를 크게 침범하지 않는 방향에서 산경사면을 따라 중심이 있게 층층이 올려지어 산중도시의 특색이 두드러지게 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촌농민들이 애써 가꾸어놓은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로동계급과 이웃해서 농사를 지으며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순간 소로인이 그이께 한결을 다가서며 걱정해 넘쳐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러면 공장기초를 얹히던 저 우리 논밭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몇 안되는 소촌농민들이 뭐길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로인의 목소리는 어느덧 흐느낌으로 변하였다. 자기고장에 현대적인 공장이 세워진다니 기쁨은 이룰데 없어도 상원천기슭에 손끝에 피나도록 가꾸어놓은 논밭들이 파헤쳐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듯한 아픔을 느껴온 로인이였다.

로인을 바라보는 리종구의 가슴노리로 전류가 징 흐르더니 눈앞이 뿌옇해졌다.

나라의 큰일을 펼쳐가시면서도 인민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을 리종구는 눈물없이 받아안을수 없었다.

(아, 위대한 인간! 사랑의 화신!)

리종구의 심장은 이렇게 끝없이 뛰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남산기슭에 비좁게 세워놓았던 살림집모형들을 과일동산기슭으로 옮기시였다. 서쪽산기슭에는 잠간사이에 경사면을 따라 다층살림집들이 층층이 일떠선 이채로운 살림집거리가 생겨났다. 이어 그이께서는 공장부지는 살림집을 세우기로 했던 남산기슭으로 옮기되 건물을 높이 올려도 짓고 땅밑으로 내려도 짓는 방법으로 립체감이 나게 건설하여 보기에다 좋고 생산면적도 크게 절약하여야 한다고 리종구에게 일깨워주시였다. 달라진 형성사판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지시봉으로 상원천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지구의 건설형성에서 또한 농치지 말아야 할것은 이 상원천입니다. 이 상원천을 잘 써먹으면 우리는 인민들에게 아주 리상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소봉칠로인도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다 이 상원천의 물량이 지금같은 갈수기에도 초당 2~3립방은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루면 근 25만립방의 물이 흐르는 셈입니다. 이것이면 이 좁은 골안에서는 결코 적은 물이 아닙니다.》

리종구는 순간 것처럼 보잘것 없는 상원천의

엄청난 물량에 놀랐다. 상원천의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고 하시던 대동강상에서의 그이의 물으심이 그리고 소봉철로인과 나누신 그이의 담화가 새로운 의미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생각이 그 어느 한끝에도 가닿는데가 없었다. 조금 사이를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확정적인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 상원천을 대담하게 사철 푸른 물이 출렁이는 하나의 큰 강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상원의 대동강>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신흥도시에 살게 될 우리 인민의 요구이고 후대들의 요구입니다. 그러자면 넓지 않은 이 골바닥을 사선으로 잘라놓은 이 흐름부터 기슭으로 돌려 우리에게 리롭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폭도 한 100미터 넓히고 그 강안에는 유보도를 뽑아야 합니다. 물론 물량이 적은것만큼 흐름을 따라 구간구간 갑문을 설치하여 물을 잡아놓으면 훌륭한 산중의 운하, 인공강이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문득 말씀을 끊으시였다.

순간 리종구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벌써 이렇게 뛰치고있었다.

(아, 그것이다! 상원의 《대동강》! 바로 그것이다!)

그이를 우러르는 리종구의 눈길에 감탄, 아니 놀라움에 가까운 환희의 빛이 물결쳤다. 그와 동시에 대동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낚시군들의 등불이 떠올랐고 대동강의 오늘과 더 아름다와질 앞날에 대하여 그토록 열정에 넘쳐 펼쳐보이시던 그이의 숨엄한 모습이 망막을 가득 채우며 떠올랐다.

아, 그래서, 무더어진 나의 머리에 상원의 《대동강》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이께서는 깊은 밤 대동강의 밤풍경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리종구는 눈굽이 핑 저러들었다. 동시에 리종구는 그이께서 벌써 평양에서부터 상원의 《대동강》을 안고 떠나시였음을 가슴저리게 깨달았다. 아니 어린 시절 이고장을 찾으시였던 수십년전 그날부터 상원의 《대동강》을 가슴에 안고계시였는지도 모른다. 놀란것은 리종구만이 아니였다.

리종구의 옆에 엉겨주춤 서있던 소봉철로인도 놀라서 웅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럼 우리 상원천이 강으로 변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이런!...》

로인은 리종구의 팔을 덥석 잡았다.

(아, 위인을 모시니 수천만년 한모양으로 흐르던 실개천도 강으로 변하는구나!)

산갈은 감동이 가슴에 밀려들며 로인의 눈에 눈물을 빚어올렸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팔을 힘주어 잡으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로인님, 상원천도 이제는 인민을 위해 강으로 성장할 때가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리종구를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

다.

《종구동무, 이렇게 되면 공장과 살림집구역을 이 푸른 상원천이 아름답게 구획짓게 될것이고 노동자들의 퇴근길은 자연히 상원천의 유보도와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먼지를 100프로 잡고 바람이 공장의 공기조차 날라가지 못하게 하며 공장앞의 이 상원천이 강우에 형성되는 기류로 공기의 흐름을 또한번 차단해놓으면 이 산중의 도시에는 이전이나 다름없이 맑고 청신한 산중의 공기만이 흐르게 될것입니다. 물론 상원천에는 멋있는 뱃트들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신듯 지시봉을 사관옆에 세우시였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와 함께 리종구의 심신에 가득찼던 앙양된 감정은 껴진 공처럼 순식간에 꺼져내리고 문득 자신에 대한 허무의 감정이 급속히 온몸에 퍼져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문득 오늘 그이를 건설장에 모시지 못했더라면 건설장일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가 하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이의 넓은 도량, 온 세상을 놀래우는 그이의 거창한 전개력이 인민에 대한 것처럼 열렬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음을 종구는 다시금 심장으로 깨달았다. 보잘것 없는 실개천도 사랑의 강, 사랑의 대하로 물결치게 하고 세기적으로 내려온 공장굴뚝의 먼지와 연기마저 영원히 가셔주는 그 무한대한 사랑! 우리가 세우는 세멘트공장이 오직 인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며 작은 실개천마저도 인민을 위해 강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처럼 명백하고 이처럼 열렬한 복무정신을 지니신 위인!

리종구는 그이께서 이처럼 위하시인 인민은 안중에도 없이 유리한 생산조건과 최신식공장 그 하나만을 위해 동분서주한 자신이 끝없이 허무하고 역겨웠다. 동시에 그이의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용렬한 리종구 자기로서는 천분의 일도 헤아릴수 없으리라는 위구로 마음이 서글퍼졌다.

따뜻한 눈길로 자기를 주시하고계시는 **김정일** 동지께 리종구는 끌리듯 몇걸음 다가섰다.

뜨거운것이 끝내 눈시울을 넘더니 불을 지지며 흘러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전... 전... 일군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저녁부터 걸음걸음 응축되여온 죄스럽고 송구한 감정으로 종구는 끝내 머리를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급히 리종구의 한팔을 잡으시며 생각깊으신 안색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리종구동무, 동무가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니 며칠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제저녁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성공출신 리종구가 달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오늘 밤샘은 아주 보람이 큰 셈입니다.》

그이께서는 리종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었으나 그 말씀을 대신하듯 그의 팔을 힘주어 잡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리종구는 그만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그이께 몸을 탁 실었다. 그이께서는 격하신듯 리종구의 등허리를 쓸어주시었다.

《됐소, 됐소. 그만하라구!》

소봉칠로인도 축축해진 눈가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좀 후에 그이께서는 사판실문을 열고 밖에 나서시었다. 날이 흰히 밝아오고 있었다. 리종구는 그이를 모시고 지새운 지난밤의 일들이 꿈처럼 여겨졌다.

아, 공장의 부지도 바로 정하지 못하는 자기에 게서 일군의 잘못된 관점을 헤아려보시고 한밤을 고스란히 지새우시며 인민의 리익을 지켜주시고 전사의 운명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오직 인민을 위하여, 동지를 위해서만 사시는 그이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밤, 이런 걸음을 얼마나 지새시고 걸으시었으랴! 지금 이 순간 리종구는 지난 한밤에 인민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인민에게 복무해야 하는가를 깨우친 하나의 대학을 마친 듯한 느낌이였다.

승용차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리종구의 팔을 놓으시고 그와 정면으로 마주서시었다. 리종구는 그이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예감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리종구동무, 우리 다같이 심장에 새겨넣읍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이것이 일군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이고 일군의 생명이라는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일군이란 그 존재자체가 필요하지 않은것입니다. 나는 동무가 공장도 살림집도 더 훌륭하게 건설

하여 인민이 사랑하는 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명심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한결을 떨어져 서있는 소봉칠로인에게 다가서시었다.

《로인님, 소촌농민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앞으로 공장건설이 다 된 다음에 다시 나와 소촌농민들을 찾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소촌을 락원의 땅으로 더 잘 가꾸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소봉칠로인은 또다시 눈굽을 훔치며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오실 때처럼 조용히 건설장을 떠나갔다. 리종구는 평범한 하루밤을 바치시며 새로 일떠설 신항도시 인민들의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운명도 지켜주신 위대한 은인을 우러러 깊이깊이 머리숙여 큰절을 올렸다.

×

그때로부터 2년후 어느날.

우리 나라 신문들은 일제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하시운전을 하고있는 상원세멘트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세멘트공장을 자동화, 원격조종화되고 위생문화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리상적으로 마련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 세기에는 다 이런 공장을 건설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 신문 2면에는 리종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이 실려있었다.

시조

백두고향집 외 3편

어머님 자장가에 설한풍 길들였고
아드님 단꿈속에 미래가 비졌나니
조선의 대통운은 이 집에서 동텠어라

넓은 품

제 아무리 넓다 해도 따듯해야 품이로다
저 넓은 바다에는 풍파가 따르지만
장군님 넓은 품엔 사랑만 넘치더라

한찬보

주체사상탑

구만리 장천아 네 높다 자랑말아
주체사상탑에 어려있는 그 뜻에야 비기라
하늘이 높다 해도 탑밑에 푸르더라

당창건기념탑

마치와 낫과 붓 한품에 안긴 모습
어서 모두 쳐다보자 너도 있고 나도 있다
금뿔 둘러 엮어주는 고마운 어머니여



탄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탄생일마다에도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여기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사업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보내신 몇해의 생신날을 보기로 하자.

△ 1970년 2월 16일

이 하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예술 부문 지도로 긴장한 시각을 보내시었다.

오전에는 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여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 연출대본에 대해 일부 배우들속에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고 오후에는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을 집무실에 부르시여 창작단성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일군들은 이것으로서 그이의 하루사업일정이 끝나고 어서 우리 인민이 올리는 만수축원의 인사를 받아주시실것을 간절히 바라고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또다시 예술영화촬영소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와 오랜 시간에 걸쳐 담화하시면서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이 담화는 그날 자정이 넘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 1971년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청사의 어느 한 방에서 문화예술 부문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접견을 받게 될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날은 뜻깊은 생신날이었으나 이번 명절에도 역시 그이께 올릴 축원의 인사를 집무실에 찾아와서 드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방에 들어서시자 일군들은 모두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정중히 일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오늘은 생신날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올리는 축원의 인사에 뜨겁게 답례하시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었다.

인사가 끝나고 어느덧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한 일군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소청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이제 시간여유가 좀 생기면 다음방으로 함께 가봐주셨으면 합니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기색을 의아하게 살펴보시다가 옆에서 안내해드리는데 따라 다음방으로 걸

음을 옮기시었다. 다음방에는 바로 경애하는 그이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올리려고 마련한 정성품이 진렬되어있었다.

벌써 몇해째나 이런 기회를 얻으려고 애써왔으나 여태 어느 한번의 생신날에도 정성품을 마련해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그이의 품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받아안고 살아온 일군들로서, 그이의 손길아래 영광스러운 주체예술의 개척자, 선구자로 자라난 그들로서 그이상 죄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없었다. 참으로 해마다 그런 식으로만 2월 16일을 스쳐보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 더는 묵새겨둘수 없는 절절한 흥분의 정을 담아 이번에 단연코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고야만 것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시여 한동안 놀라운 눈길로 정성품을 바라보시었다.

일순간 사태를 짐작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누가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누구도 대답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한 일군이 목메인 소리로 간신히 말씀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이건 온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린 정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말을 도중에서 끊어버리시며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이 벌써부터 나한테 선물을 들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나는 오직 수령님을 받들고 일하는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수령님앞에서는 평당원입니다.》

방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때에도 수령님께 선물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

당성이 강한 일군이라면 일을 잘하여 실지 사업으로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남기신후 그이께서는 인차 수많은 일감이 기다리고있는 집무실로 향하시었다.

△ 1973년 2월 16일

명절전야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 31돐을 앞두고 온 나라의 마음은 하나같이 그이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청사로 쏠리고있었다. 전국 각지로부터 수천수만통의 축하전문들이 날아왔다.

허나 이밤 그이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청사

만은 아무런 명절기운도 엿보이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밤을 여느날과 다름없이 긴장한 집무로 지새우고계시었다.

벌써 몇시간째 그이께서는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었다.

어느덧 벽시계가 맑고 그윽한 음향으로 2월 16일 새날을 알리었다. 일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한동안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영문을 깨달으신 그이께서는 급히 그들의 인사를 사양하시었다.

일군들이 걱정을 가라앉히지 못한채로 자리에 앉자 그이께서는 감회깊으신 어조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백두밀림에서 항일혁명투쟁이 가렬처절하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수령님께서도 지금도 그때의 고생이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군합니다.

나는 유년시절을 장군님을 따라 불길속을 헤치며 싸우시던 어머니의 등에 업혀 다니다보니 생일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해방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동지들로부터 이렇게 생일축하를 받고보니 마음이 별래집니다.》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새겨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시며 웃음을 담아 《나는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맹세와 부탁으로 알고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멀고 험하지만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시대를 끝까지 개척해나갈것입니다.》

근엄하게 울리는 말씀이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안광에서 번뜩이는 예지의 빛 발아래 통일의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 1975년 2월 16일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이날도 역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침일찍 집무실에 나오시여 종일토록 사업하시였으며 저녁무렵에는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어느 한 단위에 현지지도를 나가시였다.

자나깨나 뵈옵고싶던 그이를 천만뜻밖에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그곳 일군들의 기쁨과 행복은 한량없이 컸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크나큰 감격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미덥게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오늘저녁 동무들이 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나는 오늘밤을 동무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모두 몸가까이 부르시며 그들의 건강상태며 사업형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시해주시었다.

어느새 밤은 깊어졌다.

일군들은 전사들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이밤이 다 지새는것이 안타까와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를수 없었다. 마침내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의 심정을 말씀드렸다.

《저...오늘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입니다.》

《생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말을 되뇌이시더니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그러나 력사적인 이날 그이를 모시게 된 남다른 영광을 지닌 일군들은 이 순간에 그대로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그이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거듭 사양하시며 앉으라고 권하시었다.

《전사가 무슨 생일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일만을 최대의 명절로 기념해야 합니다.

나는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기때문에 생일을 쇠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백두산의 눈바람속에서 혈전을 벌리시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라다나니 어린 시절부터 생일이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백두산에서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어느덧 숙연한 빛이 어리었다.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애석한 추억을 더듬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던 일군들은 그만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방안에 침묵이 흐르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가슴이 쓰리신듯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달래시듯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자꾸 그러기때문에 나는 어머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동무들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합니다.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꼭 완수해야 합니다.》

끝없이 갈마드는 애석한 감정을 혁명에 대한 드립없는 맹세로 승화시키시며 만사람의 가슴을 불러일으키시는 불같은 호소였다.

창밖에서는 벌써 어둠이 희뵌하게 가서지고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

△ 1982년 2월 16일

1982년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우리 인민이 가장 경사스럽고 뜻깊은 두 명절을 함께 맞이한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 40돐을 맞이하게 되었던것이다.

온 나라는 년초부터 민족최대의 경사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사업으로 들끓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하시고 자신의 탄생일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행사도 허락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요즘 일부 일군들이 40돐이요 뭐요 하면서 나의 생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나는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이때 일군들은 그래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니 꼭 풀어주셔야겠다고 한결같이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아닙니다. 생일을 쇠지 않으려는것이 바로 나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설복하십시오. 그러면 리해할것입니다.》

그이의 드림없는 결심앞에서 일군들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그들이 올리는 간절한 제의를 모두 막아버리시고 엄격한 요구로 2월 16일에 예견한 모든 기념행사를 중지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 어느 한해의 탄생일마저도 기념하지 못하도록 하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40돐만은 쇠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뜻만은 기이이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시였다. 하도 사양하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자신의 명의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을 초대하시고 그이의 탄생 40돐을 기념하는 소박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여있는 간부들을 자애롭게 둘러보시며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어조로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김정일**동지의 생일 40돐이 되는 날이다, 나는 이렇게 동무들과 함께 그의 40돐을 축하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원래 **김정일**동지

는 절대로 자기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실 그전에는 그의 생일을 원칙이 없으며 그저 집에서 식사나 함께 나누었을뿐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그의 생일을 꼭 쇠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혁명동지로서의 사랑과 정으로부터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간단히 동지들을 초대하였다, 원래 간부들의 정주년이 되는 생일은 함께 쇠던 전례도 있다, **김정일**동지가 생일을 쇠는것을 반대하였지만 나는 이번에 꼭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맺어진 위대한 수령과 계승자사이의 위대한 사랑과 의리가 말씀 때마다마다에 천만근의 무게로 실리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우리 당 발전의 길에 가로놓였던 가지가지의 난관에 대하여, 특히는 해방후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극복하고 유일사상에 기초한 건당의 위대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시고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수백만의 당원들은 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들어섰으며 당내에 강철같은 규율이 확립되였다, 수백만 당원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튼튼히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우리 당이 조국통일도 문제없이 할수 있고 세계혁명도 할수 있다, 우리 당을 이처럼 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하고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한것은 **김정일**동지의 커다란 공로이다, **김정일**동지는 사업방법에서 아량있고 대담하며 비상한 조직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조선로동당과 같이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고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혁명적당은 없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생일 40돐을 세상에 정식으로 발표하고 영웅칭호를 주기로 하였다, 그는 마땅히 영웅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축하하여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감격의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의미심장한 연설이였다.

일군들은 모두 승엄하고 격동적인 심정으로 잔을 높이 들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였다.

이리하여 조금도 휴식을 모르시고 생신날까지도 정력적인 사업으로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소박한 오찬이 40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되게 되였다.

인민위해 바치신 사랑의 서사시

뜻깊은 2월의 명절이 다가왔다.

2월의 명절을 앞둔 이 밤, 집집의 창가마다 흐르는 사랑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룬 수도의 거리거리에는 행복의 웃음소리 끝없이 넘쳐난다.

행복속에 잠겨있는 수도의 거리를 거니노라니 불현듯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로고가 다시금 가슴 찡릿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을 위하여 사업을 의논하시고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길을 걸어오시였다.

위대하신 두분께서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이 끝없는 사랑의 길우에서 이 땅의 새날이 밝아오고 인민의 소원이 화창한 봄날과도 같이 꽃피어나고있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완공된 수도의 어느 한 거리를 돌아보시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자.

1985년 8월 9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현대적 고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망들이 그윽히 꾸러진 창광거리 2계단을 돌아보시려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창광거리를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시름을 잊으신듯 못내 만족해하시며 하늘땅도 무색케 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 그토록 만족해하실 그날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기울이시고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신것이 더없이 기쁘시여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서계시였다.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신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살림집을 더 많이 지어주며 인민들이 즐겨찾을 편의봉사망들을 더 잘 운영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운터하게 하자고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인민들에게 선참으로 안겨주시고도 언제나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시고 온갖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두분의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

복속에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속에 우리는 자기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 그리고 인민의 소원이 어떻게 현실로 꽃피어나는지 다는 알지 못한다.

어지러운 감탕물이 흐르는 기슭에 키낮은 오막살이가 촘촘히 들어앉아있던 보통강반에,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수도 평양에 어떻게 세계를 경탄케 하는 기적이 솟아났는가.

지난날 우리 인민은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인간이하의 모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연명해왔다. 그런 인민이었기에 그들이 꿈속에서 그려보던 소박한 소원은 달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찍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량친부모 모시고 길이길이 인간답게 사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라가 없는탓에 이러한 소박한 소원마저 이룰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였다.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념원을 남먼저 헤아려주신분은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자애로운 수령님이시였다.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당, 국가, 무력건설의 중대한 임무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는속에서도 개선연설을 하신 그길로 강선을 찾으시고 또 인민을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건설을 발기하시고 현지에서 그 건설을 이끌어주시였다.

이슬내린 룡남산언덕과 만경봉기슭을 밟으시며 그 터전까지 몸소 잡아주시던 그 사랑의 길은 평화적건설시기에 이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쉼없이 이어져왔다.

이처럼 인민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마저 바쳐가시며 인민이 사는곳을 찾으시고 사랑만을 베푸시는 수령님의 《인민위천》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하기에 가슴속깊이 묻어둔 인민의 소박한 그 소원을 자신의 평생소원으로 받아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쉼없이 걷고 걸으시였던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어느 추운 겨울밤,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추위에 떨고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밤새도록 잠못 이루시다가 새벽 일찌기 룡환선거

리에 나오시었다.

너무도 이른 새벽이어서 부지런하다는 주부들도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불켜진 집이 없었다. 한동안 어둠속에 거리를 거니시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 불이 켜지는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시어 그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었다.

수령님 들어서신 그 방은 마루방의 한쪽벽에 빼치까가 자그마하게 붙어있어 차거운 랭기만이 돌고있었다. 입김이 서리는 방안을 둘러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다른 나라 설계대로 지은 살림집에서 인민들이 불편해하는것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가슴속깊이 새기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인민의 고통을 제일 먼저 헤아리시고 즉시 조선식온돌을 놓아주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어 추위에 떨던 인민들이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의 가슴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지도자동지의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자욱을 남긴 료환선거리는 1970년대까지도 그냥 남아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8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 어느 깊은 밤, 수령님 걸으셨던 오불꼬불하고 비좁은 골목길을 다시금 걸으시며 이 거리를 통채로 쓸어내고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었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잠 못 이루시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시기 위해 건축분야에서 관록있는 일군들도 상상할수 없었던 통이 큰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비범한 건축학적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로 그 시공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하여 넓은 료환선거리에 폭파소리가 울린때로부터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수도의 중심부에는 금강산절경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공산주의리상거리, 창광거리1계단이 웅장하고 황홀하게 일떠섰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완공된 1계단 창광거리 살림집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인민들에게 지어주려던 살림집이 바로 이런 집이었다고, 인제야 나의 평생소원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정녕 만시름 다 놓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렇듯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길이 곧 자신들의 기쁨이고 더없는 락으로 여기신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지나온 세월을 거슬러 추억의 노를 저어가느라

면 세월의 갈피갈피들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의 력사가 가슴뜨겁게 안겨와 눈시울 젖어든다.

우리 수령님께서서 한평생 지니신 좌우명은 《인민위전》이었다. 인민이 있는곳이 그이의 집무실이었고 인민행렬차가 곧 그이의 침실이였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의 《스승》은 인민이였고 우리나라의 《왕》은 곧 아이들이였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인민의 지향을 정책에 담으시였고 인민들이 기와집에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살도록 하는것을 자신의 평생소원으로 간직하신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 인민의 살림집과 대학습당도 넣어주시고 전승의 경축연단에서 내리시는 길로 강남요업공장(오늘의 7월 28일공장)을 찾으시였다.

정전직후 어느날 일군들이 수령님께 저택을 새로 지어드릴 의향을 말씀드렸을 때 전쟁을 이긴 인민들에게 변변한 살림집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못해 잠이 오지 않는데 나혼자 좋은 집에서 살것는가고 하시며 인민들의 살림집부터 지어주자고 말씀하신 수령님.

이런분이시였기에 일군들이 그이께서 수십년동안 아껴오던 수도중심부에 정부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에도 인민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 자리에는 인민을 위한 대학습당을 조선식으로 짓자고 크나큰 사랑을 주실수 있는것이 다.

어찌 그뿐이라. 인민이 마시는 공기와 물 한모금에도 티가 섞일가봐 한개 도시의 총계획도를 고쳐주시고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철저히 정화시켜 내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며 자신의 탄생일날에도 농장길을 걸으시며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의논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 아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위전》사상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인민 위해 복무하는 참된 인민의 국가로 되였던것이다.

이런 뜨거운 사랑속에 가는곳마다 인민이란 성스런 이름을 붙인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병원들이 솟아났고 락원거리, 창광거리, 광복거리 등 인민의 거리들이며 아이들을 위한 학생소년궁전들이 로동당시대의 대건축물로 우후죽순처럼 일떠선것이라.

이렇듯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에게 최상의것을 다 안겨주시면서도 자신께서는 한평생 너무나도 수수하게 생활해오시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에야 알게 된 그이께서 사용하신 《목란》 텔레비죤수상기와 보통비닐실내화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신분이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극히 작은 혜택까지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신 그야말로 인민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오신 인민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였다.

일상생활을 인민들과 똑같이 검박하게 하지 않으면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빗장이 놓인다고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늘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인생의 락으로 여기신 우리 수령님.

아버이수령님의 이 **《인민위전》**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좌우명을 일군들에게 심어주시고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라고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오계신다.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들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이러한 고귀한 좌우명을 간직하신분이시기에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매일같이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시고 췌기밥과 쪽잠으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남먼저 동트는 새벽을 맞으시였으며 자신의 탄생일날에도 건설장을 찾으시고 또 **《인민생활을 더욱 높임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것이다.

인민을 위한 사랑이 그처럼 열렬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것, 조국과 인민 위해 필요한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다.

아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수도의 거리들에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비롯한 하나의 웅근 도시와 맞먹는 거리를 일떠세우고 하

나를 설계하고 건설해도 그것이 조국의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되도록 이끄시여 대기념비들로 숲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것이 곧 수령님의 기쁨으로, 인민의 기쁨으로 되게 하신분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다.

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당사업을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있기때문에 모든 일이 잘된다고, 자신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것을 앞질러가면서 미리 조직사업을 하고 완성한 다음에 보여주기때문에 이제는 준공테프나 끊으려 나오면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나라와 지도자들도 많지만 한생을 인민 위해 끝없는 사랑의 정치를 펴나가는 그런 위대한 수령과 령도자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정녕 두분의 위인은 인민을 위해 태어나셨기에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가슴속 그늘진 사연과 고통도, 소박한 소원도 허물없이 들어주시고 그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풀어주시는 정치를 펴나가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이수령님처럼 오늘도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따사로운 빛과 열을 주시고 찬바람 불면 순풍으로 돌려세우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오계신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서계시므로 우리 수령님께서 올리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 영원히 끊임없이 울려가리라는것을 굳게굳게 믿으며 그이를 우러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깡볼로 클로페르 들레이

절세의 위인 **김정일** 동지
그이의 력사는 인민의 력사
한없이 겹쳐하시고 소박하신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인민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시작된것이어라
항일의 전장에서 총포소리 들으시며 성장하신 그이
인민에게 충실한 불같은 의지 키우시였어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뛰어난 예지와 높은 령도력,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이어가시여라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을 풍부히 하고
인민의 행복의 길
번영하는 새 조선의 앞길 밝혀주어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
그이께서는 혁명적전개력으로 이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리
탁월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조선인민과 전인류는 그이의 령도를 받들리
(필자는 콩고음악가임)

우리의 하늘은 영원히 밝다

김송남

넋의 송가

넋은 물들수도
엷을수도 없는것
오직 사랑만을 알아
사랑에만 이끌리는것

시인의 이 넋도
그렇게 이끌렸노라
그렇게 이끌려
부르노라
어제도 오늘도 그 사랑의 노래를...

기쁜 세월을 살아오며
기쁨에 목메이던 그이의 사랑
피눈물을 이겨내며
뜨거움을 더욱 알아
미더움을 더욱 알아
내 넋은 이미 송두리채 그이의것

이제는 나도 몰라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것인지
그이의 마음속에
내가 살고있는지

제 하나 생각이
어느덧 뜨거워지는 그이 생각이고
그이 생각에

언제나 내 마음 이처럼 즐거운것은
아마도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

바로 그것이여라
그이와 나를 따로이 생각지 않는
나의 이 마음
또한 나혼자의것이 아니라
이 땅 천만사람 그 모두의것이기에...

온 넋이 다 이끌려
만민이 그이와 하나로 된
자애로운 아버지
아, 그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어느때나 내 죽어도
그이의 무릎 베고 죽으리
그러면 넋이야 길이 살아남지 않으랴
대를 이어 그이만을 따르는
후손만대의 행복한 숨결속에

되여다오 내 넋이여
너만은 그침없는
시인의 노래가 되여다오
오늘도 내 부르고 래일도 내가 불러
경애하는 장군님을 길이 칭송하는...!

슬픔과 기쁨

물속에서
어찌 불이 태여날수 있으랴
슬픔이
어찌 기쁨을 낳을수 있으랴

허나 우리는
아픈 피눈물을 이기며
오늘의 이 힘을 길러냈다

잃어선 안될분을 잃은

째지는 슬픔속에
이제는 한분이신
그이의 귀중함을 더욱 깨달은
우리 인민이거니

온 나라가 상제가 되여
못참아 흘린
그 눈물에도
뜨거운 감사를 잊어주시여
그 방울방울을 불씨로 일으키신분

신년사 없이 맞이하는 설날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허빌가봐
 해를 거슬러
 수령님 그 음성 다시 들려주시며
 새 비약으로 인민을 불러주신분

지니신 뜻이 높고높음을
 세상 높이 머리 든 금수산기념궁전
 저 아슬한 지붕을 우러러 다시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령님을
 그이의 모습에서 뵈옵고 뵈옵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그 슬픔속에
 그래도 우리 가슴 무너지지 않은것은
 심장마다 흐르는 피 방울방울마저
 장군님만을 믿어 것처럼 뜨거웠기때문

아, 오늘의 이 크나큰 힘은
 이렇게 내려쳐올랐구나
 우리의 장군님을 더 잘 받들고
 목숨으로 보위해야 함을!
 그날의 슬픔이 속깊이 깨우쳐주어
 그날의 슬픔이 준절히 가르쳐주어…!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러러

머리 들어 우러르는
 금수산기념궁전
 하늘에 펼쳐지는 빛발처럼
 높은 지붕에서
 람홍색기발의 세찬 퍼덕임소리…

온 세계가 지켜보고
 온 누리가 귀기울이는
 엄숙한 성지
 그이이시다
 그이께서 자욱을 옮기시여
 오늘도 수령님과 사업을 의논하시려
 또다시 찾으시는것인가

해살처럼 비껴내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못잇을 그 미소
 이 세상을 마주안아
 거대한 품을 여는
 주체의 최고성지

영생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수령님 여기 계시다…
 아, 태양의 궁전
 그 누구의 상상도 미칠수 없는
 아득한 높이에 빛발쳐오른
 그이의 위대한 결심의 높이,

그이의 무한한 수고의 높이여!

이 집의 불멸의 빛발을 위해
 이 집의 숭엄한 무게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쌓고 다듬어
 벽을 세우시고
 계단을 넓히시더니
 오늘은 마치 처음이신듯
 인민의 앞장에서 그 계단을 오르시여라

경건히 머리 숙이라, 강산수목이여
 발밑에 내려와 깔리라, 역만별무리여
 궁전은 근엄한 지붕 더 높이 펼쳐들며
 그이의 사상
 그이의 인덕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정신력을
 세기의 해살로 활짝 펼치누나

아, 여기서
 여기에서
 수령님은 오늘도 환히 웃으시고
 인민은 매일같이 진정을 아뢰인다
 -어버이수령님 그 미소속에
 우리의 영원한 웃음이 피여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성인

성인들이 있었다
 때로는 등불이 되어
 듚직듚직 고여지는 징검돌이 되어
 철리를 밝히고 세상을 받들어
 력사의 갈피에 남아있는 이름들…

예지로웠더라

제나름으로 앞날을 내다본
 그 눈이 밝았다고
 스스로는 그 길을 한자욱도 개척못했건만
 그래도 그는 성인
 세월도 그의 후광에 이끼를 덮지 않았고

자비로웠더라

그 무슨 《복음》을 인류에게 선물한다고
자신을 바친 그 헌신도
다만 그 뜻으로 끝나고말았어도
그 하나로도 그는 성인
후세의 사람을 얻을수 있었나니

아, 그 무슨 말로 불러 칭송하라
그 모든 예지
그 모든 덕망의 절정우에서
천만년 인류의 미래에
빛을 뿌리시는분

태양의 위업을
태양의 위업으로 이으시여
자신이 내다보시는 그 길을
자신이 몸소 열어가시며
찬바람 눈서리 다 헤치시는분

그이는 예언자

예리한 통찰로
행성의 자리길을 내다보시고
그이는 천출명인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이끌어
태양계의 영원속에
인류의 운명을 품안으셨나니

력사의 그 모든 성인들이
그이의 의지속에 다 살고있는
성인중의 성인
세상 가장 성스러운 그 이름을
이처럼 친근하게 불러 행복하여라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밖의 호칭을 정녕 바라지 않으시는
끝없이 겸허하신 그이시기에
우러르고 받들며 따르는 이 마음속에
더 높이 솟아오르는 태양의 모습이어!

우리 하늘은 영원히 밝다

진두에서
우리 당을 이끌어달라고
수위에서
우리 혁명을 책임져달라고
이미 오래전에
인민은 력사앞에 확인했다
그이에 대한 절대의 믿음과 지지를...

이 믿음은
그이를 모시고 따르며
우리 받아안은 행복의 무게로 검증되고
민족의 아버지를 뜻밖에 잃은
아픈 피눈물로
더 푸르게 자래운것

어쩔번했으랴
놀라운 비보가 검은 손아귀처럼
우리의 웃음을 일시에 거둬가던 그날에
그이 아니셨다면...
그이 아니셨다면...

수령님 안계시는 세월은 해 무엇하랴
수령님 안계시는 하늘은 해 무엇하랴
무너져내리는 이 가슴
억세게 뻗쳐주던 마음의 기둥
그이 계시여
우리는 세월과 하늘을 다시 가지였다

아, 위대한 태양 또다시 밝아
비온 뒤의 하늘은 더욱 푸르려라
눈물에 젖은 행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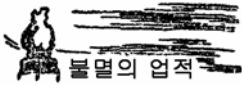
한결 더 무거워라

그이를 모시는 크나큰 행운
긴 세월이 깨우쳐주더니
세상 큰 불행을 거쳐
위대한 령도자를 더 높이 모시는
오늘의 기쁨은
이러히도 심오하고 격렬한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기쁨이어
우리를 일으킨 기쁨이어
우리는 이 기쁨으로
미래앞에 다시 확인한다
그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
절대의 이 지지가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불변의 사랑임을...!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 우리를 맡기고 가신 수령님 은덕은
고마운중에도 고마운 은덕,
그이 품에 대를 이어 누리는 이 행복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선의 수령복

들으라 후세여
들으라 세계여
이 가슴속에 높이 울리는 그이의 만세를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오늘도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그 미소로
우리 하늘은 영원히 밝다!



향도의 해발아래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

지난해 10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기념하는
성대한 경축의 광장에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신
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기개를 담은 신
념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의 통일단결을 상징한
우리 당 마크가 새겨진 성스러운 붉은 기치를 휘
날리며 도도히 흘러가던 철의 대오가 부른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

아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혁명의 수령으로 길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해나가려는 인민의 용용한 기상이 기
세차게 울려나오는 노래.

수천수만의 힘찬 발구름에 맞추어 만방에 울려
가던 노래는 선망의 눈길로 지켜보는 세계의 수
억만 사람들에게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끓고있는
맹세와 사회주의 조선의 장엄한 현실을 격조높
이 시위하였다.

세상사람들이 영웅적인민의 웨침이라고 한결갈
이 찬탄하는 이 노래는 과연 어떻게 태어난것인
가.

시대가 노래를 낳는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모
든 명곡들과 마찬가지로 가요 《높이 들자 붉은
기》의 한소절한소절도 위대한 철학, 위대한 정치
로 시대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향
도의 빛발아래 마련될수 있었다.

위대한 현실을 안아오시고 언제나 그것을 노래
에 담도록 우리 작가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고계
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 가사의 상을
주시고 형상의 요소들을 밝혀주심으로써, 가요는
명실공히 국보적인 작품으로 창작완성되었다.

작가는 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명
가사 창작원칙과 방도대로 붉은기에 대한 장군님
의 심원한 사상과 철학을 가사에 옮겨놓았을뿐이
며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
의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걱정에 넘쳐 이 노래를 창작하던 때를 회고하
는 작가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다.

아버이수령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온 나라가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로 끓어번지고있던 지난해
6월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

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
꾸어 일떠선 우리 인민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붉
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력
사의 준령을 넘어온 붉은기에 담겨진 심원한 사
상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붉은기.

우리를 태우는 빛발과 힘찬 퍼덕임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오는가.

하많은 추억이 실리고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희망과 승리의 표대, 그것은 장구한 세월을
이어오며 혁명과 투쟁의 상징으로 나뉘어져왔다.

《E.C》의 글발을 새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맹
세를 선언했고 백두광야를 누비며 일제를 쳐부시
는 혈전의 언덕에서 투사들의 피로 물들인 그 기
발.

해방후 각계각층 인민들을 그 기치아래 묶어세
워 새 나라를 세우고 전쟁의 불구름도 이 기발을
들고서 몰아내지 않았던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
며 오늘은 사회주의 승리의 리념이 되어 힘차게
날리고있는 조선의 붉은기.

주체혁명위업이 완성될 그날도 자주화된 세계
의 모습도 거기에서 그려보는 우리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서 심원한 사상을 받
아안은 작가는 창작적흥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새로
운 노래로 될수 있다.)

그는 솟구쳐오르는 상상속에 욕망을 불태웠다.

그러나 막상 가사를 쓰자니 그 짧은 글줄에 경
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 담으면서도 시
대가 안겨오고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게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써보았으나 시대상이 살아
나지 않았고 이미전에 나왔던 붉은기의 노래들과
별다른 의미를 가려낼수 없었다.

가사의 종자를 놓고 그의 사색은 거듭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옳
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종자를 찾아내

여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진실로 사실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요구에 해답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종자를 심어야 한다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침을 자로 하여 작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말씀의 숭고한 뜻을 시대의 숨결과 함께 음미해가며 종자를 무르익혀갔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항일혁명 투쟁시기에도 붉은기를 들고 승리했고 조국해방 전쟁의 준엄한 불구름도 붉은기를 들고 헤쳐왔으며 평화적건설시기에도 붉은기를 들고 승리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곧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온 사랑찬 투쟁의 력사, 붉은기의 력사였고 아버지 수령님의 한생애가 어리어있는 붉은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말씀이였다.

이러한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결심이고 의도인것이다.

작가는 문득 아버지수령님을 영결하던 그날이 안겨와 눈시울이 젖어오며 수령님께서 안고가시던 붉은 기폭이 눈앞에 어려드는것이였다.

험난한 혁명의 길을 《적기가》의 노래높이 헤쳐오시고 영원한 혁명의 기치로 붉은기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의 령전에 피눈물로 다진 맹세를 지켜 이 기발을 끝까지 지켜가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굵직한 의지임을 보여준 지나온 해도 돌이켜졌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든 이 기발.

이것이 우리의 대오앞에서 나아가는 저 기폭에 담겨진 의미가 아니겠는가.

창작실에서도 출근길과 가정에 들어가서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나가던 그는 드디어 종자를 잡아쥐였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애가 어리어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사랑찬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이 기발을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그날도 맞이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가려는 불변의 의지는 한자한자 심어져갔다.

...

이 기발 들고서 땅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의 한길에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그대로 옮겨진 가사는 주옥같은 문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노래의 성과가 고스란히 작가의것으로 되었으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작가와 작품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의 가사는 명가사라고 하시면서 특히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애가 어리어있다》와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며 붉은기에 어리어있는 력사에 대하여 아주 뜻깊고 고상하게 표현하였다고 그것을 작가의 재능으로 일러주시였다.

이 노래는 자신의 리상을 담고있다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힘과 신심을 안겨주는 노래이며 당창건 50돐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두고 말씀하시며 이 노래의 가사는 아무나 쓸수 없다는 최상의 신임으로 작가를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과 은정속에 작가와 작품은 영광의 절정우에 올라있다.

하기에 분에 넘치는 감격으로 송구한 마음에 쌓여있는 작가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있다.

《저는 이번 창작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야말로 탁월한 령도로 시대의 명곡을 낳게 하시며 한편의 노래로 천만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예술의 거장이시고 우리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라는것을 온몸으로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래일도 끊임없이 울려갈 90년대의 《적기가》 - 《높이 들자 붉은기》.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이 노래 높이 부르며 이땅에 공산주의노을을 남먼저 피워갈것이며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를 담아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찬란한 주체시대를 더욱더 힘있게 구가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금조각상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구세제민의 거룩한 태양으로 우러르는 경모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통일의 단상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삼가 만년축수의 큰절을 올릴 그날을 그리며 잠시나마 그분의 빛나는 존안을 몸가 가까이에서 뵈고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은 그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치고있다.

경상산줄기의 어느 한 골안에 사는 리종삼이라는 로인은 버섯을 채배하는 골안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금조각상을 정중히 모시고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고 살고있다고 한다.

홍안백발에 풍신이 좋은 그 로인은 일흔이 썩넘은 늙은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건장한지 그의 근력과 혈기는 50대 중년과 같고 기분도 30대 젊은이맛잡이로 명랑하다고 한다.

하얀 바지저고리를 입고 호로병이 달린 지팡이를 짚으며 쉼쉼 산길을 오르내리는 이 로인을 처음 보는 사람은 옛말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사로 알 정도라고 하니 그의 건강여부를 가히 짐작하게 된다.

짧지 않은 한생에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고생속에서 살아온 종삼로인이 어떻게 되어 이처럼 건강할까?

더우기 근년에 와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젊어지니 사람들은 그가 다시 젊은 시절로 회춘하는것 같다고 말한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런 종삼로인을 두고 호기심이 생겨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종삼로인에게 알수 없는 일들이 이것만이 아니라고 한다.

어느해인가 종삼로인은 버섯을 채배하는 동굴 앞의 손바닥만한 밭에다 콩한줌을 심은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 심은 콩은 봄에 왕가물이 들어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폐농을 하였지만 종삼로인네 그 밭에서는 당콩만한 콩알이 열려 열가마니도 넘게 거둬들이었던것이다.

또 한번은 온 마을이 장마피해를 입어 강냉이

농사를 망친적이 있었는데 종삼로인네 강냉이밭에만은 대풍이 들었었다. 목화를 심으면 목화도 풍년이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도 대풍이었다. 버섯채배는 더 말할것도 없이 대풍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종삼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입두입 건너 전해지는 과정에 어느덧 전설로 되고말았다.

지금 경상도 지방에서 전해지고있는 전설을 아래에 소개한다.

리종삼로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기구하였다고 한다.

첫 한모금 빨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여윈 그는 석수쟁이인 아버지의 등에 업혀 동냥젖을 먹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절음마를 떼면서부터 그는 아버지가 하는 돌쫓는 일을 배웠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이집저집 다니며 망돌을 쪼아주기도 하고 혹 어떤 때는 절간의 석불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인가 그는 열살도 되기전에 아버지마저 잃었다.

왜놈들이 강제로 내모는 부역에 끌려나간 아버지는 길닭이를 하다가 산에서 굴러내리는 돌에 치워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가엾은 고아가 된 종삼이는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의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이때 시주받으러 마을에 내려왔던 동냥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지나가다가 가궁한 종삼이의 정상을 보고 념불을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아 가엾은 인생인지고. 오솔길 덩굴에 한방울의 초로가 맺혔더니 이른새벽 날새들이 쪼아마시고 노루, 토끼, 산짐승들이 스적여 떨렸나? 바람과 해빛에 마르어 가뭇없이 사라지니 인생은 한방울의 초로요, 초로가 또한 인생이로다. 태백산 갈가마귀 개발 물어다 던진듯이 외롭게 된 어린 몸이 누굴 믿고 살아갈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종삼은 뜻밖에도 활불스님을 만난듯했다.

중은 종삼을 가엾게 여기고 산기슭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지내주었다.

《아, 이 세상에 도적의 무리 창궐하여 악한 짓

을 다하거니 네 어찌 가엸은 중생으로 그 목숨을 보존하라. 그리니 애야, 예로부터 초년고생은 만년복이라 일컬었거늘 네 조용한 절을 찾아가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극락이 바로 눈앞이요 그 뒤가 멀다하라.》

그러면서 그는 종삼이에게 자기가 잘 아는 스님이 주지로 있는 어느 한 절로 소개신을 써주었다.

종삼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절을 찾아 떠났다.

그가 찾아간 절의 스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몸 담글곳 없고 가지에서 떨어진 꽃열매같은 그를 절의 불목하니(절간에서 여러가지 잡일을 하는 아이)로 받아주었다.

그때부터 종삼은 절간에서 불도 때고 중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나라가 해방되는 날까지 여기서 지냈다. 고독한 종삼이에게는 웬일인지 미풍에 잘랑거리는 풍경소리며 기분을 녹갯해주는 중들의 고르로운 목탁소리며 불경을 외우는 자비와 비애에 젖은 그들의 경건한 목소리가 마음에 고옥한 안정을 깃들여주는듯했다.

절뜰에 가득한 향불연기는 《극락》에서 풍겨오는 향기인듯 저도모르게 낮이 하늘로 올라가는것 같은 환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짓는다고 종삼이도 절에 와서 삼사년 불목하니로 있는동안 중들이 외우는 불경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불공을 드렸고 념불을 외웠으며 자기의 소원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의 소원이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데려다가 편히 행복하게 해달라는것과 이 땅에서 간악한 왜놈무리들을 내쫓아달라는것이였다.

《나무아미타불. 판세음보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부처님을 불렀고 보살을 찾았다.

그러다 그는 절에서 왜놈들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절의 중들은 부처님이 가엸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 악귀같은 왜놈들을 망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종삼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부처님의 령험에 깊이 감심했다.

해방후 그는 절에서 나와 불쌍한 한 처녀와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순간이였다.

왜놈대신 이 땅에 기어든 미국놈들은 조선사람들에게 불행을 들씌웠다.

해방되어 여러해째 봄을 맞이했던만 사람들의

생활엔 춘풍이 깃들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엔 언제나 가난의 설음만 웅어리졌다.

그러던중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에 의해 전쟁이 터졌다.

인민군대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미국놈들과 피뢰군놈들이 그 행패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마을에 달려든 미국놈들과 피뢰군놈들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창고에 가두어넣고 불을 지른 다음 기관총을 쏘아대었다.

창고에 갇힌 종삼은 자기를 구원해주십사 하고 눈을 감고 부처님께 빌었다.

종삼은 놈들의 기관총란사에 마을사람들이 쓰러지는것을 보자 미국놈들과 피뢰군놈들을 저주하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분명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이게 어인 일인가?

그는 모자에 붉은 별을 댄 군대의 품에 안겨있는것이였다.

종삼은 흠칠 놀라며 일어나려고 하였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요.》

군대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치도 하늘에서 의로운 군대들이 악귀들을 쳐엎애려고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린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입니다.》

《예? **김일성** 장군님께서요?》

그는 깜짝 놀랐다. 천병(하늘의 군대)이 아니라 인민군대라니? 어깨에 별을 단 인민군군관은 종삼에게 축지법을 쓰시는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남녘인민들을 해방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군관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사진 한장을 꺼내여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십니다.》

종삼은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안을 뵈옵자 땅을 차고 벌떡 일어났다.

예지와 자애에 넘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러르니 사지에서 자기를 구원해주신 장군님의 하해지택에 보답하려는 의리심이 가슴가득 차고넘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러 큰 절을 드리였다.

마을이 해방되자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였다.

종삼이도 땅을 분여받았다. 분여받은 땅에 제 이름을 쓴 지경패말을 박던 그날 종삼은 난생처음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은 자기를 사지에서 구원해주지도 못했고 언제한번 이런 큰 기쁨을 안겨준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구세주이시고 하늘님이 아니신가?

그는 부처님의 령험도, 자비심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관세음보살도, 고통받는 중생을 따듯이 위로해준다는 지장보살도 다 세상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한갓 우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여직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가. 생각할수록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인민군대한테 혼살이 난 미국놈들과 피뢰군놈들의 행패가 심할수록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은 종삼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날 종삼은 오래동안 놓았던 정과 망치를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남들의 눈을 피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심분투하여 그는 끝내 장군님의 영상을 옥돌로 훌륭하게 조각하였다.

종삼은 이 조각상을 어디에다 모실까 하고 생각하던중에 자기가 버섯을 재배하는 자연동굴속에 모시기로 마음먹었다.

장군님께서 분여해주셨던 당도 다시 빼앗겨 맨주먹만 남은 그는 언젠가부터 종균을 얻어다가 자연동굴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던것이다.

종삼은 바로 그 동굴안에 장군님의 조각상을 모시였다. 그날부터 그는 굴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장군님의 조각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극진히 공경하였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련이어 생겼다.

곡식을 심으면 그것이 풍년이요, 버섯재배는 더 말할것도 없이 잘되었다.

그러니 종삼이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이상하여 머리를 긁적거리며 수군거리었다. 그들은 종삼로인이 어릴 때 절에서 불도를 닦았다고 하더니 늘그막에 부처님이 령험이 든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었다.

종삼로인한테 수배받는 한 대학생청년이 찾아와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였다. 조국통일을 부르짖으며 미국놈들과 피뢰도당을 반대하는 데모의 앞장에 나섰다 하여 경찰이 수배령을 내린 청년이었다.

로인은 그 청년을 버섯을 재배하는 동굴안에 숨겨주었다.

청년은 동굴안에 모신 **김일성** 장군님의 조각상을 보고 기쁨에 넘쳐 로인의 손을 잡아흔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로인님, 정말 로인님은 훌륭하십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은인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북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계승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여 우리 민족을 행복으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남민중들도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십니다.》

대학생청년은 계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문무중효와 지, 인, 용을 다 겸비하신 다재다능하고 령도적수완이 뛰어난 결출한 지도자이시라는것과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수많은 구호물자를 마련해 보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청년은 가슴속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사진을 꺼내어 로인에게 보여주었다.

로인은 그이의 영상을 보는 순간 격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정말 백두산의 별님은 하늘이 낸분이 분명해. 름름한 위풍, 만면에 풍기는 정기, 그래서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게지.》

그때부터 대학생청년은 피신해있는 전기간 로인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줄을 몰랐다.

《여보게 쫄은이, 내 지금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을 안고 살아온것은 바로 **김일성** 장군님의 조각상을 모시고 그분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해왔기때문일세. 내 이제 **김일성** 장군님의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조각상도 함께 모시려는데 임자 생각엔 어떤가?》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힘이 솟고 기쁨이 생길것입니다.》

청년은 로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날부터 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조각상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조각상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두분의 조각상을 다 만든 로인은 거기에 금물을 올리려고 하였다. 혼자 사는 몸에 재산은 해서 무엇하랴. 수령님과 경애하는 그이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생각한 로인은 주저없이 모아두었던 돈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금을 구해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그이의 조각상에 금물을 올리고 동굴안에 정중히 모시였다. 금조각상을 모신 동굴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금조각상에서 햇빛과도 같은 눈부신 빛발이 뿜어나왔던것이다.

그 광망을 받아안은 로인의 가슴속에선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로인은 기쁜 일이 생길 때나 슬픈 일이 생길 때나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그이의 금조각상앞에 찾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아뢰었다. 이 살벌한 풍진세상에서 오직 믿고 따를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그이밖에 없었던것이다.

조각상앞에서 슬픈 일을 아뢰이면 그분들은 로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며 봄빛같은 자애로 용기를 주시고 슬기와 묘책을 가르쳐주시었고 기쁜 일을 아뢰이면 아버지의 골육지정으로 함께 기뻐해주시며 아침해살처럼 싱싱한 미소를 가지히 뿌려주시었다.

종삼로인의 버섯재배는 전보다 더 잘되어 수확이 두배로 늘어났다.

로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젊어져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온듯싶었다.

사람들은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종삼로인을 찾아와 두분의 조각상을 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고 한다.

로인은 서슴없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이상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금조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몰라보게 달라지는것이였다.

그들은 온몸에 새힘이 솟구쳐올라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몰랐다.

더욱 신기한것은 그들도 종삼로인처럼 무엇이냐 하는 일이 다 잘되는것이였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었고 고기잡이를 나가면 고기가 잘 잡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언제나 가슴속엔 기쁨이 넘쳐나고 신심이 생겨 그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결연히 나서군하였다고 한다.

태양과 위성

김정곤

한별을 받들던
그날의 환호성
지금
우리의 가슴에 백배하다

심장의 가락을 맞추며
《조선의 별》을 부르던 열정의 합창
지금
우리의 온몸에 솟음친다

공산주의 태양을 받든
영광의 이 시각을
김혁, 차광수의 년령기에
청춘! 우리가 맞이했나니
아! 우리의 태양
김정일 동지

그이의 신념으로
피를 덥히고
그이의 담력으로
배짱을 키우고
그이의 예지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수령님 주신 유훈은
심장을 두드리고
태양을 받든 환희
화산의 분화구로 터진다

힘이 솟는다
가슴이 들먹인다
제국주의 마지막 광란도
이 기세로 눌러 밟으며
우리가 달려갈 력사의 구간이
저기
자주세계의 한끝에 뻗어있다

무엇을 위한 청춘이나
누구를 위한 청춘이나
주작봉의 영생하는 눈빛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불같이 속삭이는 당부

장벽을 부실 우뢰가 여기에 있다
화구를 덮을 가슴도 여기에 있다
빙산을 녹일 열도 여기에 끓고
백화에 뿌릴 봄비도 우리가 품었다

아!
그이께 향한 이 충정
그이를 옹위할 이 맹세
성스러운 붉은기와 함께
변함없으리니

백두의 하늘에서 흘러온 성좌에
새 위성들 자리를 잡았다
태양은 영원하고
위성은 불멸하다!

바다사람들

김은옥

1

모든것이 예전그대로였다.

마스트에 날아에는 물새도 문을 활짝 열어놓은 선장도 그리고 물이 질펀히 흐르는 갑판도 언제나 눈에 익었던대로 안겨왔다.

최민선장은 선수의 제일 끝 배머리에 한손을 짚고 섰다. 노을이 피는 이 아침 바다우에 서고 보니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오며 그 리운 생각이 밀물처럼 안겨왔다.

왜 그런지 물새의 흰 나래가 것처럼 눈부시게 안겨오지 않았고 바다우의 산처럼 느껴지던 갑판이 것처럼 넓게는 생각되지 않았다.

7월의 바다...

태양이 떨어져내린 수평선끝에서 흰 갈기를 안은 파도가 묵묵히 달려온다.

그는 눈길을 떨구며 돌아섰다.

일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가슴아픈 추억으로 되는것이 두려웠다.

최민은 바람결에 날리는 방수포비옷자락을 째 움켜쥐었다.

(바다우에 떠있는 한... 나는 그날의 최민으로 남아있을것이다. 가자, 좀 있으면 양망시간이 된다.

갑판장에게 어항상태를 알려주고 2호선창도 돌아보아야겠다. 그리고 래일은 연구사가 제작한 양망기를 시험해야 한다!)

그가 선장실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열을 올려 새로 도입하는 양망기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다.

젊은 연구사 강진규가 제일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마치도 그는 래일 시험의 성공을 확인하는듯 문열에 선 선장을 향해 유쾌한 웃음을 보내었다.

...

하늘을 가리며 치솟은 파도가 배전을 향해 내리꽂히면서 거세찬 물보라를 터뜨렸다.

파도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어로공들의 웨침이 한꺼번에 터져오르며 소란을 피웠다.

최민은 입안으로 흘러드는 짭짤한 소금물을 내뱉으며 다시한번 앞을 주시하였다.

절단된 폭이 저마끔 흘러들어오는 프랄그물, 권양기의 아츠러운 동음, 기계옆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진규...

틀림없는 실패였다.

《여, 연구사동무!-》

최민은 격하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의 몽툰한 손가락이 눈앞에 날아가는 순간 연구사의 턱이 가볍게 떨어지는것 같았다.

《당장 기계를 해체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저사람들과 함께 그물을 당기란말이요. 제길, 그렇다고 27호에서처럼 내쫓진 않을테니 걱정하진 말고...》 선장실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얼핏 진규를 내려다보았다.

바람결에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후리후리한 몸에 깡뚱하게 달라붙은 고무조끼, 바지자락은 파도에 폭 젖어있었다. 그의 우울한 눈빛이 그물무지쪽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쯤되면 아마 오늘 저녁은 밤새껏 책을 볼테고 벽을 향해 돌아누워있을것이다.

최민은 눈섭을 찡그리며 선장실로 들어가버렸다.

그는 조타를 넘겨받고나서 불쑥 누구에게라없이 강진규가 연구를 시작한지 몇년째인가고 물었다.

저도 모르게 나간 물음이어서 은근히 당황한 생각도 들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어군탐지기옆에 기대섰던 갑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2년째 되는가... 연구소에서는 평가가 좋은데 먼저 도입을 시작한 27호에선 성공도 못하면서 꽤 애를 먹었다더군요. 하긴 우리 배에 온지도 1년이 되는군. 그 사람에 대한거라면 순아가 더 상세히 알겁니다. 진규가 지나가면 그뒤엔 꼭 순아의 치마자락이 펄럭거리니까...》

최민은 못들은척 앞을 내다보았다.

갑판장역시 달라지지 않는 표정으로 말그루를 박았다.

《처녀들이란 판에 박은듯이 꼭 같지요. 배에 타서 처음엔 생선처럼 팔팔해있다가도 임자가 생기면 영락없이 배멀미를 하는데... 이상하게 들어맞거든. 우리 순아도 두고보시우.》

최민은 흥 코웃음을 치며 조타를 외락 돌렸다.

그때 무전실쪽에서 무전수의 새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업소 무전입니다. 오늘아침 현재 통계에 의하면 3차청어잡이전투에서 76호가 최고기록돌파!

어때요? 만세 - 2선단 58호는 어제 부두에 들어서자마자 기름을 싣고 되돌아섰답니다. 해, 그치들 시퍼래서 덤빌텐데...》

처녀처럼 쟁쟁한 무전수의 웃음소리에 최민 선장은 능청스레 눈을 끔벅거렸다.

《갑판장, 58호 선장이 시퍼래지게 종을 치라구. 온 바다가 들썩하게 또 한기망 끌어보세!》

종이 울리었다.

우렁찬 웨침과 즐거운 휘파람우로 랑랑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아득한 수평선으로 퍼져갔다. 이런 종소리를 들을 때면 늘 몸에 느껴지는 찌릿한 쾌감에 선장은 버릇대로 발장단을 쿵쿵 두드렸다.

침실에 들어설 때에야 그는 진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선장이 버트던 휴가를 받아가지고 당창건기념탑 공사장으로 지원을 가는바람에 진규는 당분간 선장과 함께 침실을 쓰고있었다.

그는 옷침대에 올라가 여느날처럼 책을 펼쳐들고있었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난지라 말도 꺼내고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오늘아침 체조시간만해도 그는 갑판에 청년들을 휘동해 모아놓고 무슨 뿔헤엄의 특기동작을 배워주었다. 늘 수영선수권보유자로 긍지를 가지는 그에게 한사람이 《아니 공화국 선수권이란말이요?》하고 물었다.

누군가 입을 싸쥐고 웃었으나 청년은 정색해서 대꾸했다.

《우리 수산대학 선수권입니다. 뿔헤엄에선 내가 일인자였으니까요.》

배전에 벗어놓은 옷들을 입을 때 그는 선장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직 육체적단련이 부족한 어로공들을 위한 그 무슨 수영강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 서있던 갑판장이 피상하게 코를 찡그리며 하품을 하는바람에 선장은 본의아니게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진규는 대뜸 낫색이 달라져 고무조끼를 소리나게 휘둘러 걸치며 가버렸다.

최민은 왜 그런지 성격이 까다로운 이 청년이 마음에 들기도 했다.

머리카락을 형클어뜨리고 고무조끼를 푸드득거리며 선장실로 들어올 때면 그는 언제나 눈길을 슬며시 내리깔곤하였다. 자기의 새로운 양망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조차 그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도면에만 눈길을 주었다. 그러다가 한사람이라도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 그 자신이 침착성을 잃고만다. 그럴 때면 그는 눈빛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다. 바다바람을 맞으며 역세어진 배사람들 못지 않게 완

강하였고 날과람있는 체구가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듯싶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사그러지는 계기가 너무도 급작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더욱 놀라울 지경이었다.

어쨌든 이상한 청년이다.

최민은 작업복자크를 당기면서 웃음을 머금었다. 자기가 조금만 너스레를 떨어도 순간에 반응을 나타내며 기분이 달라지는 그가 지금 이 방안에 있다는것으로 흥겨워지기도 하였다.

탁자우의 주전자를 들고와 침대에 걸터앉은 그는 산뜻하게 찬 사기주둥이에 입을 대고 걸탐스레 물을 마시었다.

주전자를 놓은 다음 사진을 보게 되었다. 침대벽에 걸어놓은 밤빛액틀이 예나 다름없이 배의 진동에 조용히 흔들리었다. 손을 내밀어 그 조그만 사진액틀을 벗겨드는순간 가슴에 쿵 실리여오는 걱정예 몸이 떨리었다.

최민은 애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바람결에 날려갈듯이 비스듬히 얹혀진 모자,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가늘어진 두눈, 손에 든 살쥔 승어가 금방 튀어오를듯이 팽팽한 몸뚱이를 구부리었다....

모든것이 약동하고 생기에 넘쳐 환희를 불러일으킨다.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수년세월을 그와 떨어져본적없는 사진이었던만 최민은 여느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불에 사진을 짹 눌렀다.

벽장에서 무슨 책인가 꺼내들고 오던 진규가 입가에 얹은 미소를 띄운채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최민이 사진을 놓아두자 그는 소리없이 침대에 뛰어올랐다.

최민은 다시한번 오늘 시험의 실패에 대하여 상기하게 되고 청년의 우울한 눈빛이 생각되었다.

수영선수답게 미끈히 균형잡힌 육체에 어울리지않는 예민하고 나약해보이는 그의 성격이 불만스러워졌다.

(바다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짬맛을 덜 보았거든.)

최민은 태평스레 침대에 누워 눈을 슴벅거렸다.

《진규, 책을 보는척하지 말라구. 그런땀자 글줄이 눈에 들어올라구. 자네 무슨 생각을 하나?》

모포를 뒤집어쓰며 꿈 돌아눕는 소리가 났다.

아마 하루종일 그물을 당기느라 손에 잡힌 물집이 땀에 젖어 물컹거릴것이다.

최민은 젊은이가 측은하게 생각되어 입을 다물어버렸다.

조금 지나서 그는 두발로 옷침대바닥을 투덕투덕 차기 시작했다. 어느 영화의 주제가인 해군병사들의 행진곡에 맞추어 털이 부르르한 다리를 거들거리며 두드리는데 진규의 참을성이 깨지고 말았다.

청년은 머리를 천정에 쏘을듯이 벌떡 일어났다.

《이제 두번다시 침대를 걸어찬다면 전 다른 동무와 침실을 바꾸렵니다. 제발 절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때문에… 랑해를 구합시다.》

최민의 다리가 슬며시 들어가버리고 흠흠거리리는 코소리가 났다.

《저 이불속에서도 일하는줄은 몰랐는걸… 여보, 그런데 오늘밤은 좋지 않아? 사업소에서 우리 프랄선 1076호에 축하전문을 보냈는데… 기분이 들뜨거든, 내 시를 읊을게 들어보겠나?》

침대에서 일어난 선장이 목청을 가다듬는바람에 진규는 쓴 웃음을 짓고말았다.

《오, 나는 믿는다. 행복이 있다는것을, 자네 듣나? 응, 계속하지.

붉은 태양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저녁노을은 좋은 래일을 예고하거니

오, 나는 믿는다 행복이 있다는것을!》

속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린 최민은 등그런 시창까지 열어젖혔다.

서느러운 밤바람이 그의 성근 머리카락을 훑날려주었다.

해별에 탄 적동빛 얼굴에 유쾌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선장의 모습을 진규는 멍하니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한번 그대로 외워보랍니까? 전 벌써 세번째로 그 시를 듣는단말입니다.》

최민선장은 흰 이를 활짝 드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게, 실지 내가 외울수 있는 시라군 그것뿐이네. 행복이란 말 몇마디면 되지 않나. 하지만 나는 자네가 그 빨혜염선수권보유자라고 말하는걸 세번은 더 들은것 같네.》

진규의 입귀가 괴롭게 실룩거렸다.

《선장동진 늘 그렇게 만족해하는군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자동화가 못되어 어로공들이 힘들게 양망을 하여 고기톤수가 올라가면 만세를 부를테지요. 사업소가 내새워주니… 에익, 관둡시다.》

최민은 시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훑 들이키었다. 청년의 눈가에 어린 울분을 보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진규는 책을 펼치면서 그를 외면하였다.

《선장동진 평생 그 사진이나 안고 만족해있을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구요. 네?》

최민은 발을 탕 구르며 거칠게 소리질렀다.

《그만두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창을 후려닫았다. 그리고는 숨가쁜 걸음으로 침대에 다가가 주저앉았다.

침대벽에 걸린 밤빛액들이 전등불아래서도 그를 위로하는듯 그윽한 빛을 내뿜고있었다.

무심결에 내밀던 최민의 손이 주춤 굳어졌다.

그의 눈가엔 또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넘쳤다.

《자네가 행복이란 말도 번지지 못할 때… 난 그 말의 진미를 맛보았네.》

답답한 어조에 배인 너그러움이 청년을 진정케 했는지 가벼운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최민은 벽에 걸린 작업복을 벗겨들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것이 느껴져 침실문을 나서자마자 담배를 꺼내물었다. 가슴 후련히 연기를 내뿜을 때에야 그는 앞에 선 순아를 보고 흠칫 놀랐다.

순아는 상글거리며 다가왔다.

《왕새우가 생겼길래…》

순아는 앞치마자락밑에 감춰던 접시를 쳐들었다.

발깃한 왕새우가 소담히 담겨있는것이 먹음직스러웠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갑판장이 손을 내밀어 닝큼한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침실문을 열어제끼며 흰소리를 쳤다.

《누구에게 가져왔는지 몰라도 갑판장이 먼저 검식을 해보는게 좋아.》

최민선장은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왕새우는 진규가 제일 좋아하지. 난 기관을 좀 봐야겠는데 네가 어서 들여다주렴.》

순아는 말없이 앞치마자락을 들어 접시를 가리워버렸다.

최민은 의아해서 순아를 바라보았다.

지나치게 술많은 눈섭아래 시원하게 크고 검은 눈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사람은 아직 새우맛을 몰라요!》

순아는 책 돌아서 식당쪽으로 걸어갔다.

최민은 타들어가는 담배대를 손에 든채 한참동안 지켜보았다.

정말 처녀의 폭넓은 치마자락이 금시 바람소리를 일쿠는것 같았다.

《투망!-》

선장의 느릿한 구령이 떨어졌다.

물거품 이는 파도우에 뜨랄그물이 너울너울 퍼져갔다. 배전을 넘어서는 고무뽕을 향해 경쾌하게 내리쬐기던 갈매기가 파도에 날리듯 소리없이 솟구쳐오른다.

오늘 아침만해도 세번째 던지는 그물이다. 예상외로 좋은 어황이나 날씨가 좋지 않았다.

창문에 몸을 절반 내민채로 선장은 아래를 향해 계속 혼시를 했다.

《활차를 봐… 젊은너석의 일본새가…》

그러면서 장화를 신은 발로 발판을 쿵쿵 두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옛적 버릇대로 그를 《청년선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지 50대를 바라보는 자기 나이를 생각할 때면 그는 웃음과 함께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다. 20대에 450톤급 뜨랄선선장이 되어 여직껏 선단에서는 물론 사업소에서도 그를 따를 만한 선장을 꼽지 못하였다. 정말 그는 행운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성과와 인기 속에 묻혀살았다.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너무도 자신만만하고 해학에 넘쳐 기겁게 접어드는 그에게 어려운 난관이란 있어본적 없는듯싶었다.

적동빛얼굴의 이 《청년선장》이 년간계획을 제일먼저 완수하고 개선장군마냥 부두에 오를 때면 그처럼 유쾌하고 쾌활한 사나이는 포구에 없는것 같았다.

지금도 최민은 발장단을 치며 작업을 지휘하다가 선장실에 들어서는 진규를 돌아보았다.

청년은 말없이 보풀이 인 도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선장쪽을 흘끔 살펴보더니 몇번이나 들어온 설명을 또다시 시작하였다.

새로 제작한 양망기는 종전의 양망기에 비해 그물을 당기는 끌힘도 강하고 속도도 높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작업에서 제일 난문제로 되는 그물의 미끄럼현상도 거의 방지하도싶이 해결하였다. 몇번의 실패에서 찾은 경험에 의해 이번에는 양망기의 그물안내통을 개조하였다…

최민선장은 창턱에 놓인 쌍안경을 집어들며 심상히 물었다.

《그러니 이번엔 그물을 찢어놓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수 있단말이지?》

진규는 눈을 내리깔며 선장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짜증이 섞인 그의 말이 토막토막 끊어져나왔다.

《연구라는건… 어제오늘로 완성되는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글썽… 그물이 찢어질수도

있겠지요.》

《젊은 사람이라는게 참…》

최민선장은 눈가에 가져갔던 쌍안경을 던지듯이 놓아버렸다. 그의 시선을 피하듯 진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최민은 양망기에 송두리채 가있는 그의 넋을 순간만이라도 불러들이고싶었다. 그래서 흥얼흥얼 옛 바다의 민요를 부르다가 진규를 돌아보며 던지시 노래가 좋은가고 물었다.

फल히 생각에 잠긴채 서있던 진규가 어색하게 웃음을 머금자 그는 제후에 겨워 싱글거렸다.

《좋은 노래야. 우리 어머니가 배워준거라네. 내가 출항할 때면 어머니 늘 동구밖 멀리까지 따라나오신다오. 배에서 고동소리가 길게 울리면 <어서 가거라, 바다에서 널 부른다. 사내가 그렇게 집문턱을 넘기 힘들구야 항차 바다는 어떻게 넘나들겠니.> 하시며 내 등을 떠밀지. 나는 하얀 모래불에 묻힌 어머니의 조그만 발을 내려다보며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늘 제나는 왕왕 잊어버린다니까.》

라고 하며 머리를 돌리던 그는 진규와 눈길이 딱 마주쳤다. 그 눈길을 세심히 살피던 최민은 은은한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자네의 눈빛이 왜 그러냐? 꼭련에서 실패라도 한 사람처럼 기운이 없군.》

불쑥 내던진 그 말에 진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었다. 그는 배의 흔들거리는 벽체에 조심히 기대어섰다.

《성공이란… 저 수평선파도 같은가봅니다. 다가서면 멀어지고… 처음으로 하고싶은 말을 힘들게 고백했는데… 처너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마 선장동진 사랑에서도 저같이… 실패하지 않았겠지요?》

락심한듯한 그의 얼굴을 대하자 최민은 황황히 반박하려들었다.

《무슨 소릴… 자네가 왜…》

진규를 형클어뜨린 머리를 수그리며 도면말이만 만지작거리었다.

《모르는척하시는군요. 제가 순아에게 반해돌아간다고 온 배에 소문이 짜한데…》

이 말을 힘들게 내뱉은 진규는 창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눈을 감아버렸다.

잠시 마음을 진정한 진규는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준채 띠엮띠엮 순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시원시원한 성격처럼 생김새도 모든게 큼직큼직한 바다처녀, 순아는 배멀미를 하느라 열물까지 다 쏟고 드러누운 진규의 목덜미에 든든한 팔을 밀어넣어 일으켜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걸 이겨낸다는건 정신력의 표현이에요. 의

지가 약한 사람은 열에 열사람 하나같이 이겨내지 못해요.》

떠넣어주는 밥숟가락이 입에 와닿을 때마다 그는 목이 짝 메여와 가까스로 입술을 벌리었다. 그때부터 그는 이 처녀의 말을 믿었다.

과도의 찬 갈기를 맞으며 자라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누이가 되어 바람 세찬 대양을 넘나든 이 스물세살난 처녀를 진규는 그 누구보다도 무한히 아껴주고싶었다.

풍만한 몸에 눈덩이같이 흰 앞치마를 졸라매고 갑판으로 선실로 뛰어다니는 그를 프랄선 76호와 떨어질수 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믿고있듯이 그 또한 순아를 자기의 일생과 굳건히 련결하여 생각했었다.

대학때의 진규를 두고 스승들과 동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같이 바다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의 창조물을 건설할 불덩이같은 청년이라는것이였다. 그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수산연구소에 배치되어올 때 온 동해가 자기의것으로 된것처럼 랑만에 넘쳐있었다. 그는 자기를 타고난 바다사람으로 믿고싶었다.

하지만 76호의 사람들, 선장이나 순아까지도 그의 의지와 열정과 연구를 땀담한 눈길로 지켜보는것 같았다.

《그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선장동지와 같은 바다사람이라야만 일생을... 그를 탓하고싶지 않습니다.》

진규는 보풀이 인 도면을 구겨쥐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규!-》

최민은 다급히 소리쳐 불렀으나 청년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조타를 잡은채 망연히 앞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멀리서 건착선 한척이 마주오고있었다.

귀청을 예리하게 자극하는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갑판장이 올라와 시험준비가 끝났다고 알렸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에 고기비늘이 튀여올라 햇빛에 번쩍이였다.

《시작해볼가요?》

최민은 지나치게 힘을 주어 그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권양기쪽에서 진규가 고무조끼를 펼럭이며 이쪽을 올려다본다.

갑판장이 계단을 구르며 내려가면서 진규에게 신호를 보냈다.

웅-

전동기의 동음이 울리고 쇠바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물이 갑판바닥을 끌며 나아가고 양망기가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고 기계소리가 귀속을 파고들자 최민의 심장은 왜그런지 조

여드는듯싶었다.

(왜 바다에서 거의 끌려나와서 자꾸 말썽일가? 혹시 권양기능력이 약해서... 아니면 물개축의 각도가 잘 맞지 않는건 아닐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였다. 그 순간 최민에게는 갑판에 있는 진규가 별로 안절부절하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단호하게 전동기스위치를 잡아제겼다.

활차에 매여 움직이던 쇠바줄이 서서히 정지되고 수면에 닿지 못한 그물이 허공에서 거들거렸다. 400마력 기관마저 숨죽은듯싶었다.

아연해 굳어진 어로공들의 눈길을 받으며 선장은 갑판으로 내려갔다.

진규는 아무말도 없이 권양기며 쇠바줄에 매달린 그물이며를 살살이 살피는 최민을 떠어보다가 주저주저하며 실패를 예견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은 낫을 쥔그리며 돌아서서 진규의 말을 밀막고는 젖어있는 그의 팔목을 움켜 잡았다. 하얗고 부드럽던 그의 손이 그물을 당기느라 장알이 박히고 꺼칠꺼칠하게 터버렸다. 거친 그의 손을 잡자 마음이 울컥해지고 격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 방금 조타를 인계하였소. 이제부터 내가 여기 있을테니 올라가서 동무가 스위치를 넣으라구.》

《뭐라구요? 선장동진 나를 믿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진규는 최민의 손을 획 뿌리치며 성이 나서 소리쳤다.

뜻밖에 타격에 최민은 몸을 휘청거리며 물러섰다.

진규는 고무조끼를 벗어들며 갑판을 뜨고말았다.

어로공들도 하나둘 흩어지자 텅 빈 갑판에 선장이 홀로 남게 되였다. 언제나 해학이 넘치던 눈가에 비낀 당황함과 실망이 그를 순간에 걸뉘어 보이게 만들었다. 담배를 찾아 옷주머니를 뒤지여 한대 꺼내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라이터를 켜주었다. 불을 붙이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는바람에 그는 먼구스러워 돌아서고말았다.

고무호스를 늘어오던 갑판장이 그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사업소에서 며칠전에 전보를 보냈는데 진규동무를 연구소에서 부른답니다. 새로 건착선들에 도입될 폐연구에 망라되었다는지... 본인이 기계를 완성하고 가겠다고 말을 꺼내지 않은 모양인데...》

담배불을 붙이고 스적스적 걸어가던 선장은 갑자기 젊은 혈기가 되살아나는지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라 란간을 짚고 서서 소리쳤다.

《동무생각엔 진규가 그렇게 가버릴것 같나? 천만에, 연구라는건 어제오늘로 완성되는게 아닐세. 흥, 동무가 그걸 알아?》

어이없이 소리지르는 선장을 보면서도 갑판장은 태연히 고무호스를 늘어갔다.

며칠후 진규는 포구로 들어가는 200마력 운반선을 타고 76호를 떠났다. 사업소의 지시가 떨어진것으로 하여 누구도 달리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민선장의 눈치를 살피었다. 양망기에 대한 선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것인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때로 최민선장은 떠나간 진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럴 때면 자연히 침대벽에 걸어놓은 밤빛액틀의 사진을 보게 되고 피로운 아픔과 환희로운 행복의 소용돌이속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3

그는 역시 《청년선장》이었다.

진규가 떠나가며 양망기를 넣어둔 창고문을 열 어제끼더니 밤마다 그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때로 어로공들과 현장기사들이 선장의 호출을 받고 들어갔다가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나오곤하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최민선장의 열정에 탄복을 금치못하였다.

낮에는 선장실과 갑판에서 예나 다름없이 어로작업을 지휘하였고 조타를 돌리면서 줄기도 하였다.

한번은 그가 건착그물문제를 꺼내며 흥분하였다.

《우리 프랄선에서도 어로방법을 갱신하여야겠소. 이 새로운 양망기를 도입하고나서 건착그물도 싣고 다니면 좀 좋은가. 바다밑의 고기도 옷층을 회유하는 고기도 몽땅 우리 손에 들어올수 있거든.》

갑판장은 덤덤히 듣기만 하더니 불쑥 살이 말갈게 비치는 산 계를 내밀었다.

《우리 배는 지금 당장 점심식사가 문제지요.》

그는 다리 하나를 푹 떼내어 어적어적 씹었다. 비린내가 확 풍겼다.

최민은 코끝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아는 아프다고 드러눕구 창길이가 주방에서 어물대는 꼴이 익은 쌀알을 먹을것 같지 않수다.》

양망기에 미쳐 돌아가는 선장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 어조였다.

최민선장은 능청스레 눈을 찡프리며 갑판장의 배를 툭 두드렸다.

《원래 일등료리는 사내들이 하는거야.》

그는 갑판장을 밀어 어군탐지기옆에 세워놓고 자리를 떴다. 기계실을 돌아보는데 키가 꺾두룩한 기관장이 한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다리를 쥘것이 보였다. 소리없는 웃음이 나가고 발길이 저도 모르게 식당으로 옮겨졌다.

뜬김이 자욱한 주방에 들어서니 창길이란 청년이 열이 올라 도마위에 남새를 올려놓고 썰고있었다. 바닥에는 쌀알이며 남새조박들이 흩어져 지저분하고 바깥쪽에서 쌀함박이 주방칸이 좁다하게 굴러다녔다.

갑자기 창길이가 국가마쪽으로 비실비실 뒤걸음쳤다. 문소리에 순아가 들어섰다는것을 알아차렸으나 선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순아는 주저없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더니 바깥쪽을 집어들고 청년에게 휘둘러주었다.

어서 뽕프물이나 길어오라는것이였다.

최민은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젓고말았다.

《알는다더니 뭐 힘이 솟구치는 모양이군.》

처녀의 눈가에 피곤한 빛이 어려있었다.

《순아야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멀미를 안하게 생겼는데 뭐래요?》

그는 굵은 허리에 한손을 척 올려놓으며 돌아섰다.

문득 최민은 술진 눈섭아래 억실억실한 눈과 날이 선 코, 도톰한 작은 입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이 처녀야말로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즐거워졌다.

《그만 성을 내고 어디 폭 자보렴. 정신이 아주 맑아질거다.》

최민은 고기점을 집어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 씹으며 나왔다.

기계를 뜯어놓은 창고에 들어서니 현장기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물안내통을 드러내고있었다.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나니 밤이 퍼그나 깊었다. 현장기사들을 돌려보내고 해진 그물무지에 앉아 새로 그린 부분도면들을 뒤적거리는데 순아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선장앞에 저녁을 차려놓았다. 큼직큼직하게 파를 썰어놓은 이면수국을 보자 최민은 병글거리며 손을 비볐다.

《이거 냄새가 기가 막히는군. 멋지게 혼자 먹기 싫구나.》

그가 고집을 부려 겨우 숟가락을 함께 들었으나 순아는 국그릇에 손을 대다 말았다.

어쨌든 그는 오늘 기분이 달랐다. 여느때없이 주방을 비우고 그답지 않게 우울해있었다.

선장이 밥그릇을 냈을 때에야 처녀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난 어쩌면 좋아요? 글썄...》

크고 억실억실한 눈에서 마구 떨어지는 눈물을 보자 최민은 그만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파도에 들추며 음식그릇들이 위태롭게 들쭉거렸다.

한참후에 손수건을 쥐여주자 순아는 공손히 받아들었다. 실컷 울고나니 속이 후련한지 싱그레 웃기까지 하였다.

최민은 담배를 꺼내 물며 또다시 진규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너 진규한테 아픈 말을 한거로구나. 처녀가 너무 독하면 총각들의 기가 꺾이고말지… 좋은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말했지요? 바보같이…》

순아는 앞치마자락을 들어 코끝에 가져가며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 사람들 같지 않아… 그만 화가 나서… 저를 팔랭이로 보지 마세요!》

앞치마를 구겨주는 처녀의 손이 물에 퍼지며 더욱 커다랗게 안겨왔다.

《난 7년동안 이 76호를 타고 바다우에 떠서 살았어요. 나에게 보이는 진짜배기 바다사람이란… 다름아닌 선장동지처럼 억세고… 생각나세요? 300일 출어어로 부른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제일 먼저 원양으로 나가는 배길을 열고 밤을 꽤우던 일이… 그때 <물고기왕>이라는 별명도 받았지요. 태풍을 만나도 기름이 떨어져도 배사람들전체가 선장동지 얼굴만 쳐다보고 마음을 놓았어요. 제 말을 막지 마세요. 선장동진 언제나 <괜찮아, 이런 멋도 없이야 바다가 아니지.> 하고 씨원스레 웃으면 그만이었지요. 언제인가 독진앞바다에서 뜻하지 않는 기관사고로 배에서 뛰어내릴 때… 구명대를 모아 떼를 못하고 헤엄도 못치는 저와 기관장을 태우고 밤새껏 바다우에서 헤매었지요. 얼마나 추웠던지 사람들은 눈물이 내 불에 고드름되어 맺혔더라고 말하더군요. 난… 선장동지를 알아요! 어버이수령님께서 동해안의 먼바다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추운 겨울 밤새껏 갑판에 나와 어구를 손질하던 선장동지의 퍼렇게 언 얼굴을 보며 나는 이제 시집을 가면 바로 억세인 바다사람에게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날바다우에서 처녀로 자란 내가, 그토록 진짜배기 바다사람을 바라던 이 순아가… 그 사람은… 너무 나약해요. 드세찬 파도를 이겨내지 못할거예요.》

처녀는 실박한 어깨를 흔들며 울먹이었다.

최민은 가슴에 스며드는 런민의 정에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격해진 처녀를 어떻게 달랬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울긴, 시집을 가겠다는 처녀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어. 배에 총각이 없느냐, 너만 좋다면 내 아들녀석이라도…》

순아가 결싸게 손을 저으며 내쏘았다.

《열아들을 갖다 바쳐도 난 싫어요!》

지친듯 살며시 감겼던 처녀의 눈시울이 쳐들렀다. 검은 눈동자가 억제할수 없는 강렬한 빛을 발산하며 최민을 뚫어지도록 바라보았다.

《내가 선장이라면… 진규동물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 동문 기계를 완성하고 떠나겠다고 연구소에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요.》

최민은 슬그머니 눈길을 내리깔았다.

순아는 안타까운지 침을 꼴깍 삼키며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중뿔나게 그런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겠다고 이 배에 올라선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한숨을 들어보셨어요? 괴로워했어요. 바라던 것하고는 너무도 달리 어로에 지장을 주고 실패만 거듭하니마음이 약해져… 그래도 난 이 배에서 그가 바다사람으로 되는줄 알았어요. 난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그만해라.》

최민은 가슴이 답답해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웅졸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가길 잘했다. 배를 탄다구 바다사람이 다 되는줄 아니…》

그는 이 처녀와의 호홉이 숨가쁘게 힘들어 말없이 문을 열고 나서는데 삼키지 못한 흐느낌이 귀가에 감돌다 사라졌다.

최민은 복도를 지나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선미쪽으로 향한 문이 열려져 비방울이 후두둑 날아들었다. 그는 갑판으로 나갔다.

희뿌연 안개속에서 쉽없이 오르내리는 배선수가 안겨왔다. 마스트쪽에 널려진 배그물이며 절임통들에 물보라가 폭포처럼 떨어져내렸다. 어데선가 들려오는 물새의 울음소리를 단숨에 짓누르는 파도의 그 장쾌한 소리가 캄캄한 공간을 꽉 채우고있었다. 도무지 진정할줄 모르는 바다는 자기의 광란적인 장난에 만족한듯 열정으로 바람을 부르고 또다시 파도를 일으켜세운다.

바다, 바다는 참으로 이상하다.

망망한 대해에 나서면 못견디게 물을 그림계 해주다가도 물에 올라 며칠만 지나면 미칠것처럼 바다에 뛰쳐나오게 해준다. 흔히 배사람이 되면 거칠어진다는데 그건 허튼소리이다.

누가 이들처럼 집생각에 목이 메여 잠못 이루고 잠시나마라도 그리움을 잊으려고 애쓰는가.

어느 처녀가 저 순아처럼 연두색이 물드는 봄 풀향기를 그려 공상에 잠기고 눈물겹게 뜨거운 사상을 갈망하는가.

포구에 돌아갈 때엔 생각만해도 가슴이 찢어든다. 한시간만이라도 안개가 끼지 말았으면, 제발 어머니와 안해가 건강했으면 그리고 프랄선 76호가 화살보다 더 빨리 내달렸으면!...

그러다 우중충한 산발이 나타나고 정다운 부두가 안겨오면 해풍에 그슬린 얼굴들에 눈물들이 뻗인다.

진규, 그는 이 바다사람들을 다스 물랐다.

바다는 격랑을 일으키며 만물을 놀래운다. 하지만 그 드세찬 파도밑에 바다는 고요하고 뜨거운 자기의 흐름을 가지고있음을, 그 바다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배사람들임을 그는 알지 못하고 갔다.

4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 76호 갑판에 뜻밖에도 진규가 나타났다.

출항을 앞두고 갑판에서 봄비는 사람들속으로 그가 예나 다름없이 고무조끼를 어깨에 걸치고 걸어왔다.

어로공들은 반가움과 비난을 마구 드러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댔다.

《여 선수권보유자, 동문 정말 뻔헤염에선 특기가 있더군. 그렇게 소리없이 사라지다니...》

《이번엔 무슨 동작을 배워주러 왔나?》

진규 또한 어렵지 않게 받아넘겼다.

《뒤로 돌아서 물에 뛰어들기 동작이야.》

그는 웃음과 짜증을 섞어가며 연구소의 조치로 기계를 완성하러 다시 왔음을 실토하였다.

선장실창문으로 진규를 내려다보던 최민은 더 기다려낼수 없어 선장실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에서 마주 내려오는 선장의 어깨와 부딪치자 급한 숨을 몰아쉬던 진규가 눈길을 떨구었다.

《고맙습니다. 선장동지가 기계를 개작할줄은... 몰랐습니다.》

최민은 그를 란간쪽으로 콕 떠밀며 눈을 흘겼다. 그리고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띠웠다.

《제발로 나타나면서도 그렇게 속을 태웠군. 한데 그 소문이 우리 배밖으로 퍼질리가 없겠는데...》

진규가 그 눈길을 피하며 아래쪽을 피곳 돌아보았다.

최민은 그때야야 계단밑에서 초조히 올려다보는 순아를 보았다. 그들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볼이 달아오른 처녀는 휴계실쪽으로 달려가고 그를 비호하는듯 진규가 선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순아동무가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무섭게 위협하더군요.》

최민선장은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몰랐나? 선장은 배 조타를 움직이고 순아는 이 선장을 움직인다네.》

마치도 그들은 그사이 더 가까워진 벗들처럼 어깨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판장이 식당으로 날라가는 부식물고기를 한버치 안고 나타나는바람에 그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갑판장은 너자들처럼 버치를 머리에 건뚫 이더니 한손을 옆구리에 갖다붙이고 몸을 흔들며 걸어갔다. 우스운 코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다.

어디 갔다 왔나요 우리 아저씨
빨간 새우 못잊어 다시 왔나요
맛있는 새우를 먹고싶거든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사랑하세요

정말 새우처럼 얼굴이 붉어진 진규가 갑판장의 팔목을 와락 그러쥐었다.

《정 이러겠습니까?》

《아, 아, 이사람이... 내 작사 작곡인데 왜 그러나?》

갑판장은 팔을 나꿔채더니 유쾌하게 그냥 몸을 흔들며 걸어갔다.

《빨간 새우 빨간 새우 맛있는 새우...》

진규는 허구프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난 사실 다시는 이 배에 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말을 툭 끊어버리고 묵묵히 바다를 굽어보았다.

《연구소에 올라가니 사람들은 마치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보더군요. 에이참,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내 마음이... 편안한줄 아십니까? 보다못해 온 연구조가 달라붙어 저의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 양망기 그물안내통의 축도 새로 깎아왔는데... 순아동무의 편지가 왔더군요. 선장동지가...》

창고앞에까지 이르게 되어 최민선장이 문을 열었다.

《이젠 마음 편히 기계나 보세.》

시험이 시작되기전까지 두사람은 기계주위에서 떠나지 못했다. 진규가 연구소에 올라가 새로 깎아온 그물안내통을 교체하고 선장이 발기한대로 물개축의 각도를 종전보다 더 경사지게 변형시켜 놓았다. 어로공들과 현장기사들도 시간만 생기면 기계주위를 돌면서 진규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아하였다.

시험준비를 완결한 저녁 최민은 진규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다.

최민이 버릇대로 행진곡조의 휘파람을 불며 발을 구르자 진규는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선장동지, 너무 락관을 가지면... 실망이 큰데 차라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민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시험이 실패로 끝나면 우린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 내가 있고 또 자네가 있는데 기대되지 않나?》

진규가 침묵을 지키자 최민이 침대 란간을 두드렸다.

《여보게 진규, 여기와 이 사진을 좀 보게.》

진규는 선장의 손에 들려진 그 밤빛액틀의 사진을 보자 가볍게 웃으며 그의 침대로 내려갔다.

최민선장은 허리를 펴고 면도자리가 푸릿한 턱을 슬쩍 쳐들었다.

《자, 보게. 이 사람이 사진속의 최민하고 달라졌나? 웃으면 더욱 같을걸세. 이게 바로 최민이야!》

두사람이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선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내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가? 아마 펍 놀랄거요. 진규, 이 사진은... 우리 아버지수령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요!》

사진을 쳐든 선장의 거울진 손이 가볍게 떨리었다.

배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흔들리는 선실, 비릿한 냄새가 떠도는 공기,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관의 동음...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진규는 해별에 탄 짙은 적동빛이 도는, 그저 여느날과 다름이 없이 한모양인 이 사나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민선장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조용히 들려왔다.

《잊을수 없는 그 비내리는 봄날이 내 한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소. 파도에 미끌거리는 잔교로 코트자락을 날리며 오르신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네. 그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함께 오시였었어. <만세!> 만 목청껏 웨치는 내 손을 수령님께서 다정히 잡아주시며 <동무가 고기잡이왕이라지?>하실 때 나는 그만 눈물이 콧 가리여... 내가 잡은 고기를 드시고 너무도 만족하시여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만년이 가도 잊을것 같지 않네. 우리 인민의 밥상에 생선이 늘 오르게 되었다고 하시며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을 안겨준 이 동무에게 어떤 감사를 주어야겠는가 물으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사진을 크게 찍어주자고 말씀하셨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래 사진을 찍어주지. 동무가 잡은 이 팔뚝만한 송어를 들라. 바다사람답게 어서 크게 웃으라 하시면서 몸소 이 사진을...수령님께서는 갑판을 내리시다 다시 돌아서

나에게로 다가오시더니 저 거세찬 날바다우에서 인민을 위해 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이야말로 제일 이라고 몇번이나 엄지손가락을 내흔드시었네. 그러시면서도 다심한 어머니처럼 저 동무의 손이 몹시 터갈라졌다고 근심을 놓지 못하셨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하루빨리 어로작업을 개설키켜주어 어로공들의 힘든 일손을 덜어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오.

진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데 있겠나. 내 그날에야 비로소 이 최민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창과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다고 할가... 난 정말... 이 손으로 술한 물고기를 잡았네. 그저 이 수령선 가까이에 나와야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알고계시는 최민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열배 스무배를 더 일해야 수령님께서 엄지손가락을 흔드시며 제일이라고 내세워주신 최민이라고 생각되더군. 난관은 왜 그런지... 없었던것 같네. 자신에 대한 궁지가 생겨투지를 키웠지. 생각해보면 바다사람으로 내 다시 태어난 행복한 그날의 사진이 있고 우리 어로공들을 믿어주고 아껴주시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데 뭐가 두려웠겠나.》

진규의 눈가에 흘러넘치는 뜨거운 걱정을 보자 최민은 온몸을 휩쓰는 환희에 겨워 말을 떠듬거렸다.

《이 사진을 볼 때면... 자꾸 수령님께서 등을 두드려주시고 손을 흔드시고 미소를 지으시는듯한 환각이 드네. 글썄 자꾸 이런 감정이 더해지니 이상하지 않나.》

진규는 머리를 수그렸다. 그리고 말없이 선장의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였다.

애젊은 시절의 최민이 한껏 웃음을 터치며 그를 올려다본다. 머리에 비스듬히 엹혀진 작업모자, 유쾌한 웃음을 담아 가늘어진 두눈, 금방 뛰여오를듯이 팽팽한 몸뚱이를 구부린 송어...

진규는 그 뜻깊은 사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다음날 시험이 시작되여 양망기가 돌아가자 최민은 자기의 손을 뜨겁게 그러쥐는 진규의 손길을 느꼈다.

《내 여직껏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순아가 편지로 부를 때도 저는 모욕당한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결심을 내려 달려왔지만 수령님과 련결된 이 바다사람들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동무가 왜 자기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궁지높이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선장동지, 전 이 선장동지의 사진에서 우리 수령님을 보았습니다. 수령님의 해빛같이 밝은 미소와 격려의 말씀과... 비에 젖은 그이의 옷자락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심한 눈빛을 뵈는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몸을 돌려 선수쪽으로 뛰어갔다. 선수 제일 끝머리에서 수평선 그 어데인가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이 저녁노을빛에 불그레 물들여졌다.

고무조끼가 바람결에 부풀어오르며 푸득푸득 소리를 질렀다.

파도는 잣아들고 가벼운 미풍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왔다.

이튿날 양망기시험이 진행되었다.

갑자기 쇠바줄이 한껏 긴장해지고 양망기가 싹음하는듯 몸체를 들썩이더니 멈춰서버렸다.

(그물이 걸렸구나!)

최민은 룡감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가 주저없이 작업복을 벗으려는데 갑판장의 무표정한 얼굴이 장벽처럼 앞을 막아나섰다. 우악스레 선장을 눌러버리더니 옷을 벗으며 배전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선수쪽에서 가벼운 물보라가 터져올랐다.

《연구사가 뛰어내렸다!》

누군가의 웨침이 사람들의 머리위로 날아갔다.

숨이 턱 막히게 불어오는 찬바람을 느끼며 최민은 앞으로 내달렸다.

(진규!)

목소리가 나가지 않고 타는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갑판장이 뛰어내리고 뒤따라 어로공들 세명이 동시에 날파람있는 도약을 하였다. 옷을 벗은 최민선장이 천천히 배전에 올라서더니 다시한번 물보라를 일으키며 뛰어들었다.

잠시후에 양망기가 돌아갔다. 버리줄이 올라오고 해빛이 어롱거리는 수면에 고무땀가 탄력있게 튀어오르자 와- 사람들의 경탄이 터져올랐다. 뒤미처 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몇분이 더 지나서 진규가 처음으로 선미와 가까운곳에서 솟구쳐올랐다. 그는 손을 들어 획 흔들어보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갔다. 때를 같이하여 수면위에 갑판장과 어로공들이 나타났다. 뒤이어 선장이 능숙한 동작으로 유유히 팔을 저어와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때까지도 진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긴장해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찰나에 그의 검은 머리가 부드럽게 물을 휘저으며 드러났다.

고물쪽으로 헤엄쳐오던 진규는 힘껏 몸을 솟구치며 얼굴에 흐르는 물을 손으로 훔치었다.

《선장동지, 보셨지요? 물개축의 위치가...》

배전을 잡던 진규가 풍덩 물속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솟구쳐올랐다. 배전에 다리를 뻗치고선 갑판장의 손에 끌려 올라서면서도 그는 기운차게 떠들었다.

《지금의 위치보다 각도를 높여야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듣지 않구.》

갑판장의 수궁에 환희에 넘쳐 미소를 짓는 청년의 모습은 석양의 수평선을 배경으로 더없이 아름답게 안겨왔다.

진규가 물방울을 튕기며 갑판에 내려서자 수건이며 고무조끼가 날아가 그를 덮썩혔다.

옷을 입고있던 최민선장은 손을 내밀어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주며 껄껄 웃었다.

《자네 수영솜씨가 괜찮더군.》

진규는 정색해서 어깨를 폈다.

《저야 수산대학 수영선수권을...》

《알고있네, 뻔해염일인자라는것도...》

선장의 말에 유쾌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흰 앞치마를 졸라맨 순아가 갑판을 가로질러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금방 꺼낸거예요. 어서들 들어요.》

그의 손에 들린 쟁반에 발깃한 왕새우가 가득 담겨있었다. 뽕안 김이 안개발처럼 그우에 떠돌았다.

진규의 유순한 눈매에 부드러운 미소가 실렸다.

《막 향기롭군, 동무가 손에 드니 꼭 꽃다발을 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순아의 탐스러운 입술이 무어라 속삭일듯 움썹거렸다.

사람들의 눈길이 모아지자 처녀는 황급히 쟁반을 진규에게 들려주고는 흰 앞치마를 날리며 뛰어갔다.

최민선장은 진규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자넨 역시 행복한 사람이야. 알겠나?》

그리고는 조용히 선장실로 올라왔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푸르른 바다가 한눈에 안겨왔다. 마스트에 나래를 퍼덕이며 내려앉는 물새가 보이고 열어놓은 선창이 보였다. 그물이 올라오면 이제 선창에는 빛이 번쩍이는 고기폭포가 쏟아져내릴것이다.

선장은 예나 다름없이 작업이 시작되는 갑판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는 진규가 하던 말을 생각했다.

《...선장동지의 사진에서 우리 수령님을 뵈었습니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과 ...비에 젖은 그이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심한 눈빛을 뵈는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것처럼 심려하시던 어로작업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사랑속에 날마다 새롭게 개선되어 우리는 힘든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날처럼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만족해하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꼭 다시 뵈겠습니다.)

최민은 후더워지는 마음으로 조타를 잡았다.

영원한 그 모습 백두밀영고향집

정성환

세월은 모든것에 변화를 가져온다.

너무도 일반적인 상식을 내가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된것은 백두밀영고향집에서였다.

2월의 밀림속 하얀 눈세계우에 서있는 고향집은 옛모습 그대로이다.

흰눈을 띄이고 선 지붕, 귀틀벽, 작은 피창문 그리고 방안엔 그날의 그 전투배낭들과 지도...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세월 이 땅엔 얼마나 놀라운 전변들이 일어났는가.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적공장들과 프락포르 동음소리 높은 논과 밭을 넘어 아름답게 일떠선 농촌씨리카르살림집들, 세계가 경탄하는 서해갑문 그리고 궤도전차가 살같이 달리는 광복거리며 통일거리, 내가 보아온 모든것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승강기를 타고 집에 들어서면 천하가 굽어보이는 드넓은 창문들, 앉아서 온 세상을 볼수 있는 텔레비존수상기며 아무때나 겨울맛을 볼수 있는 팽동기, 입고 쓸 모든것이 가득찬 장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생활을 낳은 백두밀영고향집엔 여전히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이 흐르고있었다.

어디들 가셨을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존경하는 녀사께서도 이 집에 안계시는줄 알면서도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을 비워놓고 싸움터로 나가신듯도싶었고 아드님께 말타기와 총쏘기를 익혀주시며 밀림속을 누비는듯도싶었다. 금시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려올듯하기도 했고 하늘이 밀림에 입혀준 하얀 눈웃이 그 총소리에 와르르 땅우에 떨어질것 같기도 했다.

나의 마음을 그날에로 불러주는 고향집, 정말 고향집엔 모든것이 변함없었다.

광명성이 솟아오른 이 집에 그날의 자취가 력력하라고 그리고 앞날에로 이어주신 백전백승이 영원히 변함없으라고 세월도 이곳만은 에돌아 가는것만 같았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백두설악우에 폭풍을 맞받아 일떠세운 집, 이 나라에 쏟아지는 풍상고초를 다 막으려 준엄한 혈전장에 지붕을 얹은 집, 자기것을 따로 정하려 울바자 하나 꺾은것 없는 이 집에 차넘치는 깊은 자애를 내 한가슴에 어찌 다 안을수 있으며 귀틀벽에 어려있는 불굴의 그 신념을 내 한심장에 어찌 다 간직할수 있으랴. 정녕 온 나라에 차고넘쳐야 할 그 모든것을 고향집은 한품에 안고있는것 아닌가.

그 기상, 그 넋을 지니시여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백전백승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날리시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 경축의 날에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승리자의 끝없는 긍지를 안고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그래서 세계인민들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한 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부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아, 백두밀영고향집

바라볼수록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영광이 눈물겨웁다. 내가 태어나기도전에 이 집은 나를 위해 엄혹한 시련을 이겨냈고 인민을 위해 광명성을 받들어올리지 않았던가.

고향집, 백두밀영고향집, 다시 또다시 보고싶은 그 모습, 다시 또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한 위대한 집이여! 내 심장은 이렇게 웨쳤다.

세월의 흐름속에 모든것은 변한다. 그러나 세월도 백두밀영고향집만은 언제나 에돌아갈것이다.

아니 세월은 여기에도 흐른다. 그러나 백두밀영고향집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옛모습 그대로 있으리라. 영원히 부강변화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밝고밝은 미래를 백두밀영고향집은 그 나날부터 벌써 다 안고있었거니.

다리는 그리움속으로

박 철

이 아침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걸린
청류다리를 걸으니
가슴속에 강물처럼 가득차 오르는
수령님 생각

수령님 모시지 못하고
처음으로 개통한 다리여서
이 다리를 걸을 때면
이리도 가슴속엔 그리움이 넘치는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길이 믿어 살아가는 이 마음이건만
다시 뵙고싶어
다시 뵙고싶어

뜻깊은 수령님의 발자욱 아니 찍힌 이 길
온 나라가 따라서며 울던
영결식의 그날
수령님 인민을 못잊어 돌고 도신
그 백리길 한끝에
새롭게 열린 이 길

더더욱 이 땅 이 평양에
처음으로 일떠세운
황홀한 쇠바줄다리여서
내리는 눈송이도 그리움을 더해주고
불어오는 바람도 그리움을 휘저어
수령님 생각에 목메이는 길이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의 장군님
인민을 위한 그 한마음으로 일떠세워
더 좋은 래일로
내가 걸으라 조국이 걸으라
사랑으로 안아세운 기념비!

어떠했으랴
온갖 로고 다 바쳐
완공의 날을 마련하시면
언제나 수령님께 기쁨으로 드리던
개통식의 그 가위를 손수 드시고
우리의 장군님 붉은 천 꿇으실 때
아 그 심중...

다리어 청류다리어
너는 뻗어
평양에 새거리를 열었더냐
너는 뻗어 인민의 가슴에
수령님 그리움의 새길을 열었더냐

머리들어 쳐다보니
하늘 가득 어려온다
저 모란봉너머
금수산기념궁전 지붕우에
승엄히도 날리는 공화국기발

생존시
인민의 소원이라면 다 풀어주신 수령님
오늘도 다름없이
금수산기념궁전 지붕아래
아, 청류다리를 뚫었구나!
인민을 안고있구나!

백두밀영고향집앞에서 외 1 편

김승남

오고싶어 오고싶어 그리웁던곳
그리워 꿈결에도 달려오던곳
백두밀영고향집 앞에 서니
가슴은 한없이 뉘뛰누나

저 한겹의 동기와지붕이
세월의 천만설을 다 막았던 말인가
내 쓰다듬어보는 이 통나무벽체가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었던 말인가

우리 집 부엌세간과 다름없는
저 소박한 살림도구들을 보아도
눈물없인 바라볼수 없는 저 쪽무이포단에도
헤아릴수 없는 사연이 뜨겁게 깃들었구나

아 발이 붉은 구름노전우에

그렇게밖에 모실수 없던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던 지휘관들을 녹찾히시며
아드님은 백두의 설한풍속에 키워야 한다고
수령님 그날에 하신 말씀이여

그래서 백두의 설한풍을 맞받아
첫 걸음마를 떤 그이
책상우의 저 권총과 망원경이
유년시절의 놀이감이었구나

오 백두의 용암대지에 주춧돌을 고이고
정일봉의 기상으로 높이 솟은 집이여
태양의 신념이 비발치고
한주먹에 지구도 바스르뜨릴
무비의 의지와 담력이

바로 이 고향집에서 자라지 않았더냐

내 알겠구나
불패의 사회주의 성새를 짓몽개려
발광하는 원쑤들을 전률시키며
사나운 날바다를 정복한 갑문과
하늘끝에 웃는 락원의 창문들이
어찌하여 거대하고 그리도 밝은지

내 정녕 여기오니 알겠구나
백두깊이 뿌리내린 밀영의 이 고향집이 있어
제국주의의 모질긴 광풍에도
주체의 사회주의는 끄떡없고
인민의 존엄과 미래 끝없이 빛발치누나

정일봉의 달이여!

그 무슨 소원을 품었느냐
그 무슨 감회를 불러주느냐
백두산 귀틀집에 날이 저물자
정일봉마루에 두둥실 솟는 달

저녁 바람소리도 고즈넉한
소백수 끝안을 휘영청 밝혀주고
은색 금색 줄줄이 무늬를 늘어
귀틀집 프락에 자리를 펴는데
발걸음 떼지 못하는 답사생 이 가슴에
그 무슨 사연을 속삭이느냐

백두산에 향도성 솟아오르던 그밤도
너는 축복의 미소를 밝게 뿌려주었지
귀틀집 창가를 조심히 어루만지며
어머님의 자장가소리에 귀기울일제
숲속엔 물소리도 유정히 울려퍼졌다

아 백두의 무게를 담아
조선의 미래가 첫걸음마 뻗제
귀틀집 프락을 천만리로 넓혀주고
백두의 슬기와 용맹을 안고
어리신 아드님 무쇠같은 장수힘 키워가실제
대통운이 비껴가는 하늘가에
민족의 궁지로 피어웃던 달아

암흑과 수난의 그 세월
백두산만 의지하고 산
내 아버지 어머니의 꿈과 희망도
네가 이어주고

락원의 불밝은 창가에서
수령님과 당만을 따르며 사는
내 삶의 기쁨도 행복도
너로 하여 더 환희롭게 피어나는 밤
산중에도 높은산 정일봉마루에
너는 솟아 밝게 웃누나

정일봉마루에서 삼천리강토를 비쳐주는
정일봉의 아름다운 달이여
너는 솟았다가 다시 저도
내 마음속에 언제나 지지 않는 달은
정일봉의 끄떡없는 신념으로
내 마음을 버려주고
귀틀집의 뜨거운 온기로
내 심장을 불태워주리니

아, 너는 그날에
민족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열렸음을
온 겨레의 가슴속에 등불로 밝혀주고
온 나라의 념원을 다 모아안고
정일봉마루에서 축복의 빛발로 뿌려주더니

오늘은
자주위업 꽃피는 새세계의 앞길에
영원한 광명이 비졌다고
희망의 빛발을 은실금실 천만리로 실어가누나
온 세상 만민의 축복을
귀틀집창가에 고향집프락에
조용히 뿌리누나

정일봉의 서정에 대한 감동깊은 시형상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에 대하여 -

박성국

한편의 가사는 시대를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다.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진 작품으로써 사람들에게 사색깊은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가사내용의 철학성이 사색깊은 정서로 안받침된 이 가사는 새롭고 독특한 예술적형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가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가사는 결코 가요음악의 종속물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여서도 안된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춘 정서가 풍부한 시로 되여야 한다. 가사에는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인 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 자기의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춘 훌륭한 명가사이다.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새로운 형상세계에서 노래한 여기에 가사의 형상적매력이 있다.

정일봉과 안개!

시인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생활을 안고있는 정일봉으로부터 감수한 섬세하고 풍부한 사상감정을 안개에 비유하여 뜨거운 열정과 정서로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일봉의 숭고한 뜻을 새기게 하며 그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체득하게 한다.

지금까지 나온 일부 가사들에서도 안개에 대한 형상으로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서정적으로 펼쳐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가사와 같이 안개의 형상을 직접 령도자의 위대성을 레찬하는데로 지향시켜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한적은 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며 여기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포괄되어있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형상하는데서 특별히 중

요한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불타는 충성의 열정, 령도자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에서는 정일봉의 위용을 안개와 밀착시켜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형상을 통해 정일봉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가 그대로 비껴있고 여기서 조선의 미래가 꽃피난다는 혁명적력판의 정서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가사는 1절과 2절의 후반부에서 정일봉에 비낀 서정을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정서적으로 강조하고있으며 그것을 3절에서 더욱 승화시켜 종자해명으로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아 정일봉의 그 뜻이 하도 높아
오르던 흰안개도 이 산정을 감돈다오(1절)

아 정일봉의 그 전설 하도 많아
오가던 흰안개도 이 산정을 못뜬다오(2절)

정일봉의 안개가 안고있는 정서적의미는 위대하고 숭고하다.

정일봉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위인적품모가 그대로 체현되어있어 정일봉의 기상과 위용은 지구의 그 어디서 찾아볼수 없이 숭엄하고 장엄하다. 그래서 정일봉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고 그 전설들이 꽃피가는 가지가지의 일화들로 하여 그 이름은 만방에 빛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효심, 사상리론과 령도적수완,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를 지닌 인민적령도자로서의 품모를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심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권위를 받고계신다.

하여 그이를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실 우리 인민과 인류의 뜨거운 마음속에 정일봉은 우리 혁명의 요람,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성지로 높이 솟아난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정일봉에 새벽안개가 끝없이 감돌면서 그 산정을 못뜨고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일봉으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정서가 있고 정일봉을 통한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사색의 바다가 펼쳐게 된다.

가사는 3절에 가서 정일봉의 그 이름 하도 높아 오가던 흰안개도 해돋이 맞으며 붉게 탄다는 형상을 통해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락관의 정서를 감동깊게 환기시켜준다.

하여 가사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 명가사로 되었다.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가 서정이 풍만한 가사로 된것은 시인의 주장과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있다.

가사와 서정은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으로서 가사에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가사 1절에서는 생활정서적으로 물들여진 감각적인 표현으로 시적화폭을 생동하게 펼쳐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사색깊은 정서속에 정일봉이 지닌 높은 뜻을 뜨겁게 받아안게 하고있다.

아득한 수림속에 흐르던 새벽안개
네 어이 오르다가 산허리를 감도는가
아 정일봉의 그 뜻이 하도 높아
오르던 흰안개도 이 산정을 감돈다오

1절에서는 일찌기 이 땅에서 수령님 뜻 배워 조선을 빛내이실 숭고한 뜻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 흠모의 정이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가사 2절에서는 1절의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과거에서 현재로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히면서 령도자의 위대성을 한껏 부각시켜 노래하고있다.

백두성 솟아오른 못잇을 그 이야기
안개도 전해주며 떠나지 못하는가
아 정일봉의 그 전설 하도 많아
오가던 흰안개도 이 산정을 못든다오

보는것처럼 가사는 백두성 솟아오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설을 낳은 걸출한 위인의 풍모를 정일봉의 안개에 깃들어있는 미학적의미에 대한 개성적인 체험을 통하여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하여 사람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조선의 미래가 끝없이 찬란하고 양양함을 알리던 령사의 그날에로 추억을

더듬게 된다.

백두의 천리수해우에 채운이 한껏 서리고 고향 집상공에 령통한 무지개가 비껴 장군봉과 정일봉을 잇고 조선의 미래를 알리는 장쾌한 우뢰소리가 만년장설을 흔들던 령사의 그날에 우리 조국과 인민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받아안게 되었던가. 참으로 령사에 다시없을 백두성탄생은 끝없이 무궁번영할 주체조선의 미래를 알리는 장엄한 해돋이였으며 그날부터 백두광명성전설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서 다함없는 청송의 노래로 엮어져 오늘에는 령도자의 위대성을 천세만세 길이 전해갈 혁명전설군을 이루게 되었다.

가사에서 백두의 흰안개가 그 전설 전해주며 정일봉을 떠나지 못하는것으로 형상한것은 서정을 사색깊은 정서로 특징지을수 있게 한 비결의 하나이다.

가사 3절에서는 1, 2절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고도로 양양시켜 현재와 미래에로 형상의 폭을 넓히면서 정서적여운을 깊게 하여 가사의 철학적 심도를 보장하고 풍만한 서정을 한껏 터치면서 사색깊게 마무리하고있다.

수려한 산봉우리 네 지닌 이름 높아
해돋이 맞이하며 안개도 불타는가
아 정일봉의 그 이름 하도 높아
오가던 흰안개도 이 산정에 붉게 타고

가사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는 시적화폭으로서 밝고 광만적인 정서를 안겨주면서 환희로운 감정세계에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여기서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에 높이 서서여 주체의 광휘로운 빛말로 지구의 축을 돌리시며 공산주의 붉은아침 노을을 펼쳐가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끝없는 감격과 환희속에 우러르게 되며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로 밝아오는 자주화된 새 세기의 노을을 격정에 넘쳐 그려보게 된다.

정일봉의 해돋이를 맞이하며 붉게 타는 안개에 대한 형상은 작가의 개성적이며 깊이있는 탐구에 의해 이루어진 서정적인 화폭으로써 강한 정서적여운을 남기면서 가사의 종자해명에 철저히 이바지하고있다.

가사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그에 매혹되어 그이를 숭배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신념을 정서적으로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송가로 높이 울리고있다.

시대의 딸

김봉운

1

바람은 창가에 스치고
생각은 세월의 갈피를 번지고
눈부리 아득히 솟은 첩첩 산발들
하많은 오솔길 그 어디에
춘실이 그 찍은 첫 자욱이 있는가

춘실이 태어난곳은
랑림산발이 적유령 산발과 키다툼하는
산골에도 심산골 전천땅
장자강의 첫 기슭

홀려내리는 머리 쓰다듬으며
춘실이의 생각이 가닿는곳
강변의 조약돌처럼 덩굴며
늦감자 몇알로 끼니를 예우던
다래골마을의 고향 오두막집

해방의 기쁨도
여기서 맛보았고
전쟁의 그 엄혹한 시련도
여기서 겪었다

허나 은혜로운 해빛은
이 심산골에도 따사로워
춘실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었고
꽃신에 새교복 책가방도 당일
검은 머리칼에 꽃리봉도 달아주었다

나이드 학년도 높아갈수록
춘실의 마음도 생각도 나래쳤다
아버지대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랴
안타까이 모대기며
잠못든 밤도 그 몇밤

따뜻한 봄날
옆집 국철이가 군대로 가던 날
- 춘실아, 너 앞으로
나에게 편지를 해주렴
그 소식 들으며 고향을 생각할테야

정든 산촌에
메아리처럼 남긴 그 말
춘실은 그 부탁을

병사의 당부로 가슴에 간직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붓을 들고
편지를 쓴다

생각에 생각을 덧없으며
이제는 런던장으로 자란
국철의 모습을 새겨보며
고향의 자갈밭에 함께 뛰놀며
강변의 해빛에 까맣게 타던
어린 시절의 그 길도 다시 걸으며

-국철동무
동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어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는지...

춘실이
그 무엇부터 국철에게 알려야
자기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영광과 기쁨을 다 터쳐놓으랴
붓은 달리고
생각이 미쳐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

바람아
춘실이 받아안은 영광을
어서 국철이에게 안고가렴
고향의 소식을 그토록 기다리는
초소의 다박술 언덕으로 달려가렴

한자한자
춘실이 적어가는 편지의 글발
이름없는 산촌의 감자밭
춘실이 그 땀 흘려 가꾸던
사래긴 장풍덕의 뽕나무 이랑이랑처럼
물결치며 끝없이 이어지누나

2

산촌에도 깊은 산골
전천땅을 한번 생각해보시랴
땅의 력사 그 어느 페이지에
올라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 자욱이
사랑으로 찍혀지기 그전날까지...

어버이수령님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이땅을 밟으셨고
조국을 다시 찾아 안고 오신 날엔
인민들의 생활을 근심하시며
이 두메산촌
작은 거리도 자주 찾으시였거니

춘실이
어버이수령님의 그 마음을 알아
처녀의 작은 가슴
처녀의 작은 진정으로
풀어드릴수 없을가
생각도 많고 모대김도 많아
지새운 밤 그 열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쌍태머리 처녀로
군상점 판매원으로 배치되던 첫날도
잠을 잊고 이어가던 그 한생각
(무엇으로 기쁨 드릴가?)

어버이수령님
이 작은 전천읍까지 찾으시며
가정마다 쌀독도 열어보시며
인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그 심정

아, 나는 판매원
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들의 가정에
주부가 되어 살아야 할 운명
(무엇으로 그 심려 풀어드리랴?)

춘실이
가정마다 식구를 알아보고
가정마다 손가락도 세여보며
어버이수령님 생각하시는
그 뜻을 따르려 모대기였더라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에 대한 공급사업
국가가 책임지고 호주가 되어
가정마다 사람마다
국가의 혜택을 보게 하는것

춘실이
매 가정마다
수령님의 사랑이 골고루 닿도록
《우리 가정수첩》
사랑의 수첩을 만들었더라

아, 그러나 어이하라
춘실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갓난이 어머니는
아주머니들이 그럴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매 가정의 취미를
알아보고 맞추겠는가고 엇서는것을

그렇다고
주저앉을수는 더욱 없는 일
상업일군은
인민의 총복
매 가정은 조국의 한 세포

갓난이 어머니
덕춘아주머니
춘실은 설복하고 깨우치며
상점의 모든 사람
하나로 마음을 합치게 하며
《우리 가정수첩》
여기에 사랑을 쏟아부었더라

아직 철이 없다고
누가 말하건 말건
춘실은 더 묻지 않았다
안물은들 어떠랴
이른아침 부엌아궁에
장작을 지피는 어머니처럼
사랑을 쏟으면 사람들 알게 되리...

편지를 쓰던 춘실이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며
생각도 많아라
-국철동무
생활은 지나가면
잊혀질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수첩》
이것만은 가슴에 사랑으로 고였어요-

이말을 쓰고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보며
국철이에게 속삭이듯
자신에게 하는 말
(아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할가?)

낮에는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밤이면 밤마다 별빛을 이고
인민반 세대를 찾아
가정마다 골목마다 다 찾아
《우리 가정수첩》에 적어넣던
사람들의 소원

영예군인 부부의 몸도 재여보고
 신발문수도 따로 적으며
 세바퀴 자전거도 밀어주며
 인민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어버이수령님 뜻으로
 살피고 살핀 우리 촌실이

밤길
 탄광마을 어귀에서
 발을 곱질러 쓰러졌던 그날
 -아!
 외마디 소리를 그 누가 들어주랴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촌실이

그만 병원에 실려가
 침대우에 누워서도 한생각
 《우리 가정수첩》
 누가 뭐래도
 소중한 그것만을 생각한
 사랑스러운 촌실이

상점책임자도
 갓난이 어머니도
 덕춘아주머니도
 눈물 머금고 침대결에 찾아와
 촌실의 머리 쓰다듬으며
 생각도 깊구나

3

만세!
 만세!
 산천에 메아리치는
 그날의 환호소리
 편지를 쓰는 촌실의 귀전에
 다시금 메아리쳐오누나...

산촌의 작은 읍
 역전에서도 골목에서도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집집마다 밀려나오는 사람들의 물결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터친다
 만세의 환호
 눈물의 환호

촌실은 꿈만같아
 정녕 꿈만같아
 점점 가까워지는 환호소리에

가슴만 울렁이며 귀기울이는데

아, 오셨구나
 자나깨나 우러러 그리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앞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산골 이 작은 상점에까지
 몸소 들릴줄이야
 자꾸만 흐려지는 눈길
 감격에 막히는 숨결
 꿈인가 생시인가

촌실이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한채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뜨거움에 북받쳐
 흐르는 방울방울 눈물
 머리도 못들고선 촌실이
 그의 작은 손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겁게 잡아주시며
 상점 형편도 물어주시고
 《우리 가정수첩》도 보여주시여라

쌍태머리처녀
 촌실의 정성이 담긴
 《우리 가정수첩》
 갈피갈피 번져보시며
 기특하신틀 대견하신틀
 촌실의 작은 어깨도 두드려주시여라...

국철에게 가슴 뜨거운 사연
 편지로 쓰던 촌실이
 잠시 펜을 멈추고
 감격의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듯
 그 순간처럼
 두눈에 맺히는 눈물 조용히 닦아라

아,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 말씀
 《우리 가정수첩》
 이것은 아주 좋은 발기라고
 이런 동무들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진짜배기 상업일꾼이라고
 사랑담아 하시던 그날의 말씀

이것을 전국에 일반화 하자고
 촌실이가 나이는 어려도

좋은 일을 받기했다고
만족하시여 못내 기쁘시여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던
아버이수령님
-이 동무의 입당보증은
내가 서겠소!

-아! 아버지-
춘실이 감격에 목이 메여
위대한 그 사랑에 목놓아 흐느끼며
난생 처음 아버지
자애로운 사랑을 흐느끼며 찾았구나

그다음은
또 그다음은
한가슴 들먹이며
자애로운 그 넓은 품에 얼굴 묻었어라

상점책임자도
판매원 덕춘아주머니도
감격에 젖어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목메여 목이 메여
할말을 찾지 못할 때
해빛은 파사로이 산천에 내리고
환호의 물결은 저 멀리 굽이쳤더라

아, 춘실은 그날부터
인생의 첫 걸음
영생의 첫 걸음
영광의 첫 걸음을 떼었더라

아버이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의 마음속을 밝고 밝은
《우리 가정수첩》
처녀의 순결한 그 마음을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온 세상에 받들어 내세우셨더라

4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지만
사람들은 말하더라
춘실이 정성을 고이고 또 바쳐
장풍덕에 뽕나무바다
장풍덕에 강녕이바다 펼쳐졌다고
오르고 또 오르면

춘실이의 수고가 가슴에 안겨오고
진거름 퇴비를 저나르던
고개 고개 또 고개
한줄기 길이 눈시울 더웁혀라

춘실이
온 나라가 다 아는 상업관리소일군
나라에서 주는 상품
세대마다 공급하고
인민이 바라는 상품
나라에서 받아다 주면 되는 일

그러나 우리 춘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발휘하여
자체로 원료기지
자체로 사료기지 꾸려놓았구나

남이야 뭐라든 말든
춘실은 목장도 건설했다
해리서목장을
철도옆 울바자도 높은 상업관리소
그뒤 비좁은 공지를 넓혀가며

수월치 않았더라
통큰 작전으로 밀천을 마련하려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려
세운 목표

춘실이
그때를 생각하며
국철에게 편지를 쓴다
- 정말 힘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세멘트도 자체로
골재도 로력도
자체로 해결해야 했어요...

말해 무엇하랴
한포대 한포대 모아들인
세멘트로 기초도 끝내고
벽체를 쌓던 어느날 밤
쏟아지던 소낙비
산골 소낙비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난
춘실이
가족들과 함께 달려나와
목장 벽체를 덮었더라
비닐이면 비닐
손에 잡히는 모든것을 찾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뒤늦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손에 손에다 비웃과 천막을 든
상업관리소 종업원들
군안의 사무원들

- 춘실이
그러다 병이 도지면 -
어쩔려구...
초급당비서의 책망인가 노여움인가
근심에 싸인 춘실을 잡아일으킨다

- 전 일없습니다
벽체만 무사하다면
제 한몸이 뭐라구
춘실의 이 말에
모여섰던 사람들도 뜨거운것을 삼킨다

아, 짜르릉
우뢰도 번개도
저런 너인은 처음 봤다는듯
사라진다 저 멀리
구름장들을 거두어 안고

짜르릉
밝게 웃는 춘실이를 보란듯
번개도 밤누리를 밝히고
지칠줄 모르는 춘실의 마음을 안듯
하늘 가득 별무리를 뿌려놓아라

이날부터 춘실은
해리서사를 걸쳐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해리서를 세여가며 하니
남모르는 숙인들 얼마나 태웠으랴

하기에 사람들은 말하더라
하늘엔 별이 수없이 많아도
춘실을 모르는 별이 없고
흐르는 개울도
그 모습 비껴담지 않고 흐른
개울은 없다고

수령님 뜻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꽃피우려
우리 춘실이 걸은 밤길
우리 춘실이 건너간 개울물
그렇게도 많고 많아
별들이 다 알고
개울마다 비낀 아릿다운 모습

꿈속에서도 뵈고싶었더라
장풍덕 사래긴 이랑우에
김매던 호미자락 놓고
잠시 땀들이는 실참에도

몸 가까이 찾아주시던 모습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아, 친근하신 우리 장군님

그러면 새힘이 솟아
그러면 당이 바라는 그 높이에
인민들의 생활을 꽃피우고저
겨울에도 퇴비 지고 오르던 고개
넘어지면 산비탈에 쓰러져
흰눈으로 추기던 타는 목마름

그 정성
그 위훈이 열매 맺어
장풍덕에 강녕이바다 설레이고
뽕나무 바다우에 누에 풍년 들어
가을이 소리치고
춘실의 가슴이 부풀어 설레일 때

이 기쁨
이 행복
어버이수령님께 아뢰고싶어
이 진정
이 걱정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어

우리 춘실이
효성 다해 다려한 누에고치 백톤
고르고 또 골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렸어라

춘실의 그 마음
상업관리소 일군들의 그 충성
우리 장군님
감사하다고
치하의 말씀 보내주시고
사랑을 담아
은정을 담아
또 보내주신 선물...

- 국철동무
정말 꿈인가 했어요
장군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 전천군 인민들은
감격의 눈물 쏟고 또 쏟았어요...

춘실이가 쓰는 편지
어찌 끝이 있으랴
받아안은 은정에 목이 메어
할말을 찾지 못하는 그 마음
어쩔바 모르고 썼는데...

장군님께서서
전화로 또다시 춘실이를 찾으셨구나

춘실은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몸을 좀 돌보면서 일하라고
따뜻한 정이 어린 그 말씀

아, 장군님!
오라버님!
춘실은 더 말 못하고
그만 그자리에 굳어졌더라
세상에 태어나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영광을
언제 한번 생각이나 했던가

일군들의 부추김을 받아
간신히 자기몸을 바로잡을 때
또 울려오는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목소리

- 춘실인 또 우누만...

- 아닙니다
전 올질 않습니다
오라버님의 만년청춘을 바랄뿐입니다

사람들이여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공화국 2중로력영웅이며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군상업관리소 소장인 춘실이

우리 수령님
- 내팔아
사랑담아 믿음을 담아
가장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 부름속에 사는 전사

오늘도 국철이에게
편지로 사연을 적고 적어도
어찌 끝이 있으랴
우리 장군님 안겨주시는 사랑
저 하늘에도
저 바다에도 다 담을수 없어
끝이 없구나

국철동무
국철동무...
다정한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위대한 그 사랑
천만년 세월에도
다 전하지 못하리라!

이날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정은옥

손꼽아 기다리고
마음속에 기다리던
우리의 2월명절
이날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백두의 밝은 해님 솟아난 이날은
응당 봄빛이 누리에 흘러야 하고
철이른 첫 꽃이 피어야 합니다

하도 경사로운 이날을 맞아
네거리에 일찌기도 나온 꽃을
어찌 보아야 합니까
이날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꽃
우리의 마음을 상징할수 있는
그런 꽃이 이날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됩시다

집집의 창가에 함함이 웃어 핀 꽃
그래서 됩시다
거리와 거리에 찬바람 무릅쓰고 피어난 꽃

이날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영원한 봄을 마련해주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위업
꽃으로 송이송이 수놓아야 합니다

아, 우리의 2월명절!
이 나라의 수령복이 대를 이어 꽃핀 이날은
정말로 이땅에
봄날중의 봄날이 백두산에 핀 날입니다

이날이야말로
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엔
충성의 일만꽃
강산에 만발하는것입니다!

명제해설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것으로 되여야 한다. 필자의 느낌을 펼쳐보이지 않고 어디서 보고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식으로 쓰면 수필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고전적명제는 수필의 특성을 서정시와의 호상관계속에서 밝혀준 귀중한 가르치심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수필은 서정시와 마찬가지로 현실생활에서 받은 체험이나 느낌을 짙막한 산문형식에 표현하는 글로서 서정성과 정론성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필자의 느낌을 펼쳐보이지 않고 어디서 보고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식으로 쓰면 수필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필에서는 하나의 작은 생활을 취급하건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생활을 다루건 언제나 그러한 생활로부터 받아안은 필자의 느낌을 서정이 짙고 정론성이 강한 필체로 강렬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수필 《회고와 신념》을 통하여 이것을 알수 있다. 작품에서는 필자가 현시점에서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사연들을 자기의 느낌에 용해시켜 서술하고있다.

수필은 느낌의 글인것으로 하여 시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정서적충격을 주는 생활을 소재로 한다. 그러므로 수필에는 시에서처럼 느낌의 계기와 그에 대한 일반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형상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다.

시에서의 계기는 필자의 느낌속에 용해되어 직접 그려지지 않는다.

서정시 《만수대》에서의 계기는 시인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을 찾아뵙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시적계기는 작품에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있지 않아 작품을 다 읽고서야 알수 있다.

서정시 《창밖에 비뿌리고 날이 저무니》와 같이 객관적정황이 시적계기로 설정되는 경우에도 늘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대해 생각하는 필자의 체형세계를 개방하기 위한것으로 제시될뿐이다.

그러나 수필에서는 느낌이 생겨나는 바탕으로서의 생활도 언제나 객관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수필이 그런 실례이다.

수필에는 필자가 새롭게 발견하고 심어놓은 생활의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필자의 아름다운 지향과 고상한 리념이 보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깊은 의미는 필자의 일가견이다. 수필에 담겨지게 되는 필자의 일가견은 현상의 논리를 따른 깊은 사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그것은 어느 글에서의 사색과는 달리 생활의 진리만을 의미하는 그런 일가견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그런 주장, 인간문제여야 하기때문이다.

아름다운 지향과 고상한 리념이라고 하는것은 필자가 수필에서 자기로서의 견해를 세우고 인생의 참된 의미, 생활의 진리를 밝혀낼 때 거기서 풍겨나고 음미되는 보다 꽃피날 래일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 투쟁의 각오를 의미한다.

수필 《조국과 젊음》이 그런 작품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출근길에서 있는 평범한 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의 락원임을 힘있게 확인한다.

…필자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출근하다가 어머니와 안면이 있는 한 녀인이 자기를 어머니의 동생인가고 묻는것을 목격하게 된다.

딸을 동생으로 보았다는것은 어머니가 몹시 젊어보인다는것이였다.

필자는 깊은 충격을 받으며 외할머니가 들려준 해방전 이야기를 생각한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나이에 물먹으려 들어왔던 길손으로부터 《할머니》라고 불리웠다. 어찌하여 같은 나이에 한 사람은 《할머니》로 다른 사람은 《언니》로 불리우는가?

필자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가 《할머니》로 불리웠던 그때에는 조국이 없었기때문이며 어머니가 《언니》로 불리우는 오늘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지켜주는 사회주의조국,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가 있기때문이라고 뜨겁게 토로하고있다.

수필은 정교하고 아담하게 되여야 한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말마디를 늘어놓거나 정치적내용을 직선적으로 늘어놓으면 읽을 맛이 없게 된다. 수필을 붓가는대로 적는 글이라고 하던가 《가상다반사》를 적는 글 《패설》과 같은 글로 보던 밝은 관념이 남아있으면 수필다운 수필을 쓸수 없다.

수필은 짧은 형식의 글이기때문에 구성이 치밀하여 느낌의 계기로부터 일반화에 이르는 전과정이 하나의 감정선을 타고 일관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어휘, 하나의 문장도 기본감정의 정서로 질게 물들게 구사함으로써 수필을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되게 하여야 한다.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지나 산문시와 단상과도 구별이 된다.

산문시는 산문으로 씌여지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시이므로 객관적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필에서는 정서적충격의 바탕으로 되는 생활을 객관적으로 그릴뿐만아니라 필자의 느낌을 일반화하기 위한 자료로 되는 생활도 묘사로 처리한다.

수필 《평양에 사는 의미》에서 그런 경우를 찾아볼수 있다. 필자는 평양에 사는 의미를 사회와

집단, 조국과 미래를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땀을 바치여 인민의 재부를 창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전차에서 산모와 처녀대학생, 할아버지사이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로써 그것을 론증하고있다.

수필은 문장조직에서도 산문시에 비하여 자유롭다.

수필은 단상과 류사하나 일반화의 폭과 심도에 서 크고 깊으며 분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필가로서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 한편의 수필을 써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 그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수필을 써야 할것이다.

선 포

오영환

만수대동상을 마주한 여기
당창건기념탑앞에서
우리 당의 창건자를 바라보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제막식날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 탑앞에 서시려던 생각을
차마 지워버릴수 없으시여
오래오래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붉은 천을 꿰으셔야 할 수령님께
마음속으로만 탑을 보여드리는 아픔,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주체의 진리를 새긴 탑 돌아보시며
승승장구한 50년 력사의 비결을 거머쥐시였다

아는가, 이 탑의 자리를
여기에 잡아주신 그 뜻을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시는 길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우리 당을 이끌어가실
그이의 굳은 결심이 새겨진것을

보아라!
그이의 신념과 의지를-
원형띠안에 우뚝 솟아오른

마치와 낫과 붓
그것을 들어온 억센 주먹들

이것이여라
그이께서 넘겨받으신것
단결은 새 조국의 터전을 다진것
단결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것
단결은 폐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운것

아, 20세기의 빛을 다 모아
태양의 업적을 밝힌 탑
로동자, 농민, 지식인은
영원히 태양의 아들딸임을
누리에 선포한 탑!

영광이여라, 당창건기념탑앞에서
만수대언덕에 거연히 서계시는
우리 당 창건자의 손길을 보는것은
그렇다, 이 탑은 진정 수령님께 드리는
그이 심장에서 분출한 송가여라

탑이여,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탑이여
가리라, 그이의 일편단심을 따라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언제나 백전백승하리라!

우리의 집

손광영

1

그가 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오건만 군당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 책임비서를 어려워하고있었다. 새로 부임되어온 그에 대하여 잘 모르기때문이었다. 그들이 알고있는것은 다만 책임비서가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은 군당의 유일한 합숙생이라는것, 충수염이 도지며 군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은지 이제 겨우 보름이 된다는 것이었다.

김영길은 군당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다. 부원들은 그가 러관에 거처하고있기때문이라고 여길터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구조로나 공업규모로 보나 린접군들을 훨씬 누르고있는 군의 실정이 그의 마음을 잠시도 안정할수 없게 하기때문이었다. 책임비서는 군당정문에 이르면 접수실창구로 들여다보며 《밤새 제기된것이 없소?》 하고 묻곤하는데 이러한 질문도 기실 여기에 귀착되었다. 있다고 하면 제기된 문제부터 보고받았다. 때로는 밤새 제기된 문제가 그날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상정되기도 했다. 없다고 하면 그는 또다시 걱정스러워진다. 없다? 없단말이지? 그것이 일군들의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될 때 그는 더우기 우려되었다. 왜 없겠는가,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상 애로를 제기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런데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난관을 스스로 타개해나가려는 그들의 의지가 또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것이였다.

그런 날이면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촉박감에 다물리어 은연중 서두르게 되었다. 잠시도 쉴새없이 돌아다녔다. 대체로 승용차를 타고다녔지만 걸어다니는 일도 많았다. 읍지구에 조밀하게 배치되어있는 학교며 지방산업공장들, 유치원들을 일일이 차를 타고 돌아볼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다나니 동통이 와서 자연히 오른손을 수술한 부위에 가져가며 얼굴을 찌프리게 되었다.

향목리에 새로 일떠서는 씨리카트살림집건설장으로 나갈 때였다.

《몹시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운전사가 조향륜을 돌리며 묻는 말이다.

《아니... 일없소.》

《이제 두고보십시오. 그러다가 수술을 다시 받지 않나. 충수염수술은 할수록 힘들답니다.》

《허- 위험인가?》

《책임비서동진 너무 무리합니다. 승용차도 도수가 넘으면 곡축이 부러지거나 단단히 고장나지

요.》

가뜩이나 들추는 길에 자꾸만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하니 걱정스러울만도 하였다. 운전사는 끝내 변속지레대를 움직여 속도를 떨어갔다. 김영길은 속이 달아 언짢게 한마디를 하였다.

《아무래두 운전사를 바꾸어야겠어.》

《왜요?》

《동무하군 다닐 맛이 없거든.》

후사경속에서 운전사가 역울한 표정을 짓는다.

《옛날 속담에 둘째며느리를 맞아봐야...》

《헛허허...》

김영길은 그만 웃고말았다. 과연 운전사의 예측이 맞았다. 건설장에 이르자 수술자리가 걸리어 도무지 걸을수 없었다. 슬며시 그의 팔을 잡는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운전사는 이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것보십시오. 세살난 아이말도 들으려는데...》

김영길은 할말이 없었다. 뭐니뭐니해도 책임비서의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제일 수고하는 그였던 것이다.

향목리에서 돌아올 때는 벌써 저물녘이였다. 하늘을 뒤덮은 두터운 구름장이 때이른 어둠을 불러왔다. 그 구름장에서 가을비가 부실부실 내렸다. 어둠과 비발을 짝-가르며 두줄기의 전조등 빛이 강렬하게 뻗어나갔다. 김영길은 피로한 몸을 좌석등받이에 깊숙이 묻었다. 흐뭇했다. 우리 농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시려고 생전에 그리도 마음쓰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은 씨리카트 다층살림집건설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낳고있었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겨울이 오기전에 건설을 완공하고 새집들이정사를 맞이할수 있었다. 문흥고개를 넘어 단군릉이 웅장하게 개축된 야산을 벗어나자 수정천이 나졌다. 평양에서 뻗어온 포장도로는 수정천을 옆에 끼고 읍쪽을 향해 뻗안 비탈속으로 사라져갔다. 가벼이 흔들리는 차체의 진동에 몸을 맡기고있던 김영길의 얼굴에 문득 한점 그늘이 스쳤다. 차창앞으로 다가드는 한 녀인의 모습, 주위환경을 망각한듯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힘겹게 걸어가는 녀인의 자태가 시선을 아프게 끌어당겼던것이다. 녀인은 짧게 울리는 경적소리에 길가너쪽으로 내려서며 고개를 돌린다. 승용차로 향해진 녀인의 눈길은 언뜻 안겨왔다가 뒤로 멀어져갔다. 김영길은 운전사에게 승용차를 세우라고 손짓했다. 좌석등받이에 팔굽을 얹고 녀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이요?》

녀인은 미안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거들차에 오르라고 당부하자 녀인은 민망스러운 눈길로 비에 흠뻑 젖은 자기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순박해보이는 녀인이었다.

승용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녀인은 읍지구 29인민반에 산다고 했다.

《그런데 어딜 갔다가 오는 길이요?》

녀인은 비방울이 흐르는 자분치를 귀등으로 쓸어넘기며 호- 한숨을 내그었다.

《저... 김장독이 더 요구되기에 동리에 갔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럭저럭 미루어왔는데 정작 가보니 그곳 농장상점에 체하되어있던 나머지 독들을 며칠전에 다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김장독문제때문에 그 먼델 다녀온단말인가.)

김영길은 생각이 깊어졌다. 원래 김장독같은 토기제품들은 상업관리소에 주문하면 팔아주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녀인이 비내리는 날 먼길을 걸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것을 보면 독문제가 군내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요?》

《적어도 열두개는 있어야겠는데...》

《열두개씩이나?!...》

김영길은 저으기 의아해졌다.

《아니, 그 많은 독을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오?》

《저... 작년 겨울에는 독을 미처 장만하지 못해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가정이 아닌것 같았다. 다세대가정의 판머느리일수도 있구... 아니 그렇게 보기에 녀인의 몸이 너무도 연약해보였다. 김영길은 어쩐지 이 녀인을 도와주고싶어졌다.

《독을 해결해달라고 상업관리소나 읍사무소같은데 제기해보았소?》

녀인의 눈가에 어쭙은 미소가 어리었다.

《아이... 그까짓 독이 뭐라고 읍사무소에까지 다...》

《그래두 혼자 힘으로는 아참차겠는데... 힘들면 군당에라도 찾아가볼게지.》

《...》

녀인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김영길은 녀인과의 담화가 마음에 들었다. 로상에 지치고 비맞은 얼굴은 어딘가 병약해보였지만 녀인의 어조에서는 부닥치는 난관을 자기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굳센 의지가 느껴졌던것이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참, 읍지구 29인민반에서 산다고 했지요?》

《...네. 》

(29인민반이라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패로해를 할 때 김영길을 기쁘게 했던것은 군안에 숨은 공로자들과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이 참으로 많은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책임비서를 깊이 감동시킨것은 아들 딸 세남매가 있으면서도 부모없는 고아 열두명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기우고있는 조선인민군 초기복무사관 김성만가정의 아름다운 소행이였다.

그들부부가 사는 집이 바로 29인민반에 있다고 했었다. 조속한 기일내에 가정방문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던것인데 당장 손을 대야 할 일들이 많은데다가 입원생활까지 겹치다나니 여태까지 미루어졌던것이다.

김영길은 어쩐지 이 녀인이 꼭 김성만가정의 주부일것만 같아 슬쩍 물음을 던지였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아주머니가 바루 열다섯아이들의 어머니로 된 차춘선동무가 아니요?》

녀인의 가름한 얼굴에서 놀람과 반가움이 어우러진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

《아이... 제 이름을 어떻게?...》

《허- 왜 모르겠소. 온 군이 다 아는데... 동무네야 부모없는 고아 열두명을 데려다가 잘 키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드린 가정이 아니요.》

녀인의 눈가에 핑- 눈물이 어렸다. 너무도 과분한 평가를 받은듯 녀인은 웅색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김영길은 미더운 눈길로 녀인을 여겨보았다. 이제 겨우 서른대여섯쯤 되었을가, 열다섯아이들의 어머니라 부르기에 너무도 애뽕어보이는 녀성이였다.

녀인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지만 김영길의 류다른 눈빛에서 따뜻한 인정미를 느끼며 가슴속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중도에서 끊어진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못했다. 어느덧 승용차가 읍거리에 들어섰던것이다. 오늘밤중으로 끝내야 할 군당집행위원회가 책임비서를 기다리고있었다.

녀인은 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렸다. 김영길은 녀인과 헤어진 다음에도 인차 차에 오르지 못하고 가늘어진 눈개비속으로 총총히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

길가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 바로 부모없는 고아 열두명을 떼려다 키우는 차춘선녀성이였음을 알게된 김영길은 마음이 무거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드린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이 사소한 생활상 애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늘쌍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 자신이 가슴아프게 뉘우쳐졌다.

군당으로 돌아온 책임비서는 상업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김장독정형부터 알아보았다. 마침 소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읍내 주민들로부터 주문받은것은 많은데 독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토기공장

에서 생산량이 작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 왜 독생산을 팔팔 못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물었다니 소장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김영길은 인민생활을 위해 뛰지 않는 일군들의 무책임성을 후에 단단히 문제제우기로 하고 토기공장을 찾았다. 교환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날 밀린 회의를 결속하느라고 자정이 켜 지나서야서관방으로 돌아온 그는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새날이 밝자 책임비서는 일찌기 군당으로 출근하였다.

이날 책임비서의 일과는 다소 좀 형클어졌다. 교환수에게 토기공장을 부탁한 그는 군당비서들과 부장들을 불러들이고 군안의 숨은 공로자들과 공산주의미공선구자들을 도와주고있는 정형부터 알아보았다. 그들의 소행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으나 도와주는 문제에 들어서서는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스쳐넘길수 없는것은 이런 문제의 제기자체를 의문시하는 현상이었다.

전화종이 울렸다. 토기공장 지배인이 나왔다. 독생산정형을 물어보았더니 일부 생산공정들을 재정비하고 소성로를 보수하느라고 독을 많이 구워내지 못한다는것이였다. 김장철이 다 되어오는데 아직도 보수하더니... 김영길은 보수에서 걸리는 문제들을 알아보려다가 이내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다. 현지에 직접 내려가 대책을 취할 결심이였다.

꼭대봉기슭에 자리잡은 토기공장은 종업원이 얼마 안되는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이제 겨우 선줄에 올라섰으나 어조와 행동거지에서 령감티를 풍기는 지배인은 책임비서의 방문을 자격지심과 분발보다는 가지가지 청원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였다.

김영길은 그의 우는 소리를 하는 버릇을 똑 빼주고 싶었지만 당장 김장독에 목이 멘지라 지배인의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걸린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담화가 끝날 무렵 지배인은 빨리 생산을 정식화해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쇠소리나는걸로 아이들의 집에 꼭 보내주겠습니다. 이 지배인때문에 아이들이 김치를 못먹어서야 안되지요.》

토기공장지배인과 군당책임비서와의 합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3

김장독때문에 소득없는 먼길을 뺄스를 놓치고 걸어온 차춘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입술에는 바짝 조갈이 들었다. 파로운 부담과 로상에서 맞은 찬비로 하여 몸살이 온 모양이였다. 남편이 혼련지로 떠나간지 며칠이 되는 때였다. 아이들이 밤샘을 하며 어머니의 머리맡을 떠나지 못했다. 마음어진 처녀애들은 종시 눈물을 떨구며 옷방으로 달려올라갔다. 주위에 걱정스레 둘러앉은 아이들의 물먹은 눈들을 여겨보느라니 이러다가는 이 애들을 끝까지 제힘으로 키워내지 못할것만 같은 우려가 더럭 갈마들었다.

(녀자는 약해도 어머니가 되는데는 강하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가. 조금만 힘들어도 자리에 눕게 되니 이 애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는 아직두 멀은가봐.)

끝내 녀인의 아련한 눈가에서는 야속함을 이기지 못하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차춘선이 아들딸 세남매가 있으면서도 부모없는 고아 열두명을 학원에서 데려다 키울 결심을 하게 된것은 일시적충동때문이 아니였다. 남다른 사연이 깔려있었다.

인생의 소중한 처녀시절에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그는 초기복무사관 김성만과 가정을 이룬후에도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 한마을에 사는 군인가족들과 함께 돼지거르는 일에 솔선발벗고 나섰다. 그리하여 신혼살림을 편 첫해에 벌써 한톤가량의 고기를 낸 그는 해마다 수많은 돼지를 길러 구분대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자식들이 줄레줄레 태어나면서 그 녀자의 몸은 건잡을수 없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치명적인 병이 생긴것이다.

차춘선은 몹시 놀랐으며 당황하였다. 자신의 몸이 언제인가 병으로 영영 쓰러질수도 있으리라고는 정녕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병사시절의 그 나날처럼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야 할 육체였다. 그렇게만 준비되어있던 녀인이였다. 운명의 쓰러린 좌절감에 흘린 눈물은 그 얼마이라. 허나 평범한 인간의 불행을 두고 잠못이루며 가슴아파하는 아버지의 품이 있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였다.

녀인은 곧 평양의 이름높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를 받았다. 오래동안이나 병원의 침상에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입은 차춘선은 건강해진 몸으로 병원을 나섰다. 수도의 거리에 차넘치는 2월의 눈부신 해빛이 온몸을 따사롭게 어루만져줄 때 그 녀자의 눈굽에는 후더운것이 가득 고여올랐다.

과연 내가 누구란말인가? 조국땅우에 수물처럼 공장과 도시를 일떠세우는 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 영웅도,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명성높은 과학자도, 예술인도 아니였다. 이 나라 수백만세대의 이름없는 한가정의 평범한 아낙네에 불과하였

다. 그런데 고마운 조국은 이 좋은 세월에 오래 오래 살라고 세상 한끝에서 구해온 값지고 효능 높은 고가약들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불치의 병을 털어주고 건강한 몸으로 삶의 대지를 밟게 해주었으니 혈관속에 넘쳐흐르는 생명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차춘선은 부모잃은 고아들을 데려다 잘 키움으로써 그 고마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결심을 품게 되었다.

처음에 남편은 그의 건강이 넘쳐되어 도리머리를 저었으나 춘선은 고집스럽게 주장하여 끝내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했으나 부모잃은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은 결코 험치 않았다. 때이르게 불어난 식구들의 자질구레한 시중으로 앓아볼새가 없었다. 처녀애들은 그래도 비오는 날이면 진창을 밟을새라 사뿐히 걸어가는데 총각애들은 탕수를 걷어차며 발꿈치가 아물거리게 달음박질친다. 축축한 석탄무지에 맞고 뒥겨오른 축구뽕을 가슴으로 살짝 받아 땅우에 굴러놓고는 우쭐해서 어머니를 바라본다. 마치 옷을 덮지 못해 안달아하는 응석반이처럼...

일감이 아물차기는 매일반이다. 옷가지만해도 한꺼번에 벗어놓으면 자그만치 열다섯벌이다. 그 많은 빨래감들은 버치에 담아도 여려개로 나누어 담아야 하니 그 녀자의 육체적부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차춘선은 이 모든 일감들을 즐겁게 받아들이었다. 송이구름처럼 하얗게 부푸는 비누거품속에 팔꿈치까지 걸어올린 두손을 잠글 때면 마음도 구름처럼 몽게몽게 피여올랐다.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체험할수 없는 이 흐뭇한 감정은 금빛후광에 휩싸여 떠오르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우에 앞날에 대한 가지가지 공상도 그려보게 해주었다.

제일 바쁜 시간은 아침이다. 세수를 하고 시간표대로 학습장을 고를라 분주탕을 피우던 아이들이 제 밥그릇을 밀창내고는 깨끗이 빨아 다림발까지 세운 교복들을 하나같이 펼쳐입고 그 녀자의 앞으로 다가온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받을 때면 그 애들이 사랑스러워 한꺼번에 겨안고 쪽쪽 소리나게 입맞추고싶다.

그러면 총각애들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외로 틀며 마당을 나선다. 마을사람들에게 시위나 하듯 배움의 종소리 울려오는 학교를 향해 떠들썩 밀려가는 애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역정이 솟구쳐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진다.

오후시간은 또 어떠한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바람벽을 따라 쭉-붙여놓은 책상을 마주하고 숙제공부를 하기에 여념없는데 애들 주위를 거닐며 학습방조를 하는 녀인의 모습은 틀림없이 학력때문에 마음못놓는 과외학습지도교원의 모습그대로이다.

어머니로서는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지만 그날 배운 지식을 머리속에 다져넣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용화가 없다. 엉치가 쭈시도록 공부를 하고도 어머니앞에서 결의를 다져야 한다. 허나 저녁오락시간이 오면 그런 아이들의 기분을 돋구어주느라고 제 먼저 노래를 부른다. 어머니의 노래가 선창을 때면 형, 누나들이 우쭐우쭐 나서서 옹헤야 어깨춤에 도라지노래까지 숨막히게 뽑아내는 데 그 모양을 보고는 어른들도 장판을 두드리며 웃지 않고 못견딘다. 《아이들의 집》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열어놓은 창가를 지나 구수한 난알향이 풍겨오는 가을밤의 대기속으로 멀리멀리 울려간다.

그 나날 차춘선은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의 구실을 하기는 정말 수월치 않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곤하였다.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려온지 몇달밖에 안되던 때였다. 하루가 멀다하게 벗어놓는 빨래감을 두고 애들에게 푸념을 하였더니 남편이 두던해나섰다.

《여보, 애들이 그렇지 뭘 그러오. 아이때는 좀 벌차기두 해야지. 어때? 친구들! 그렇지 않나.》

《아이참, 당신은 그저...》

차춘선은 자식들 버릇을 굳혀놓는듯한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활기있게 키우려는 그 마음에 감심되어 힘든대로 모든걸 감당하리라 마음다지곤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아이들은 온순해지기 시작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옷을 벗길만한 애가 없었다. 그래서 저으기 마음을 놓았는데 어느날 그는 집뒤프락으로 돌아서다가 굴뚝모퉁이에서 울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주춤 서버렸다.

《어디서 옷을 맞췄니. 어머니가 힘들건 생각안하니? 너희들때문에 우리두 부끄럽단말이야.》

동생들을 꾸짖는 누나들의 목소리였다. 차춘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호상 통제하고있었던 것이다. 녀인은 그만 그들앞으로 달려가 용서를 빌고싶어졌다.

(애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엄마는 조금도 힘들지 않단다. 그까짓 옷이 좀 넓이는거야 뭐라니. 마음껏 뒹굴고 뒹놀러무나.)

쓰라린 후회와 자책속에 차춘선은 아이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혼련지에 나가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다. 안해가 앓는다는 전갈을 받고 구분대에서 떠밀어보낸 것이었다. 했으나 그때는 차춘선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여서 그는 며칠 묵으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김치움건설을 마쳐 끝내고 떠나기로 했다.

가을별이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오후무렵이었다. 밖에서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나더니 중학교 4학

년생인 일순이, 심성이, 단성이, 결성인들이 떠들 어대며 프락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뒤로 낮익은 운전사가 따라들어와 인사를 했다.

《어머니, 우린 승용차를 타고왔어요.》

《아니, 승용차를 타고오다니?!...》

《제가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집도 찾을겸. 아주머니, 잘 모르겠습니까?》

차춘선은 인차 알아보았다. 비오던 그날 길가에서 차를 세워준 그 운전사였다.

《책임비서동지가 남새를 가져다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책임비서라니?...)

비오는 그날 차안에서 자기를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군당에 새로 온 책임비서였단 말인가? 차춘선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남새가 거의 떨어져가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차로까지?!... 또 아이들에게 주라고 사과를 가득 넣은 가마니도 실어보냈다.

운전사는 집안이며 집주위를 빙-돌아보더니 몸조리를 잘하라고 이르고나서 차에 올랐다.

다음날 오전에는 군병원도담당의사가 적십자표식이 붙은 왕진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군당책임비서동지가 전화를 해주어서야 알았지요. 몸이 좀 어떠하세요?》

중년기의 녀의사는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에게 필요한 고려약 몇가지를 주고 돌아갔다.

짧은 가을해는 서산너머로 지고 땅우에 황혼이 덮이기 시작하였다.

차춘선은 상을 물린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있었다.

이때 밖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온 군당책임비서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였다.

《어떻게 사는지 집구경을 좀 하려구 왔지요. 그런데 무슨 일을 벌여놓았습니까?》

《예, 그저 좀...》

어둠속에서도 하던 일을 끝내겠다고 손싸게 일을 치던 남편이 어쭙게 책임비서를 맞이했다.

춘선이도 치마자락에 젖은 손을 감싸며 급히 부엌문을 열고 나갔다.

4

군내 인민들로부터 《아이들의 집》으로 불리운다는 조선인민군 초기복무사관 김성만의 집은 군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 김영길은 그의 가정을 찾기전에 군당의 일군을 통하여 그들 부부에 대하여 이미 료해하였었다.

남편인 김성만은 말은 입무수행에서 모범일뿐 아니라 몇해전 장마철에는 강물에 빠져 사경에

쳐한 세 어린이를 높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구원한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안해 차춘선은 간호원으로 군대에 복무하면서 혁명동지들의 생명을 위해 여러차례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친 숭고한 소행의 주인공이었다. 그런 가정을 잘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찾아가는 걸음도 가볍지 못했다. 그래서 바쁜 일들을 다 미루고 하루 사업총화를 끝내자 서둘러 떠난 길이었다.

젊은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책임비서가 조용히 방안에 들어섰을 때에는 저녁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벽면을 따라가며 붙여놓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학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 애들이 이 집의 친자식이고 어느 아이가 그들이 데려다 키우는 부모없는 애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나같이 밝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는 김영길의 마음은 저절로 즐거워졌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알아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김영길은 허리를 약간 굽히고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큰아이의 이름부터 물어보았다.

《네 이름은 뭐냐?》

《김조순입니다.》

《너는?...》

《김국순입니다.》

《김통성입니다.》

《김일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합치면 조국통일이 되는구나. 그렇지?》

《예.》

네 아이가 목소리를 합쳐 힘있게 대답했다.

《너희들은?...》

여섯아이가 그의 앞으로 나서며 씩씩하게 대답한다. 김영길은 그애들의 이름을 합쳐 불러보았다.

《충효, 일심단결.》

가슴이 뭉클했다. 자식들의 이름속에 깊은 뜻을 담은 젊은 부모들의 뜨거운 마음이 헤아려졌다.

《저 옷방에 있는 꼬마들의 이름은 뭐냐요?》

손님앞에 모여서서 빙글거리는 형님, 누나들을 부럽게 바라보며 열여놓은 미닫이문지방을 넘지 못해 들쭉거리던 다섯명의 어린이들이 와- 달려 내려와서 김영길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신이 나게 뒹뒹했다.

《우리들의 이름은 <충곡탄되리>예요.》

《웁다. 너희들은 어서 자라서 아버지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곡탄이 되어야 한다.》

김영길은 온몸이 후더워움을 느끼며 그애들의 이름을 긍정해주었다.

이때였다. 막내딸 리순이가 탁아소살이 뽕얹게 오른 귀여운 얼굴을 쳐들고 머루알처럼 까만눈을 깜박거리며 불쑥 물었다.

《아저씨 누구냐요?》

《나말이나?》

아이들은 웃음과 기대어린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손님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까만 눈동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면서 생전에 그리도 사랑하시던 아이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에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그만 걱정을 누르지 못해 리순이를 번쩍 들어 가슴에 꼭 안으며 뜨겁게 말하였다.

《애들아, 난 말이다. 너희들의 큰아버지란다.》

《큰아버지?...》

《아, 좋네.》

리순이는 짹짹그르르- 손뼉을 치고 방안에는 밝은 웃음이 넘쳐흘렀다. 책임비서를 바라보는 차춘선의 눈굽은 물기에 젖어들고있었다.

잠시후 그는 이 집 젊은 부부와 마주앉았다.

《그래, 어떻게 부모없는 고아들을 데려오게 되였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구.》

김성만은 안해와 눈길을 맞추었다. 아이들은 차춘선이 데려온것만큼 먼저 그의 이야기부터 들기로 했다.

...남편의 동의를 얻고도 망설이던 차춘선은 그 해(1993년) 3월 어느날 공화국북반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접하게 되었다.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단호히 맞선 공화국정부의 자위적조치였다.

차춘선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두툼이 채 안된 리순이와 두 남매를 이삿에 맡기고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찾아 떠났다. 이 준엄한 시기에 나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싶었던것이다. 불어나는 젖을 짜며 한달이 넘도록 룡천, 평성, 원산, 함흥, 길주, 혜산 등 무려 11개의 시, 군들을 찾아다니였다. 하여 끝내 육아원과 학원들에 들러 부모없는 열명의 아이들을 데려왔으며 그후 헤어져 살던 두 아이의 형제까지 찾아내여 그는 마침내 열다섯남매의 어머니로 되었던것이다.

차춘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졌다. 인민학교 3학년생인 탄순이가 슬깃슬깃 다가와 응석을 부리듯 어머니의 팔에 매달렸던것이다.

《어머니, 래일 저녁 우리 반에서 학부형회의가 있어요.》

《헛, 누난 욱심쟁이야. 엄만 나하구 같이 가야 해.》

올해 9월 인민학교에 입학한 되성이가 어머니의 무릎우에 털썩 앉았다. 그바람에 다른 애들은 아예 말도 못비치고 두애의 싱갱이질을 뿌루통해서 지켜보고있었다.

《너희들도 학부형회의가 있느냐?》

책임비서가 이렇게 묻자 아이들은 너도나도 그

렇다고 대답하였다. 전교적인 학부형회의였다.

《참,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오?》

《글쎄 몸을 쪼개여 나눌수도 없고 막 안타깝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니 별일이 다 있지요.》

차춘선은 속상한듯 호- 한숨까지 내신다. 하지만 녀인의 목소리에서는 서론여섯 젊은 나이에 아들딸 많은 어머니만이 가질수 있는 긍지가 비껴흐르고있었다.

정말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김영길은 녀인을 딱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싶었지만 종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김영길은 대문 밖으로 따라나선 부부에게 물었다.

《뭐 제기할것이 없소?》

《책임비서동지, 우리 집 문제때문에 더는 걱정을 말아주십시오.》

《우리 집 문제라니?!...》

그는 의아한 눈길로 차춘선을 돌아보았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솔직히 말해서 전... 부끄럽습니다. 나라의 부담을 덜려고 데려온 애들인데 저희들이 제 구실을 톡톡히 못해서 도리어 걱정을 끼치는것만 같아... 어떻게 하나 애들을 제 힘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술한 아이들을 동무들의 힘만으로 잘 키워낼수 있을까?》

젊은 부부는 대답을 못했다.

《그러지 마오. 동무들은 이미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데려오는것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소. 그 애들은 동무네 가정만이 아닌 온 군이 관심을 돌리고 잘 키워서 장군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할 귀중한 아이들이란 말이요.》

《책임비서동지, 고맙습니다.》

차춘선이 눈물을 머금고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운건 동무들이요. 앞으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구. 전화를 걸어도 좋고, 나두 이제부터 큰아버지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요.》

김영길은 이 집 세대주인 김성만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짐걱정을 말구 군무에 충실해주오. 우리가 잘 도와줄테니.》

김영길은 어둠이 깔린 마을길을 걸어가다가 얼마 못가서 발길을 멈추었다.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서리 내린다해도

귀여운 아이들이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희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마을의 지붕넘어 올라가는 노래소리에 귀기울이며 불밝은 창가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후더운 것이 넘쳐났다.

(그렇다. 정녕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신다!)

속으로 이렇게 웨치는 그에게는 자신이 누려온 행복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김영길의 고향은 강서군 청산리였다. 마을뒤에 소처럼 생긴 나지막한 바위산이 솟아있다 하여 석우동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내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원썬놈들에게 학살당했고 어머니마저 잃은 고아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나라에서는 피살자가족이라고 제일 먼저 반토굴집에서 나오게 해주었다.

새로 이사한 집앞에는 가물철에도 마르지 않는 시내물이 비단필처럼 늘어져 해빛에 반짝거렸다. 정말 저 시내가 비단이라면 그 한쪽을 툭 끊어 옷을 해입고싶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공상을 하도 기막혀 서러운 토정을 했었다.

《이녀석아, 저게 어디 비단천이냐, 개울물이지, 너 할머니를 기어이 올리자구 이러느냐. 영, 네 아버지 저 물우에 피를 뿌리며 원썬놈들의 흉탄에 쓰러졌단말이다.》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아물지 않는 원한이 저 시내물우에 서려있었다. 그의 일가친척 다섯이나 원썬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되었던 것이다. 녀자들끼리 어렵게 사는 집안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리녀맹위원장을 하는 고모가 까만 옷감을 들고 왔다. 어린 영길은 너무 기뻐서 손뼉까지 치며 물었다.

《야, 고모. 이 천은 어디서 났나?》

《어디서 나긴, 저 시내가에 흐르는 비단을 한쪽 툭 끊어가지고 왔지. 영길아, 이젠 마음껏 공상을 즐겨도 된단다. 우리에게네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 누구냐?》

그러자 고모는 그를 와락 끌어안으며 걱정엔 넘쳐 말하였다.

《그분은 부모잃은 너에게 달마다 보조금을 보내주시고 학용품과 옷감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시다.》

김영길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때 고모가 감격에 넘쳐 속삭이던 뜨거운 그 목소리가...

그랬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그의 친아버지 이시었고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집은 어머니당의 품이었다. 하기에 배움의 나날을 마치고 군사복무를 거쳐 당일군으로 성장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여러해동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

업하던 나날, 그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한없이 고매한 사랑이었던것이다.

김영길책임비서는 며칠후, 군당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 뒤끝에 김성만가정의 가족싸움을 잘 준비시켜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리라 생각하였다.

5

김영길은 처음에는 군당의 몇몇 일군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때 책임비서가 생각한것은 날로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이었다. 김성만가정의 아름다운 소행을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온 군이 그 어린이들을 돌보게 한다면 교양적의의가 매우 클것이었다.

다음날 오후 군행정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 상업관리소 소장이 참가하는 모임이 책임비서방에서 열렸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영길책임비서가 발언하였다.

《동무들이 다 잘 아는 김성만동무와 그의 안해 차춘선동무의 훌륭한 소행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마운 인덕정치가 꽃피우고 무르익힌 또 하나의 귀중한 결실로서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의지가 더욱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이끄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김영길은 그들 부부를 비롯한 훌륭한 소행의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길에 공산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일어서서 자기단위가 그 일에 앞장설것을 결의하였다.

모임뒤끝에 김영길은 한가지 제의를 하였다. 오늘 저녁 그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형회의가 있는데 누가 그들의 학부형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처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으나 아니, 그야 뭐 어려울게 있소 하는 배심이 생겨 저마끔 학부형이 되겠다고 몸들을 들썩거리었다. 그렇다고 다 학교로 보낼수도 없는 일이었다. 모임마감에 상정된 학부형선출문제는 결국 책임비서가 복안을 발표하는것으로락착지게 되었다.

...갑자기 이사집이 들이닥쳤다. 운전칸에는 안해와 막내딸 광순이가 타고있다. 불편한 몸으로 합숙생활을 하는 책임비서를 위해 군당위원회 김만식비서가 취한 조치였다. 한창 바쁜 때여서 바라지 않던 이사였으나 정작 가족을 제 집에서 맞

고보니 혈육의 정에 목이 메었다.

《그런데 광성이는 왜 보이지 않소?》

《고모님한테 떨구고 왔어요. 다들 가면 고모할머니는 어찌는가고 하면서 적재함우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자긴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제누나처럼 인민군대에 나간다는거지요.》

《원 녀석두. 고모할머니라면 오금을 못쓴다니까!》

아들에 대한 훈훈한 감정이 차올랐다. 외딸을 전연초소에 시집보내고 홀로 살고있는 고모였다.

남봉화는 걱정 어린 눈길로 남편을 여겨보았다.

집떠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달포만에 만나보니 퍼그나 축가보인다. 그의 성미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너무했다. 어려운 수술을 치른뒤에도 알려주지 않은 남편이 야속하여 안해는 눈에 눈물이 그들먹해졌다.

《당신은 정말...》

《여보, 뭘 그러오. 이젠 다 나왔다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거뜬해졌소. 그러니 당신은 래일부터 읍농장에 나가야겠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군당가족들이 펼쳐나 분조를 무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도오.》

남봉화는 저으기 난처해졌다. 이사를 새로 한 것만큼 집도 꾸리고 남편의 몸이 추설수 있도록 몸조리도 잘해주고싶었다. 그런데 하루 휴식은 고사하고 농사일이 몸에 설은 자기더러 농장에 나가라고 하니... 하지만 매번 남편의 의향을 따르는데 습관된 그 녀자는 이번에도 선선히 응하고 살진 닭들이 해를 치는 닭장부터 트랙으로 날라들이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찌기 조반을 안친 남봉화는 술에서 밥물이 잦는 동안 옷장에서 작업복으로 쓸만한 옷들을 꺼내입고 경대앞에 서보았다. 옷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등산가는 아낙네 같았다) 이번에는 연한 밤색잠바를 골라입고 거울에 비춰보았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농사일에 적합한 수수한 작업복을 지어가지고 왔을걸 그랬다는 후회가 갈마들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의 차례가 거울속에 언뜻 나타났다.

《여보, 그렇게 차리고나서니 참 멋있구만. 혹시 어디 나들이라도 가려는건 아니요?》

《아이참, 남은 속상해죽겠다는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지 않소. 그게 바로 인생의 락이라유.》

김영길은 인생체험을 다 해본 늙은이처럼 뜻깊은 말을 한마디 던지고 껄껄 웃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남봉화도 뒤따라 나갔다. 닭장문을 열어주기 바쁘게 닭들이 달려나와 이슬내린 마당우에 뿌려진 모이를 쫓았다. 변두가 빨강게 익은 알날이닭들이었다. 평양중심구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주변으로 나오면서 닭기르기에 취미를 붙였던 안해는 이번에도 기르던 닭들을 모두 장안에 넣어가지고 왔다. 고기와 알을 자체로 생산하여 식

탁우에 올려놓으려는 안해의 지극한 심정을 읊조리느라고 닭들이 분주스레 구구거리는것 같았다.

닭장안에 손을 들이밀었던 안해가 파란 수지그릇에 닭알을 담아들고 왔다.

《허- 고것들이 대단한데...》

아직도 파스한 온기를 가진 연한 굴빛닭알들을 들여다보며 김영길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러자 문득 그의 눈가에는 이 아침 밥상주위에 빙 둘러앉은 열다섯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애들의 식탁우에 닭알을 올려놓아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김영길은 안해의 웃음어린 얼굴을 마주 보며 선뜻 말했다.

《여보, 그 알날이닭들을 모두 그 집에 보내줍시다.》

《그 집이라니요?》

《그런 집이 있소. 사람들이 <아이들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애들의 밥상에 매일 이런 닭알을 놓아주면...》

《...》

남봉화는 그만 가슴이 허전해져 반쳐든 닭알그릇우에 머리를 수그렸다. 이 닭들을 누구를 위해 정성껏 길렀는지 남편은 정녕 모른단말인가. 다 키워서 이제는 알을 받을만하니까 아이들이라니... 매번 세대주의 의향을 따르는데 습관된 녀인이건만 이번만은 그 의견을 성큼 받아들일수 없었다.

닭알우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김영길의 눈을 아프게 찼었다. 안해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애들, 열다섯명의 어린이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아니란말인가. 김영길은 저으기 안타까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닭은 또 가져다 기르면 되지 않소. 그애들이 나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난 애들을 위해 너무도 한 일이 적구만.》

《...》

남봉화는 닭알그릇을 꼭 껴안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버렸다.

하지만 남편의 의향을 저버릴수 없는 그였다.

남봉화는 닭장을 자동차에 싣고 《아이들의 집》으로 갔다. 가보니 자기가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젊은 어머니와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저녁시간을 보낸 남봉화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그애들의 《큰어머니》가 되리라 결심했다.

6

아이들과 가까와지기는 정말 험치 않다. 세상애 아이들과 가까운 사람치고 인정이 헤프지 않고 마음이 무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들은 자기를 성근히 대해주는 어른들의 행동을 통하여 참과 허위를 본다. 단순한 뇌수의 감

각과 본능으로써만 느끼고 받아들이는 애들이었다.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애들은 절대로 가까이 다가들지 않는다.

김영길은 요즘 애들을 키우는 어머니다운 심정이었다. 이제는 그 애들과 퍼그나 친숙해져 밖에서 귀익은 목소리만 들리면 어미를 본 병아리떼처럼 아이들이 소리치며 달려온다. 그러면 총알처럼 날아드는 아이들의 반격에 가슴이 몽클해진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어디 안아보자 두팔을 벌린다. 옷공장에 파업을 주어 새로 해입힌 폭신한 나이론솜옷이 맞는가 어깨뽀이며 팔기장까지도 칸칸스레 더듬어본다.

큰아버지앞에 두팔을 벌리고 선 애는 제일 운이 좋은 아이다. 다른 애들은 은근히 시샘이 나서 술술 주위를 돌며 줄곧 눈총질을 해대지만 응석받이 그 녀석은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목마를 태워달라고 큰아버지의 어깨위에 부득부득 기여올라 부럽게 바라보는 애들을 아예 절망에 빠뜨려놓는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착한 일은 고사하고 도리어 걱정을 끼친 장난꾸러기이다. 그 장난바치들은 비로소 큰아버지의 품에 어려움없이 안기려면 장한 일을 더 많이 해야함을 깨달은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큰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지만 그애들은 이렇듯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 아이들을 귀중히 여겨주는 큰아버지의 남다른 열정- 그것은 그들을 참다운 생활의 길로 떠밀어주는 말없는 추동력이기도 하다.

요즘 온 군의 관심과 지성속에 《아이들의 집》은 그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가구들로 단장되었다. 아이들은 새 이부자리와 새 솜옷, 여러가지 학용품, 악기들을 비롯한 많은 지성품을 받아안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게 되었다. 그 기쁨어린 모습속에서 부모없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을 더 훌륭히 마련해주기 위하여 기울인 자기의 지성도 찾으며 김영길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거닐고있었다.

저녁이면 제법 서늘러운 기운이 드는 11월초순경이었다. 창밖으로는 가는 비발을 하냥 뿌리는 하늘이 바라보였다. 저기압이 드리워져인지 사위는 더 어두워보였다.

군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송수화기에서는 외과과장의 저음이 울려나왔는데 수술부위에 찢질을 하는가고 물었다. 하지 않구! 물리치료기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서 하는가고 따진다. 김영길은 대답이 궁해져 송수화기를 언짢게 곁어보았다. 마치 몸이 부한 과장이 눈앞에 서있기라도 한듯... 며칠전, 수술후과가 시원치 않아 군병원으로 갔더니 외과과장은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다시 메스를 대야 한다고 선언하듯 말하여 책임비서를 한길이나 뛰게 만들었었다. 그래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할수있는 방도를 대달라고 하니 파라핀이 펄펄 끓는 물리치료실로 데리고 가서 찢질을 해

주고 매일 한번씩은 와야 한다고 다짐받았다. 그런데 몇번 치료를 받고나서 아픔이 조금 덜리자 그날로 단념하고말았던것이다.

외과과장은 그에게서 매일부터는 절대로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또다시 받고서야 전화기를 놓았다.

외과과장의 《위협》전화를 받았으나 책임비서의 마음은 흥그러웠다.

사업이 괜찮게 진행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는 조금전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향목리씨리카트살림집마을을 돌아보고 왔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받들고 밤낮없이 벌린 건설자들의 힘찬 노력투쟁이 완공의 날을 앞당겨온것이다.

향목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토기공장지배인을 만났다. 운전사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비켜서지 않고 느릿느릿 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우에 지배인이 타고있었다. 그는 책임비서를 알아보고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책임비서동지, <아이들의 집>으로 갑니다. 쇠소리나는걸로 골라서 실었지요.》

김영길은 기뻐다. 적재함우에는 열다섯개나 되는 독들이 정히 실려있었던것이다. 맞물려놓은 일정만 없다면 적재함우에 옮겨타고 그와 함께 차를 달리며 정말 쇠소리가 나는지 두드려보고싶었었다.

어쨌든 성과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성과들이 은을 내게 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며 흥분된 심정으로 방안을 거닐고있는데 난데없이 물리치료라니... 김영길은 꼭 물린 사업일정에 자신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마저 낼수 없는것이 다행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물리치료시간은 밤시간에 내기로 하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비발이 차츰 꺾어졌다. 비바람이 부는지 콩알같은 비방울들이 후둑후둑 창유리를 두드렸다.

비소음사이로 누군가의 손기척이 울렸다. 김영길은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비웃을 한쪽 팔에 걸친 녀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김영길의 얼굴에 반가운 빛이 흘렀다. 그 녀인은 뜻밖에도 차춘선이었던것이다. 사무실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 어떻게 왔소?》

녀인은 선뜻 말꼭지를 떼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다. 책임비서가 마음을 능쳐주어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글썄 효성이가...》

《효성이가 어떻게 되었소?》

《집을 나갔습니다. 있을만한데는 다 찾아보았지만...》

차춘선은 입술을 짓씹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머리카락에 맺혔던 비방울들이 눈물처럼 떨어졌다.

(효성이가 집을 나가다니...)

창유리를 두드리는 비소음이 높아졌다. 김영길은 끝내 온몸으로 엄습하는 불안을 밀어내지 못하여 두손으로 책상탁을 짚 누르며 일어섰다.

《어찌된 일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요.》

녀인은 효성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딱히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저녁상으로 불러들이면서야 알게 되었다. 한명분의 밥그릇이 남았던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밥그릇을 아래목에 놓아두었는데 밤이 깊도록 들어올줄을 몰랐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소?》

《결성이가 처음 와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랬지만 효성이는 그애와 다르지요. 그런데 인민군대에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해오던 기계체조도 요즘은 하는등마는등 하고있습시다. 같은 학급인 충순이한테 물어보니 학교에서 아이들과 좀 다른 일이 있다지만 그것이 집을 나갈 원인으로 될리야 만무하지 않습니까.》

김영길은 녀인의 말이 옳다고 긍정하면서도 슬쩍 물어보았다.

《효성이가 왜 다뤘는지 모르겠습니까?》

《뭐 별치 않은 일이더군요. 그랜 어릴 때 손을 다쳐 오른손가락 한마디에 강직이 왔는데 다투던 아이가 경우에 몰리게 되니까 손가락병신이라고 놀려주었다.》

(그렇다면?...)

김영길은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보았으나 사색의 실마리는 인차 끊어졌다. 그것은 애들에게 늘 쌓이는 그런 다름질이었다.

《참, 강계에 효성이의 시집간 누이가 있다고 했지요?》

《네. 한달전에 편지가 왔었습니다.》

《어떤 편진데요?》

《그저 ... 동생의 어머니가 되어주어 고맙다는...》

차춘선은 얼굴을 붉혔다. 김영길은 착잡하게 영겼던 실꾸레미가 풀려나가는듯하였다. 하다면 효성인 제 누나가 그리워 강계로 떠났을수도 있다.

그는 곧 송수화기를 들고 군안전부를 찾아 하리역분주소와 도중 차갈이역인 신성천역분주소에 아이를 찾을데 대한 지시를 떨구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을 생각해서 군내의 교통초소들과도 연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김영길은 녀인의 등을 떠밀며 부드럽게 일렀다.

《오늘은 밤두 깊었는데 돌아가서 쉬요. 효성인 꼭 돌아올거요. 우리 사회에서야 달리는 뿔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요.》

그제야 차춘선은 걱정이 조금 덜린듯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더디게도 흘렀다. 안해가 밤깊도록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저녁밥을 싸가지고

왔다. 김영길은 저가락을 들지 못했다. 입안이 소래처럼 쓰고 깔랐던것이다. 이제는 자정도 퍼그나 지났으나 김영길은 여전히 쓰파에 앉아 책상우에 놓인 전화통들을 눈아프게 지켜보고있었다. 비바람에 창유리가 좌르륵- 울릴 때마다 차거운 비방울들이 제 몸에 들썩워지는듯 선풍해지곤하였다. 쏟아지는 비를 즐벌하게 맞으며 어둡속을 헤매일 효성의 초연한 모습이 눈가에 어려와 그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애야, 너 지금 어디서 헤매느냐? 어머니는 너 때문에 잠 못이루고있다. 집을 나가두 우산이나 가지고 나갈게지. 봐라, 비가 억수로 퍼붓는걸.)

가슴이 아팠다. 그애의 마음속에 그들이 질세라 속속들이 찾아내여 밝고 따스한 빛발로 가져주었다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것인가...

돌연 전화종이 귀따갑게 울렸다. 김영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송수화기를 거머쥐었다. 하리역분주소가 아니었다. 문흥리교통초소였다.

《무슨 일이요? 뭐, 아이가, 고등중학교 5학년생이라... 이름은?... 김효성! 수고했소. 어디 달아나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두고 잘 돌봐주요. 내 이제 곧 그리로 갈테니...》

김영길은 운전사를 찾아가하다가 그만 단념해버렸다. 아마 지금쯤은 깊이 잠들었을것이다.

김영길은 문흥리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책상우에 그대로 놓여있는 밥판과 우산을 찾아든 그는 곧 사무실을 나섰다.

7

읍거리를 벗어나자 비발이 더 세차졌다. 눈부신 섬광이 병곳 일 때마다 비발이 뽀얗게 튕겨오르는 포장도로가 확- 드러나곤하였다. 뒤이어 뒤풀이 울면 사위는 더욱 캄캄해진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어려운 어둡속에서 하늘과 대지가 서로 부동켜안고 씨름질하는것 같았다.

김영길은 비바람을 안고 힘겹게 걸어갔다. 그는 이런 밤길이 처음이 아니었다. 형제산구역당위원회 비서로 사업할 때에도 천남리에 사는 영예군인 전우선, 문광수의 집을 찾아 때없이 밤길에 나서곤했었다. 침상에 누워 맥을 놓은 그들에게 삶의 욕구와 신심을 주기 위하여, 어떤 날은 병치료에 호험했다는 귀한 약재를 구해가지고, 때로는 새로 준공된 현대적인 살림집의 입사증을 한시바빠 가져다주기 위해 굶은 날씨에도 주저없이 밤길을 걷곤하였던것이다. 그 길은 비록 힘겨웠어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그토록 아껴주시는 영예군인들의 가정애 삶의 기쁨과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주던 보람있는 길이였었다. 허나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효성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의문이 몇갈피로 번져졌으나 그는 종시 짐작이

가지 않았다. 효성이 어떻게 되어 거기서 걸려들게 되었는지... 문흥리교통초소라면 평양-강동사이 고속도로로상에 있는 초소였다.

김영길은 갑자기 무엇인가 발부리를 걸치는바람에 허양 나가넘어질변하였다. 전신의 힘을 다하여 겨우 몸을 가누었다. 그 순간 예리한 비수로 쿵 찌르는듯한 모진 아픔이 전신을 휩쌌다. 수술부위가 어찌나 걸리는지 숨조차 바로 쉴수 없었다.

그는 진통을 멈추느라고 잠시 그자리에 서서 비뿌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전례없던 일기였다.

가을비는 장인의 나룻길에서도 굶는다는데 무슨 비가 그리도 내리는지... 어둠속에 날아내려 땅을 세차게 두드리는 저 비발은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비애가 바다를 이루었던 애도의 나날 하늘이 흘리던 눈물이 아닌가.

너무도 일찌기 부모를 잃은 그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친아버지였었다. 고아의 불우한 운명을 타고난 그를 품어주고 키워주어 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덕을 천만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 고마운 은정에 한생을 다하여 보답하려고 했었는데 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었으니 그이를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지 못한 그를 엄하게 문책할 대신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픔이 크시던 애도의 나날 더 높은 정치적인임을 베풀어 강동군으로 보내주시었을 때 김영길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온 가족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올랐었다. 8월말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경건히 우러르니 수령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굽어보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것만 같았다. 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길이 모셔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던것이다.

깊은 생각속에 김영길은 비물이 충충 고인 도로를 저벅저벅 걸어나갔다. 세찬 비바람도 모진 아픔도 그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초소에 이르러 교통안전원실에 들어서니 효성이 《큰아버지!》 하고 반기며 일어서다가 아래도리가 폭 젖어 들어서는 책임비서를 보고는 머리를 폭 숙이는것이였다. 그러는 효성을 띠여본 안전원이 눈을 깜빡이며 알아보니 기특한 애라고 칭찬을 하였다.

...효성이가 집을 나가게 된것은 평양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장군님의 군대가 되리라 결심했다는것이다. 아니, 걸어서?... 걸어서 간다는것이였다. 백리나 되는 길을! 《그녀석이 잔뜩 돌아있더군요.》 하고 교통안전원은 그를 마

주보며 빙긋이 웃었다.

《우리 효성이가 용구나, 장부답단 말이야!》

김영길은 효성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칭찬을 했다.

《하지만 말도 없이 그냥 나온건 잘못이야. 알겠지?...》

효성은 그제야 숙였던 머리를 추켜들고 영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효성의 얼굴에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안도의 웃음발이 함뿍 피어올랐다.

내려석은 하찮은 일... 자기 또래동무와 다룬것 때문에 《큰일》을 저질러 어른들의 걱정거리를 만들어놓았다. 다투던 동무가 경우에 물리게 되자 강직된 손가락을 입에 올렸는데 사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도와도 관련된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다. 동무한테서 모욕받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였다. 이 손가락때문에 인민군대에 나가지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울고싶도록 괴로웠다.

하여 그날저녁 평양쪽으로 무작정 걸기 시작했던것이다. 도중 비가 하도 내리니 그어가려고 뛰여든것이 바로 교통초소건물이였다. 아이들이란 십분 그럴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중에도 영길에게는 효성의 그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 장군님의 군대가 되는 일인데 백리행군이 그 무슨 대수랴!...

효성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한우산을 받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들의 자태를 눈부신 불줄기로 쓰다듬으며 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급정거를 하였다. 차에서 뛰여내린 사람은 군당위원회 김만식비서였다.

《저런, 옷이 다 젖었군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노여움을 숨기지 못하는 비서에게 김영길은 웃으며 말했다,

《나야 이해들의 큰아버지가 아닙니까? 글썄 알고보니 효성이가 장군님의 군대가 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더라 말이지.》

김영길의 목소리는 저오기 자랑스럽게 높이 울렸다.

한해가 흘렀다. 또다시 가을이 왔다. 조선로동당 창건 50돐을 성대히 맞이한 뜻깊은 계절이였다.

군안에 무성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공산주의 소행들을 취재하기 위해 강동땅에 온 나는 책임비서를 만나자 먼저 효성이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김영길은 빙그레 웃으며 책상배람에서 편지 한장을 꺼내주었다.

군대에 나간 효성에게서 온것이였다.

《존경하는 큰아버지! 정다운 보급자리인 우리 집을 떠나 군대에 나오니 우리를 위해 다심한 사랑을 기울여주던 큰아버지의 모습이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하많은 사업을 안고 바쁜중에도 부모없는 우리들을 위해 시간을 바쳐가던 큰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에서 따뜻한 육친의 정을 느끼며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이시며 우리 집은 어머니 당의 품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느꼈습니다....

편지의 구절구절에 그리움과 함께 맹세의 감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고마운 조국,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한목숨 다 바쳐 싸우겠노라 썼다.

편지를 읽어갈수록 부모없는 아이들을 나라의 훌륭한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 기울여온 참된 당일군의 진정이 뜨겁게 되새겨지었다.

그에게서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그는 효성의 뒤를 이어 조순이, 일순이가 군복을 입고 총잡고

초소에 섰노라고 마치 제 아이들의 자랑을 하듯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가 이런 사람이였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좋은 동무》, 《훌륭한 당일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것이리라.

하지만 김영길책임비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이 과분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일생 좌우명으로 간직한채 마음의 탕개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있다.

나는 김영길책임비서의 이 모습에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길에 자신이 먼저 공산주의미풍선구자가 되고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된 어머니 당일군의 훌륭한 풍모를 보았다.

감사를 드리노라

남필현

인생의 한 구간만을 책임진다면
몇몇 사람의 생활만을 보살핀다면
그대를 생각하는 이 가슴
이리도 후더움에 젖으랴

첫 아기 고고성 터친 때로부터
한생이 끝나는 때까지
천이면 천사람 만이면 만사람
먹는것이면 먹는것 입는것이면 입는것
생활의 모두를 보살피주는
우리의 인민정권이여

새로 일떠세운 살림집
따스한 온돌방엔
주인보다 먼저 닿는 그대의 손길
새로 만든 부엌세간들을 사들고
웃으며 흥성이는 너인들의 기쁨엔
우리 다 모르게 깃든 그대의 은정

어려있어라
탁아소의 요람에서 첫걸음을 뎌 아이들
유치원의 꽃대문을 거쳐
대학졸업증을 안고 가슴 부풀어 나서는
그 희망찬 걸음걸음에

어려있어라
밝은 해살 비껴드는 인민병원

하얀 백포 눈부신 포근한 침대에도
수양버들 휘늘어진 유보도길
휴식을 즐기는 꽃물결에도

정녕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텔레비죤 파란 불빛이 흐르는 집집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흐를 때에도
새로이 더해줄 인민의 기쁨을 위해
그대 창문가에 꺼지지 않는 불빛
바치고바쳐도 진함을 모르는
그대의 수고를

아, 인민의 행복이 되라고
우리 수령님
이름도 인민이란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정권기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여

감사를 드리노라
천만사람의 천만가지 생활을 다 책임진
그대의 높은 사명감에
일년을 하루같이 궂은 날에도 실새없이
땀도 사색도 인민을 위해 바치는
그대의 성실하고도 끝없는 행복에

오 감사를 드리노라
감사를 드리노라

나는 고향을 사랑한다

리극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글을 썼다. 음악가들은 노래를 지었고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렸다.

고향! 찢릿하게 가슴이 젖어드는 감회와 함께 시내물이 돌돌 흐르는 시내가, 다박술 우거진 동산아래의 정가론 박우물, 마당에 피어오르는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모기쭈뼌새...

정말이지 사람에게 있어 고향이란 먹여가는 나이와 함께 더더욱 깊이 알게 되고 열정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정다운곳인 모양이다.

왜 그럴까? 태를 묻은 땅이어서, 나서자란곳이어서, 소꿉시절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들어서일까?

백두의 아아한 산줄기가 뻗어내린 골짜기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우리 고향, 맑은 물 벽계수로 줄달음치고 산천어떼 꼬리치며 뛰어오르는 시내가에 2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해빛넘치는 창가에서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울려퍼지는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고향을 나서자란곳이어서 사랑한다면 단순한 감정적인 애착으로만 표상될뿐 열렬한 사랑으로 승화되지는 못하리라.

나는 방금전에 받은 제자의 편지에서 새삼스레 고향과 조국에 대하여 생각이 깊어진다. 두달전에 전연초소로 떠난 박우물집 외아들인 제자는 이렇게 쓰고있다.

《선생님, 초소의 밤은 깊어갑니다.

방금 초소근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찬땅에 배를 붙이고 근무를 서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늘 오르곤하던 고향의 뒤산을 그려봅니다. 그 산마루에 서있던 구호나무의 글발들이 내앞에 우줄우줄 다가옵니다.

조선은 빛난다. 3대태양 만세, 만만세!
길이 받들자 **김일성**대장, 백두광명성!
삼천리 천상에 백두광명성 솟았다!

그 글발밑에 뚜렷이 새겨진 조선지도, 그우에 빛나는 세개의 별, 하나는 만경대, 하나는 백두산, 하나는 회령...

그 구호나무앞에서 저는 시를 읊었었지요.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

격전장의 돌격웨침처럼 끝안을 울리던 선생님의 근엄한 목소리도 쟁쟁히 들립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투사들의 이 당부를...

저 글발은 친척집에 부치는 길손의 편지도 벗의 단순한 부탁도 아니다.

저 글발은... 선렬들이 피로 써서 넘겨준 이 나라의 신념이고 대를 이어 물려줘야 할 고향의 녀이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구호나무가 고향을 지키는 그 어떤 수호신처럼,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이정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초소의 이 밤, 선생님, 고향의 구호나무가 눈앞에 삼삼하여 청춘의 피는 더 뜨겁게 끓습니다. 저는 구호나무의 글발을 고향의 녀으로 명심하고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글발은 내 고향의 자랑, 이 나라의 혁명전통이다. 그 글발이 있음으로 하여 내 고향은 나날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년년이 푸르게 가꾸어진다.

우리 고향의 산발마다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써놓은 혁명적구호, 정녕 그것은 지워지지도 없어지지 않는 주체조국의 역년 초석이며 영원한 푸른 기념비이다.

내 고향의 구호나무! 이 구호나무앞에 서면 사람들은 서로 고향이 어디인가를 굳이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을것이다. 고향을 왜 사랑하는가 짝어 물을 필요도 없다.

만경대에 태양이 솟아 누리를 환히 밝히고 조종의 산 백두산에 광명성이 찬란히 솟아 찬란한 빛뿌리는 삼천리강산, 푸르른 이 나라의 맑은 하늘에 태양과 광명성을 안아올려 자주의 녀을 만방에 선포한 이 조국땅이 다름아닌 내 고향이 아니라.

언젠가 《로동신문》에 소개된 기사가 되살아난다.

남조선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퇴직한 리로인은 8월 어느날 가족들앞에 넘직한 돌 하나를 내놓았다. 50여년동안 간직해온 《보물》이었다. 가족들은 놀란 눈으로 돌우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조선아 만방에 자랑하자. **김일성**장군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1944》

그날은 로인이 그 구호석을 얻은 때로부터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로인은 50년동안 고이 간직해온 한생의 보신주 - 구호석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한다.

《이것은 내 고향의 자랑이다. 이 구호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고향의 녀이 심어진것 아니겠느냐. 자고로 하늘도 땅도 무엇인가 뜻이 심어진

다음에야 명실공히 대자연이라 했느니라.

그러니 이 구호석은 가보이기전에 국보라 함이 마땅하도다.》...

정녕 그렇다.

항일의 혁명투사들이 종이가 아닌 조국의 대지 위에 먹이 아닌 진한 피로 새겨놓은 불변의 진리, 혁명적구호는 우리의 신념이며 피줄이며 대를 이어 간직해야 할 국보중의 국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우러르며 높이 받들라는 선렬들의 절절한 당부가 드높지 않는 신념의 기념비로 솟아있음으로 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은 사나운 풍파를 넘고 준엄한 역풍을 물리치며 철옹성같은 사회주의보루로 우뚝 솟아있는 것이다.

생각을 깊이할수록... 고향이란 나서자란곳에 대한 지리적개념만은 아닌것 같다.

태어난곳이지만 받아안을 넓이 없다면, 한생을

버티어줄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그곳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이라 할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백두산고향집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세상 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삶의 빛나는 성지이다.

나는 제자의 편지에 회답을 쓴다.

《네 말이 옳다. 넓이 살아있는 땅이 바로 고향이며 조국이다.

너와 나 힘을 합쳐 내 조국을 지키고 받들고 빛내여가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고향을 사랑하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의 붉은피는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랑하시는 붉은색으로 높뛰며 새 세기를 안아올것이다.

자식에게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우리의 심장속엔 백두고향집이 대를 이어 빛내여갈 유일한 삶의 고향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이다.

조국의 거리

성민백

내 지금껏

이역땅에 살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조국방문의 나날

조국이여 고향의 읍거리에서 마주선

이런 속보판들이

세상에 있는줄

이역의 거리에 나서면 사태진듯 마주오는

그 광고와 간판들이 역겨워

눈길조차 들지 않던 나였건만

첫눈에 마음 끄는 힘있는 글발들

뜨겁게 새기노라

《농장벌에 뿌리내린 처녀》

《푸른 숲의 주인》...

질탕한 유흥장 광고로 팔린

너인의 교태가 늘 쓰겁던 이 가슴에

속보판에 나붙은 저 사진

아침이슬처럼 맑은 농장원처녀의 그 미소

아름다운 노을마냥 감미롭게 스며든다

저 주먹같은 붉은 글발은

들끓는 건설장의 화광을 이 가슴에 옮겨주는듯

저 부드러운 푸른색 글발은

울창한 숲속에 새집을 결던

산림보호원의 마치소리 귀전에 들려주는듯

생각하노니

눈물겨운 실업의 행렬우에

광고판이 비웃음을 던지던 음산한 이역의 거리여

화려한 가면을 쓴 흡혈귀마냥

어디나 따라서던 그 광고판들은

얼마나 많은 고혈우에 악착하게 솟았던가

허나 이 읍거리에 가득찬

내 조국 인민들의 우렁찬 삶의 노래

어려워도 힘겨워도 제걸음으로 가며

세월을 떨치는 억센 숨결 굽이치는 이 거리

소박한 저 속보판들은

얼마나 크나큰 사랑에 받들려 솟았는가

아 현란한 상품보다

그것을 만든 평범한 근로자들을

더 아름답게 내세운 조국의 거리여

인간존엄의 상징인듯 저 이름 저 모습들이

소중한 내 조국의 모습으로

이 가슴에 새겨지나니

내 광고판들이 덧솟아

아귀다툼하는 이역땅 그 거리에 세우고싶구나

속보판들이 단아한 이 읍거리를 통채로 들고가

인간존엄이 꽃피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보라고

인간사랑이 가득찬 사회주의 내 조국이 이렇다고

내 곁에 있으라 병사시절이여

리명근

이제는 퍼그나
퍼그나 멀어졌구나
나의 병사시절이여

색 바랜 그날의 군복은
오늘도 옷장안에 정히 걸려있고
내 이름보다 더 불리우던 군사칭호는
소중한 추억을 불러
내 마음 그 시절로 이끄나니

아직도 못고치고있노라
기상구령은 없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습관만은
새 과업을 받을 때면
저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차렷자세만은

그립구나 생각할수록
가독나무 류별나게 많던 초소 뒤산
지금도 발밑에 생생히 밟혀오는
훈련의 높낮은 산발들
병영앞에 울리던 대렬합창
분대가 모여앉아 독보하던
누군가의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

지금도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구나
나의 입당을 보증하여
엄숙히 들리던 세 포당원들의 손과 손
천리행군길에 부르든 나의 발에

성냥총을 놓아주던 분대장의 그 손길

례사롭고 평범하던
그 모든것들이
조국이라는 크나큰 이름과
나란히 놓이는 생활이었음을
오늘도 절절히 깨우쳐주는 나의 병사시절

병사시절이여
언제나 너를 내 곁에 불러세우며
너와 함께 흘러온 나의 삶을
변함없이 간직하고싶어
때없이 너를 찾는 이 심정

총대의 무게를 알게 해준 시절
조국애를 가슴에 심어준 시절
세월이 멀리 흘러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세울수록 친근해지는
못잊을 나의 병사시절이여

언제나 내 곁에 있어다오
그 나날의 순간속에 나를 세워주며
그날의 삶속에 오늘도 살게 하며
순간도 떨어짐없이 내 곁에서
나를 떠밀어다오
나를 이끌어다오
한생에 가장 값높은 시절
오, 나의 병사시절이여!

증오여, 네가 말해다오! 외 1편

류명호

증오여, 너를
내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던가

나는 태어나
어머니 잔등에 업혀보지 못했다
어제날 병사였던 어머니의 허리에
미국놈들은 파편을 박아넣었거니
밤이면 가슴찡던 어머니의 신음소리...
그때마다 나는 채 굳지 못한 이발로
미국놈이란 말을 짓씹었거니
증오여, 너는
긴긴밤 어둠을 쏘아보며 잠 못들던

우리 집 식구들의 피발이 선 그 눈이었다

증오여, 너는
네 가슴속에 어떻게 자라기 시작했던가

동네아이들 명절놀이 가자고
나를 소리쳐 부르던 그 봄날
어데가나 기쁨과 행복이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던 그 봄명절
침대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어머니의 어깨에
여린 어깨를 들이밀고
내 땅을 번디디고 일어설 때

증오여, 너도
함께 일어서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흘러
고향집 울담을 넘어선 나의 키
나는 행복과 불행을 안고 세상을 보았거니
증오여, 너는
우리 집 울타리안에만 있었던가
저 멀리 가버린 세월속에만 있었던가

이 땅 그 어데를 가보라
흙 한줌 손에 쥐면
피가 묻어나는 신천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서 주먹을 쥐고있는 산야
이 나라 어느 집 문을 열어도
미제에 대한 증오가 쏟아져나오거니

보아라
장장 반백년
이 나라의 절반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는 양키들
이 세상 기쁨과 행복이 다 모여웃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죄악의 무리들

보아라
뜻밖에도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억함에
피눈물을 펄펄 쏟던 7월에
그 비분의 7월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미국놈들과 함께
북침전쟁열에 날뛰는 김영삼의 미친 물골을

나는 왜
중학교졸업의 그날
군복입은 병사가 되었던가
증오여, 네가 말해다오!
행복한 이 땅의 아픔인
7천만 겨레의 아픔인
아아, 나의 증오여
20세기에 끝을 봐야 할 나의 증오여!

나는 병사시절에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병사시절에
걷는 법부터 배웠다
나의 걸음을 힘찬 걸음으로 바꾸어주느라고
우리 분대장은 자주 목이 쉬었다

모래배낭 등에 지고
땅을 밟고 달리는 강행군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물맛을 알았고
온몸이 귀가 되는 어둠속에서
타는듯한 눈빛의 언어들도 익혔다

어린 잔디 머리드는 따스한 봄날
전호에 날아온 어머니의 편지
찬물도 훌훌 불어마셔야 탈이 없다는
그 다심하신 당부를 새기며
나는 어머니의 사랑엔 놀음이 없음을 알았다

초소에 설명절이 오면
저마다 전우들에게 휴식을 권하며
대신 자기가 초소에 서길 원했으니
나는 병사시절에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승고한 동지애의 세계에 올랐다

잊을수 없어라
또 한차례

적의 무장도발을 물리치고 쓰러진 전사
피를 바쳐 지켜낸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덮고 웃으며 잠들었을 때
나는 영웅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다

누가 병사시절에
보고 듣고 느낀것을 쉽게 잊을수 있으랴
나는 병사시절에
동지와 어머니와 조국을 두고
사색하는 법을 배웠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그속에
고향과 조국이 있다는 병사철학을 배웠다

이 세상 아름답고 귀한것
다 배울수 있어도
거짓과 배신과 안일한 삶만은
배울수 없는
오, 병사시절 병사시절

이제 나에게도 때가 오면
병사시절은 끝나리라
하지만 나는 한생토록
병사시절에 배운대로 살리라
그 모든것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하나도 버릴것이 없기에!

더 젊어지리

김 속

새해여
너는 나에게
청춘의 푸르름을
또 한돌기
휘감아주는구나

꽃보라마냥
sap날에 첫눈을 날리며
건설장 멀리 바라보니
내 사는 땅은
그 어디나 열정에 불타는
청춘의 푸르름이구나

새해의 기쁨을 한껏 터치며
서둘러 일터로 가는 활기찬 모습들
수수한 옷차림새
생김새와 나이는 서로 달라도
들려와라
하나의 지향속에 뛴뛰는 당의 숨결이

얼마나 생각깊은
새해의 아침인가...
상실의 아픔을 삭이고
세월을 주름잡아 큰 걸음을 내디딘 조국은
다시 한번 진군의
나래를 펼쳤구나

장군님의 따사론 해빛아래
젊어지는 마음 밝아지는 강산
그이의 불타는 열정
우리의 가슴에 불길로 타번지니
들끓는 일터마다
창조의 기념비 솟구쳐올라라

희망찬 진군의 새해여
조국은 제 모습 새로이 단장하며
거창한 위용을 만방에 펼치리니
지심을 울리며 발파소리 더 높아지고
간석지 새 땅은 더 넓어지고
산에 들엔 오탁백과

아지 휘도록 열매 주렁지리

그러하리
이해에는
하늘을 떠올리며 층층 솟아난 요람에
하얗 웃음 떨기치고
창문들은 더 밝게 열리리
우리의 기쁨처럼
복받은 노래 끝없으리

아마도
이해에는 더 가까워오리
갈라져 아픈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되어
열싸안을 그날이
아마도
이해에는 더 거세차리
불을 안고 원수를 징벌하는
통일의 함성이

이 땅의 모든것이
인민의 기쁨이 되라고 노래가 되라고
이 땅에 뿌리내린 꽃 한송이도
인민의 복이 되라고
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주시는
장군님 품속에 내 사는 땅
살뜰한 내 조국이여

이해에 내 조국은
더 키를 솟구며 일떠서리니
장군님의 령활한 지략에
검은 구름은 가셔지고
내 조국의 존엄은 더 높아지리

새해여 너는
양양한 청춘의 푸름을
주체의 성스런 년대우에
또 한돌기 휘감아주려니
내 조국은 사회주의 참모습을 자랑하며
더 젊어지리
길이 번영하리

모국어

-한 해외교포의 수기-

김종석

내가 제네바에 와서 석달동안을 자포자기에 가까운 절망과 우울로 문밖출입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

사는것이 지겹고 귀치 않아서 자신의 생명이 거치장스러운 물체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나와 나의 딸은 억지로 일을 하였다. 나의 생활은 자꾸 주저앉으려는 피곤한 말이 모진 채찍에 못이겨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련상시켰다.

제네바시의 이스트엔드의 침침한 뒤골목에 우중충한 방 하나를 빌려 들어앉은 나는 곧 일감을 찾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저것 골라잡을 여유없이 닥치는대로 받아친것이 상품소개문을 번역하는것이였다.

일본상품의 소개문을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하고 도이칠란드상품을 일본어나 영어로 번역하였는데 까다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일은 힘들고 수입은 매우 적었다.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 여러가지 외국어를 배웠던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상품소개문 번역도 바닥이 났을 때는 더 한심한 일을 하게 되였다. 스위스사람들이 비꼬아 일컬는 《개죽보》를 꾸미는 일이었다.

《개죽보》라면 누구나 리해가 가지 않을것이다.

스위스에는 큰 개목장을 가진 양견업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전세계의 부유한 애견가들을 상대로 거창한 장사를 하고있다. 개들의 이름도 《쎌오브 윌리프(윌리드대왕의 아들)》, 《위핑 쉐트(우는 성인)》, 《콘티누스 패밀리(영원한 가족)》 등 피상하게 붙이고 그 개가 어느 황제의 번견의 피줄을 이었느니, 어느 국정시인의 애무를 받던 개의 혈족이라느니 하고 요란스럽게 개들의 혈통을 론증하는 설명서들을 만들어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개를 파는것이다. 설명서에는 개가 순종이라는것을 증명한답시고 개들이 교미하는 사진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이 설명서를 《개죽보》라고 이르는것이다.

이것은 이룰데없이 허무맹랑한 일이다. 개를 파는자도 시치미를 딱 떼고 거짓말을 하는것이며 개를 사는자도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을 잘 안다. 그러나 개의 모습이 마음에 들고 설명

문이 근사하면 되도록 비싼 값으로 개를 사서 자기의 돈자랑과 유서있는 개를 사랑한다는 《고상한 취미》자랑을 함께 하는것이다.

나는 도수높은 돋보기안경을 쓰고 앉아 왕조의 년대며 저명한 인물의 취미며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추어 내면서 되도록 근사하게 《개죽보》를 꾸미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 하루 개의 습성, 개의 종류, 개에 대한 전설과 신화까지를 끌어다대면서 본일도 없는 개를 추켜올리고나면 자신이 무슨 원시종교를 신봉하는 사람같이 생각이 되어 허탈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의 자존심은 지니고 살아야 하겠는데 그 마지막칠천까지를 깡그리 털어버린듯한 심정이였다.

네번째로 《개죽보》를 만들어 보내고나서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머리를 받치며 나는 종이우에 이런 락서를 하였다.

《이게 무슨 삶인가?...》

양견업자의 울안에서 자라는 개신세만도 못한 자신의 생활이 밍고 서글프고 처량했던것이다.

내 딸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국살이 십여년에 혼기마저 놓쳐버린 딸애는 레스트랑에 나가서 손님들앞에 음식그릇을 날라다놓는다.

레스트랑, 그 말만 들어도 나는 치가 떨린다. 가축들이 도살장을 두려워하듯이 나는 레스트랑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신통히도 제 어머니를 닮은 딸애를 하는수없이 또 레스트랑으로 들여밀었으니 나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무력한 존재인가.

딸애는 어떻게든지 나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딸의 눈을 보는것이 은근히 무서워지는 일종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있었다.

딸애는 늘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품안에 품고 와서 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지러운 내 책상우를 말끔히 정리도 하면서 종알종알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저것이 내 마음속에 조고만 초불이라도 밝혀보자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쓸쓸하기도 하고 가여운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대로 나는 산골샘물처럼 맑디맑은 딸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하루중 제일 기쁜 시간이었다.

제네바에 와서 만 석달이 되던 날 밤에 딸애는

유난히 명랑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아버지! 오늘 나는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인도사람이에요. 네이션대학 교수라는데 글썽 철학박사칭호를 네겝으로 가지고있대요.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철학가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이는 몇살쯤 되었든?》

나는 딸애의 기분에 맞추어 분위기를 밝게 해 주느라고 웃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살쯤 되어보여요. 아니, 신살도 못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겠대요.》

《나를?》

《네. 아버지를 만나서 뭘 배우겠대요. 꼭 배워야 할게 있대요.》

딸애는 말마디마다에 그루를 박아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가 아버지를 놀리는구나... 나는 철학이란 철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그랬지요 뭐. 우리 아버지는 철학자가 아니라고, 그래도 끈기있게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꼭 아버지를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두번세번 부탁을 하잖아요.》

나는 딸애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 그게 정말이야?》

《정말 아니고요.》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라.》

바로 그날 저녁때 일곱시쯤이었다고 한다. 인도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동료인듯한 신사들(그들 역시 철학자인듯했으나 피부색은 각이하였다)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조용한 식탁에 골라앉은 그들을 위해 옥임이가 음식을 날라주며 몇마디 말을 나누었는데 영어가 서툰것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고 묻더라는것이다. 《코레아》하고 옥임이가 대답을 했더니 인도철학자는 갑자기 눈빛이 밝아지면서 《오 코레아, 오 코레아》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것이다.

그리고 옥임이를 잡아서 맞은편 의자에 앉힌 다음 갑자기 조선말로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하고 인도식으로 두손바닥을 모아 가슴에 대더라는것이다.

나는 매우 신기한 생각이 들어 한동안 옥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있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이 힌두어는 하지 않던?》

《네? 힌두어라니요?》

《...》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딸애는 짹짹 웃으며 종알거렸다.

《아버지두 참, 어떤 사람이 스위스에 와서 인도말을 하겠어요? 인도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알아듣거나 해요?》

《그렇군.》

나는 뜻밖에 입밖으로 튀어나온 말을 얼버무리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야기는 왜 나왔니?》

《그사람이 아버지는 뭘하는 분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철학자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오랜 교육자이며 어학자고 문학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러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꼭 아버지를 만나보고싶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지.》

나는 덩덤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딸애를 한동안 바라다보았다. 이 보잘것없는 아버지, 이국거리에 락엽처럼 밀려와 빛없는 삶을 이어가자고 《개죽보》나 쓰고있는 아버지를 저애는 그래도 자랑하고싶은 모양이구나. 저애의 마음속에는 뽀뽀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자리잡고있는 모양이구나... 저 슬플만큼 착하고 순진한 마음, 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다 남은 나무등걸처럼 불길도 죽고 열도 식고 그저 꺼어먼 형체만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있는 이런 아버지가 아닌가, 여기에 무슨 기다림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겠는가...

나는 한참만에 통명스런 목소리를 내었다.

《그만두어라.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 철학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 말에는 한생을 총화라도 짓는듯한 긴 한숨이 섞여있었다.

삶이 답답한 사람은 추억이 많은가? 그 인도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토막의 지난날의 추억을 불러일으켜 밤이 지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런던대학에서 음성학을 공부하고있을 때였다. 우리 30여명의 연구생들은 유명한 언어학자 앤 다니엘박사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발음을 중심으로 한 언어법칙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영국식 신사로서 검박하고 부지런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간만 열성이 높지 않았다.

우리 연구생들은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고 말할수 있다. 언어학의 법칙들도 많이 배웠지만 많은 외국어와 고어들을 배웠다. 그는 비교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의 강의는 우리들의 머리속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밀어넣어주었다.

졸업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틀을 차리고 강단에 오른 그는 강의뒤끝에 이런 말을 하였다.

《제군들은 곧 언어학자로서 사회에 나서게 되오. 이 늙은 스승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그런데 제군들은 그 어디서나 영어를 깊이 연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도록 하는데 힘쓰시오! 인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같은 권위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하오. 그래야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질수 있소. 사실 약소한 민족들이 쓰고있는 빈약한 민족어들이야 바빌로니아 건축장의 잡음과도 같은것이요. 잡음은 빨리 없어질수록 좋소...》

다니엘의 마지막 말은 강당안을 저기압으로 무겁게 내리눌렀다. 이 말에 분연히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인도사람이었다. 인디스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키가 크고 눈이 역실역실하였으며 목소리가 여간 크지 않았다. 그는 강단에 서있는 선생을 향하여 웨치듯 말하였다.

《선생님의 말은 어쩌면 인도를 통치하고있는 식민주의자들의 말과 꼭 같습니까. 존경하는 언어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채찍소리가 나고 화약냄새가 풍깁니까. 그래 영어를 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힌두어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말입니까. 힌두스타니어는 인간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지 못하며 민족문화도 건설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신앞에 사람이 평등하듯 이 신앞에 언어도 평등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강한 항의에 부딪쳐 다니엘교수도 매우 당황해하였다. 속으로는 《저 흰소새끼, 무지한 망종》하고 욕설을 퍼부었을것이다. 힌두교도들은 흰소를 신의 사도라고 하면서 높이 받들므로 영국사람들은 인도사람이 미우면 흔히 흰소새끼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니엘은 영국신사답게 끝까지 체면을 그러잡고 늘어지면서 흥분을 억누른 약한 목소리로 《오늘은 이만하고 강의를 그치겠소.》하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날밤에 인도청년을 찾아갔다. 그의 이름은 데스간이었다. 데스간은 그때까지 분이 덜 풀려서 숨소리를 씨근씨근하면서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야, 너의 조선말도 바빌로니아의 잡음이겠구나.》하였다. 나도 데스간 못지 않게 목소리를 높였다.

《천만에, 우리 민족어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때문에 나는 조선말을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

데스간은 한참후에 눈물이 글썽해서 내 어깨를 그리안으며 우리들은 모두 불행한 약소민족의 모국어를 빛내이기 위해서 한생의 마지막순간까지를 다 바쳐야 할 사람이라고 하였다. 나도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식민지 백성이라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우리 두사람의 심장은 그 순간 똑같이 뛰었으며 똑같이 뜨거워졌다.

울분은 곧 내 가슴에도 전류처럼 전달되어 나도 쪽발이 일본놈의 권력에 억눌린 조선말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두주먹을 부르쥐고 기염을 토하였다.

조국을 떠나오던 날 개찰구에서 조선말을 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왜놈전무에게 매를 맞고 벌금을 물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요즘 왜놈들은 《창씨개명》까지 하려한다니...

이미 오십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건만 《바빌로니아의 잡음》문제를 두고 인도의 젊은이와 나는 말들이 아직도 마음 한편 구석에 숨살아있었는지 나는 딸애한테서 인도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그가 힌두어를 쓰지 않더냐고 물어본것이다.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그림자. 그때는 식민지의 비운을 태줄처럼 감고났으나 그래도 조국의 운명이 가슴저리도록 아팠으며 조국의 보람찬 래일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우리라 뜨거운 결심도 가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홍수가 지나간 벌판같은 허허로운 가슴만 부어안고 정열도 흥분도 말끔히 식어 불꺼진 채처럼 싸늘하게 갈았아있으니 이러한 나에게야 추억인들 무슨 위안이 되랴...

딸애는 새벽 다섯시도 되기전부터 옷을 다린다, 집안을 청소한다, 창문을 닦는다 류달리 부지런을 피웠다. 저로서는 저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지 두볼이 북숭아빛으로 상기되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재빠른 솜씨로 집안일을 다그쳤다. 저의 어머니를 닮아서 좀 다혈질인 딸애는 결심을 다질때면 늘 저렇게 말이 없었다.

내가 세수를 하고 들어가보니 방석우에 조선옷 바지저고리가 놓여있고 내 책상우에는 《고려가요 연구》라고 쓴 내 논문원고철이 한복판에 놓여있었다. 내가 물어볼사이도 없이 딸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조선옷을 입고 또 옛날노래를 번역하세요. 난 아버지가 조선바지저고리를 입고 앉아서 <서경별곡>이나 <청산별곡>을 죽죽 내려읽으실때가 제일 좋아요. 네, 아버지.》

《아니 애야...》

《아버진 생활걱정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꾸려나가겠어요. 아버진 서울 송인동에서 살 때처럼 그저 온 하루 글만 읽으세요.》

《여기야 제네바가 아니냐?》

《제네바면 어때요. 조선사람이 조선글을 읽는데... 나는 아버지가 온 세상이 다 들리도록 <고

려가요>를 목청을 돋구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 5천년 력사국의 자랑높은 백성이 아닌가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이 앉아있다가 《옥임아, 네 마음을 알겠다.》하고 웃는 얼굴을 지어보였다.

옥임이는 제풀에 흥분해서 매우 기뻐하였다. 밥상을 차릴 때나 방안을 정돈할 때나 생활의 무슨 고개마루라도 넘어서는듯 숨을 쉰거려며 바빠 돌아쳤다. 딸애의 심정이 한편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였다.

딸애가 집을 나선 다음 나는 조선옷을 입고 평퍼짐하게 앉아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고려가요》를 뒤적이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국이란 피와 함께 온몸을 흐르는 무슨 특이한 물질인가? 저 어린 옥임이가 《조국》이라고 부르는 암담하고 뒽룩한 나라에서 도대체 받아안은것이 무엇인가, 그리운 어머니를 여의고 무능한 아버지와 함께 울고 집을 빼앗기고 파산을 당하고 눈물도 얼어붙는 싸늘한 거리에서 불려불 살불이 하나 없이 외로이 헤매고 쫓겨난 교문앞에서 흐느끼고 풍성한 음식점앞에서 군침을 삼킨것밖에 《조국》에서 받은것이 또 무엇인가. 그런데도 이 수만리 이역땅에 와서 내가 조국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 저 슬프도록 간절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우려나왔는가. 정말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뜨거운 피방울이 저런 말을 시키고있는가, 살아가기 위한 자존심인가, 고독에 대한 위안인가, 썩어빠진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인가. 나는 손으로 《고려가요》를 뒤적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풀길없는 의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였다.

내가 서울대학의 음성학교수로 있으면서 문학, 특히 민족고전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매국노 이승만정권은 너무도 로골적으로 미국을 추종하였다. 이승만자신이 미국을 《해방자》요, 《생명의 은인》이요, 《젖줄을 가진 어머니》요 하고 듣기 난처할만큼 추켜올렸을뿐 아니라 광범한 인민들에게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과 행동을 강요하였다. 미국인이 도적질을 해도 고발한 사람이 벌을 받고 양키군대가 녀인을 룰간하면 그것은 《친선의 상징》으로 찬양을 받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조선사람의 명절로 기념하도록 신문과 잡지들이 특집을 조직하라고 성화를 먹였다.

특히 참을수 없는것은 조신의 국문표기법을 미국식으로 고치라는것이였다. 누군지가 《대통령》의 이름을 종전대로 써서 올려보냈다가 이승만의 호된 질책을 받은 일까지 있었다. 문학도 미국문

학이 선차요, 조선문학은 락후하기때문에 건어될 것이 없으며 예술도 양키예술이 으뜸이요, 조선 예술은 고루하기때문에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였다.

아, 《훈민정음》 창제이래 얼마나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해온 우리 모국어인가. 연산군의 언문 탄압, 한문만을 《진서》라고 일컬으며 제 글은 천시해온 고루한 량반사대부들, 40여년간이나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겨 말과 글과 지어 이름까지 깡그리 잃었던 우리 겨레… 해방된 오늘에야 내 나라의 모국어를 빛내자고 허위단심 귀국했건만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고 비참했다.

그러나 조선말과 조선의 정신문화를 필생의 할 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나로서는 이 범람하는 양키문화앞에서 몸을 도사리며 저항의 태세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후 남조선의 정신문명을 실제적으로 거머쥔 문화고문 엠 그런이라는자가 미국연극 《하이 타워》를 극구 찬양하며 남조선문화의 진로는 여기에 있다고 큰소리로 강연을 하던 그날밤에 나는 여러 시인들과 함께 《제조협회》를 무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형시형식인 시조를 적극 발전시키자고 결의하였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개론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을뿐 시조를 깊이 몰랐었다. 시조협회에 든 다음 많은 시조들과 친숙하게 되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조선적인 정취가 무르익는것이 시조였다. 나는 시조집과 시조작가들을 연구도 하고 시조의 언어기교를 학문적으로 분류도 해보았으며 시조를 외국어로 번역도 해보았다. 영어나 프랑스어로 시조를 옮겨놓는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었다. 민족어는 민족문학을 통해서만 향기를 뿜고 꽃을 피운다. 이것이 그 당시의 나의 주장이였다. 아무리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있어도 훌륭한 문학을 산생하지 못하면 그것은 한갓 생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작품들은 그 시대의 언어의 결정체며 생활의 꽃다발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나는 고전문학작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가요에 홀리고 취해서 그 시대의 언어와 운률의 묘미를 찾아내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 이 시기에 나는 석양이 비낀 저녁이면 승인동의 내 집에서 조선옷을 입고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고려가요》를 소리높여 읽곤하였다.

이것이 죄가 될줄은 몰랐다. 제 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제 조상의 언어를 찾는것이 나의 일생에 너무도 엄청난 파도를 안아다 부을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경위는 간단하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권

을 틀어잡은 흔히 말하기를 박정희의 《강패정치》라 하는것이 남조선땅을 뒤덮었을 때 내가 대학안의 《민족어문학연구회》를 지도하였는데 그 회원들이 반미자주정치를 주장하며 학원의 군사화, 경제의 예측화를 반대하였다는것이다. 어느 5월의 화창한 봄날 민주화를 웨치는 치열한 학생투쟁이 있는 다음 나는 대학리사회에 불려가 학원에서 물러나라는 신고를 받았다. 리사들은 모두 눈에 독이 올라있었다.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나의 파산에 꼬리를 물고나선것이 안해의 불행이었다. 이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를 정말로 가슴아프다.

안해는 젊고 아름다웠다. 노래를 잘 불렀으며 걸음도 춤추듯 걸었다. 나는 안해를 흔히 《우리 방울새》라고 불렀다. 방울새가 얼마나 고운새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어감이 안해처럼 밝고 고운 것 같아서 어느덧 안해의 애칭을 방울새로 만들었고 안해도 그런 말을 듣는것을 좋아하였다.

보라빛 조그만 풍금이 빗값에 실려가던 날 안해는 별로 피로와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이 방울새가 돈을 좀 벌어야겠군.》하였다. 그것은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었다. 안해는 성진기라는 내 친구를 찾아가 부탁을 하여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성진기와 나는 중학때 동창이다. 누가 보든지 서로 친한 사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따금씩 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만나면 반가와도 한다. 그러나 우리 두사람사이에는 넘어서자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가 통으로 저려오는 무슨 가시금줄같은 장벽이 있었다. 그는 나를 늘 꼴샌님이나 바보로 보았고 나는 그를 늘 세련된 속물, 음흉한 위선자로 보아왔었다. 마음속에는 이렇게 금이 가있으면서도 서로 친구로서 수십년을 지내왔다는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성진기가 소개해준 레스토랑이라는것이 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곳이며 음모나 암거래가 많이 진행되는곳인줄은 나도 모르고 안해도 몰랐다. 처음 얼마동안 안해는 매우 기분좋아하였다. 케케묵은 학자의 안방이나 지키고있다가 개방된 세계에 나가니 모든것이 다 신기하고 새로왔던듯하다. 나는 안해가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때로 술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방울새가 어디로 날아가기야 하라싶어 그저 모든것을 안해가 하는대로 내버려두었다.

직업에 적응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였으며 남들이 돌리는 뜰소문을 믿고 안해를 나무람게 여기는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안해의 레스토랑생활이 반년쯤 되던 크리스마스전날 밤이었다. 나는 엄청난 비보를 받았다. 안해가 레스토랑의 7층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 것이었다. 미국놈과 상품암거래를 하는 한 《정부요원》놈이 안해를 미국놈의 방에 밀어넣었는데 거기에는 짐승같은 미국놈이 하나도 아니요 여러놈이 있어 놈들에게 당한 치욕이 너무 억울해서 안해는 마침내 죽음을 택한것이였다.

안해는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나는 《레스토랑》이라는 프랑스어단어가 지옥의 현관에 걸려있는 저주받은 글자처럼 느껴졌으며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와서 딸애가 레스토랑에 들어간다고 하였을 때 나는 가슴을 조이며 몸서리를 쳤다.

비극은 인해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그 후 련이어 가난은 악어처럼 이발을 갈며 나에게 덤벼들었다. 딸아이를 학교에도 보낼수 없어 아침저녁으로 내가 데리고 앉아 공부를 가르치지 않을수 없었다.

집세를 내지 못하여 송인동집에서 밀려나 답십리 어느 행랑방같은데로 이사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헌책 매매의 거간도 해보고 3류극장의 광고간판도 써보았으나 그것으로는 입에 풀칠을 할수가 없어 고기철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도 하고 운송부에 드나들며 남의 손짐을 날라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방조로 시작한것이 《포장마차》였다. 이름이 좋아서 포장마차이지 말들이 끌고다니는 중세기식 마차도 아니며 시원한 초원을 질풍처럼 달리는 역마차도 아니였다. 포장을 쳐서 마차 비슷하게 만든, 꼴목어구나 길설에 세워놓는 로션음식점이었다. 나는 어린 딸애와 함께 그 포장마차안에서 우동이나 소면도 팔고 찰밥이나 약밥도 팔고 떡들도 팔았다.

교단에서 내몰린 다음 그래도 내 생활에서 비교적 안정을 얻은것은 이 포장마차시절이다. 처음 몇달동안은 일도 서툴고 속도 상해서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거치장스러운 자존심같은것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져버리고 두팔을 걷고 달려보니 못할것이 없었다.

단골손님도 생기고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로 장사하는 묘리를 대주는 사람도 있었다.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기자 나는 딸애를 가르쳐주는 한편 나도 옛글들을 가깝게 하였다. 밤이 깊어 장사가 끝나면 그자리에서 고전시가들을 펼쳐들곤하였다. 한번은 고구려가요 《동동》과 고려가요의 《가시리》등을 읽다가 말들이 하도 재미있어 포장마차벽에 그 노래이름들을 써놓았더니 그다음날 음식을 사먹으러 온 녀자손님이 《동

동이란 떡국입니까? 그거 한그릇 먹어봅시다. 가시리도 맛을 보여주시우.》

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였다. 포장마차 벽에 썩여있는것이야 틀림없이 음식이름일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백제가요 《산유화》에 대해 좋다고 하였더니 지나가던령감하나가 포장안으로 머리를 쭉 들이밀며

《산유화됐지요? 이름이 근사하오. 그것 한잔 따뤄주시오.》 하였다. 《산유화》를 술이름으로 안 모양이었다.

이런 일들은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었지만 그래도 싫지 않았다. 그것이 생활의 여유처럼 느껴져 세상에 이런 일도 더러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대학생생,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한 학자, 한때는 노을같이 피어나는 꿈을 안고 조국의 말과 글을 온 세상에 빛내여보자고 두주먹을 부르짖고 다짐한 내가 이제는 골목어구에 목걸상을 놓고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앞에 음식그릇을 내놓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모어어나 삶의 재미를 찾게 되었으니 참으로 나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포장마차의 그들로 얼굴을 가리는 이런 서글픈 안정기마저 오래가지 못하였다.

부산대학에서 나처럼 어학과 문학을 가르치던 김인덕이라는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부산 시내에서 시궁창처럼 냄새를 피우는 일본노래와 미국의 자즈곡을 강연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서서 철직을 당했다는것이다. 그는 나와 마주앉자마자 기염을 토하였다.

《왜놈들의 말이 그제 말인가. 자음 모음의 구별도 없는 그 미개한 말이 오늘에도 우리 조선말을 꼭 눌러버렸단말일세. 다방이나 술집에서 밤새껏 일본놈의 류행가만 울려나오는 판이니 내기가 차서, 그 미국놈의 벌거벗고 춤추는 디스코, 자즈, 록크, ... 자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나? 전후좌우가 왜바람, 미국바람뿐이니 조선은 어데로 갔나. 조선은... 이사람 말 좀 하게. 그래 우리 조선말이, 나의 모국어가 그 양키놈의 말이나 왜놈들의 말만 못하단 말인가?》

나는 그의 말을 한동안 듣고있다가 간결하게 내 소견을 이야기하였다.

《최근 몇해동안 내가 내 나름으로 터득한 철학일세. 말이 좋은가 나쁜가. 글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민족어나 민족문화이 활기를 띠고 발전하자면 먼저 그 민족이 위대하고 강력해야 한단 말이야. 알겠나. 군사강대들이 외세에 등을 대고 살벌한 바람을 일으키는 이

런 치사스러운 정치풍토에서는 도저히 민족어나 민족문화이 꽃을 피울수 없네. 이것은 불을 보기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야.》

정말로 이것은 내가 남조선이라 불리우는 그 처참한 땅에서 냄새로 말고 피부로 느낀 철학이었다.

한번은 그가 불쑥 북조선의 출판물이라고 하면서 화보와 소책자 몇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두권의 소책자중 하나는 장편소설 《피바다》라는 제목이 찍혀져있었고 다양한 내용의 사진들로 편집된 호화판의 화보에는 방한용 털모자를 곱게 쓴 한 인민군 녀전사가 복두칠성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있는 모습이 표지에 찍혀있었다.

화보의 장을 번지는 곳곳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가극》, 《혁명연극》, 《영화혁명》 등등의 글발들이 눈에 뜨이게 안겨왔다. 나의 눈길은 자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라는 존함에 머물렀고 소설의 마감장까지를 읽고난후에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다시 존함을 가슴에 새기었다. 그런데 이때 또 한번의 비운의 언덕이 나를 기다릴줄이야...

그 김인덕이라는 친구가 뜻밖에 경찰에 체포되어감과 동시에 그 관계로 내 이름은 2중 《요시찰》의 명부에 올랐으며 나는 아무래도 남조선땅에서는 살아배기기 어렵게 되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의 총에 맞아 사살되고 그자리에 다시 군복입은 전두환이라는자가 들어앉았을 그때 어느 친구하나가 몰래 귀땀을 해주었다.

《어서 뜨게. 뜨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돼.》

나는 나서자란 땅, 부모의 터전, 정든 산천과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찬비 뿌리는 그날 어린 딸애와 함께 부산항에 정박하고있는 밀선에 오른 나의 두눈에선 뜨거운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조국아, 나는 조선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너를 사랑하는것을 숙명으로 삼아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것은 만날수도 있고 갈라질수도 있는 련인들의 사랑같은것이 아니라 고와도 한피줄, 미워도 한피줄의 모자간의 사랑같은것이였다. 나서자란 고향마을의 풀 한포기, 모래알 하나에도 끝없이 순결한 사랑을 담아부었다.

아득한 옛적부터 조상들이 물려준 말, 어머니의 젖밀에서 웃음과 함께 익힌 말, 이 소중한 민족어를 옥처럼 다듬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로 만들자고, 맑고도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와 샘물처럼 끝이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자고 나는 피땀을 아끼지 않고 온갖 애

를 다 써보았다. 그런데 조국아, 너는 이렇게 나를 내몰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후려쳐 보내야 하느냐…»

나는 배우에 서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멀어져가는 고국산천을 끝없이 바라다보았다.

그길로 나는 대만에 들렀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인도에 갔다. 거기에서 텔레비존을 통해 내가 떠나온 남조선땅에서 거족적인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고 전두환이 《계엄군》을 내몰아 땅크와 비행기로 민족대살육전을 벌리는것을 매일같이 보게 되었다. 이역만리 머나먼곳에, 비록 그 땅에 침을 뱉고 떠나온 몸이건만 대검에 찔리우고 젖가슴을 도리운채 숨지는 제 겨레의 참상을 이방인들과 함께 보자니 조선민족이 된 수치로 하여 그들앞에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또다시 그곳을 떠나 남방의 무더위와 아귀다툼을 하며 유럽으로 향하던 그때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려나오고있었다. (나에게 영원히 조국은 없다. 조국의 말도 없다.)

그로부터 10여년 세월, 나와 딸애가 단 한마디의 모국어도 들을수 없는 이역땅 여기저기를 부평초마냥 떠돌며 받은 수치와 모욕을 어찌 말과 글로써 다하랴. 그런데 불과 석달전에 스위스땅에 자리를 잡은 내가 지금 딸애의 권고로 《고려가요》를 모국어로 읽으며 쓰거운 추억을 되새기고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역시 민족고전은 첫 사랑의 미련과도 같은 애뜻한 그리움을 자아내는것이어서 내가 앞뒤로 몸을 흔들며 책을 읽고있을 때였다. 문밖에서 딸애의 발자국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내가 모시고왔어요. 이 네일스선생이 너무 아버지와 알고 지내고싶다고 하기에 내가 그만 지고말았지요. 아버지, 유명한 철학가선생님을 소개해요.》

옥임이가 이렇게 종알거리며 방안에 들어서는 데 그뒤에는 키가 훨씬 크고 얼굴에 풍만한 붉은 빛이 도는 인도사람 하나가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나는 처음에 좀 당황하였으나 몸가짐을 바로 잡으며 그와 인사를 나누고 마주앉았다.

네일스라는 철학자는 첫눈에 매우 쾌활해보였다. 세계적인 학자라는데 틀을 차리는것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체격에 맞지 않게 천진만만해보였다. 인도사람이라면 나는 런던대학에서 만난 데스칸을 자주 련상하는데 나이도 틀리고 생김새도 달랐으나 네일스도 어딘지 데스칸같은데가 있어보였다.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님한테도 말을 하였지만 나는 조선사람을 존경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진심으로 부

러워합니다. 나의 이 말이 리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이 영 리해가 되지 않았다. 조선사람을 왜 부러워한단 말인가. 반세기가 가깝도록 미군의 군화밑에 짓밟혀 허리 한번 제대로 펴고 살아보지도 못하는 우리를 부러워할 무슨 리유가 있는가, 이 철학자가 야유를 하는것인가? 그런것같지는 않은데, 나는 아무래도 그 부럽다는 말의 뜻을 알아낼수가 없었다.

네일스는 지나친 레찬에 의혹까지 품은 나의 속생각쯤은 아랑곳 없이 만족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러한 도시에 선생님과 같은 유명한 조선의 어학자가 와계실줄은 천만뜻밖입니다. 그러구보니 우린 참 행운아들입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이 통 무엇인지 더욱 리해가 가지 않았다. 흥분에 뿔뿔한 네일스도 상대방의 심리를 약간 간파했는지 서양인들처럼 두손을 벌리며 고개를 기우뚱하더니 말을 이었다.

《선생님!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

네일스는 크고 검은 눈에 간절한 빛까지 담고 말했다. 자기는 명함장에도 밝혔듯이 인도 네이선대학의 철학교수라는것, 철학이 전공인 자기로서는 바야흐로 21세기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인류의 정신적지주가 무엇인가를 놓고 거의 한생을 바쳐온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약속하는 모든 종교적, 철학적 리론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어떤것은 허황하고 어떤것은 빈약했고 어떤것은 명확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최근 지구의 동란이라고 부르는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련속되는 붕괴를 레들었다. 현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던 사회주의마저 사라지고있으니 사회주의 역시 리념상의 착오로 태어난 조산아, 리상사회가 아닌가고 자기는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리상, 그자체는 훌륭한것이지만 그것이 곧 현실은 아니라는것이였다.

네일스는 바로 이러한속에 사회주의조선에서 붉은기가 더욱 힘있게 나뭇기고있으며 《핵문제》에서도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네일스의 말을 들으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준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탈퇴성명으로 세계가 깜작 놀랐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바로 그때에 순수학문의 울타리속에서 한생을 흘러보냈고 정치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산 자신이건만 나의 손에 땀을 쥐게도 했고 조선사람의 피가 내 몸에도 흐르고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불꺼진 화로처럼 정신육체적으로 늙어버린 반백의 늙은이고 자본주의사회에 파도치는 지식 가진 실업자에 불과한지라 감히 나는 조선사람이요 하고 말할 처지가 못되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네일스는 책상 위에 여러권의 책들을 올려놓고 덩석 나의 손부터 잡아 흔들었다.

《자 이걸 좀 보시오. 이 책은 최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손수 집필하신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요. 그리고 이 책은 <세기의 위인 **김정일**>... 이 책들이야말로 예수교인들의 말대로 하면 <성경>이고 20세기의 <공산당선언>이요. 자 어서 보시오. 바로 이분이 사회주의의 령수 **김정일** 동지이시오!》

나는 방금 네일스가 《성경》이라고 한 붉은색 뚜껑의 책에 시선을 멈추었다.

책의 중심에는 해빛도 무색케 할 열정의 미소로 온 세상을 향하여 환히 웃고계시는 **김정일** 동지의 위인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벌써 20여년전에 서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존함은 들었어도 직접 이렇게 사진으로 그분의 참모습을 뵈옵기는 처음이었다. 아, 이분이 바로 이남동료들이 말하던 문학예술의 거장이시고 미국과도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백두산의 장수, 최고사령관이시구나.

네일스는 한아름되는 책들을 보배같이 쓸어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선생! 나는 지금 조선어를 배우지 못한것을 일생의 가장 큰 실책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번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조선도서전시장에 갔던 소감을 이야기하며 이 책들의 일부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되어 알수 있으나 대부분이 조선민족어로 되어 금과 옥조같은 이 책들을 펼쳐보지 못해 자기네 학회성원들은 안타까와하고있다는것이였다.

네일스는 자기네 주체사상연구학회는 인도사람이 네사람 영국사람이 두사람, 스위스와 프랑스사람이 각각 한사람으로 이 체네바에 본부까지 두었다는것이다.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란 음성학을 전문한 비교언어학자이며 문학가인 내가 이

보배스런 책들을 번역해줄것과 가능하면 학회성원들에게 매달 조선어강의를 해달라는 청이었다.

《!!...》

나는 둔탁한것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 소란스러운 시가지의 모든 잡음이 일시에 짹 눌러 불현듯 진공상태에 들어간듯했다.

(이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더라. 분명... 분명히 조선말을 배워달라고 했지! 내 모국어를...)

나는 험기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휘청이며 네일스의 손에서 귀중한 책을 받아들었다.

아! 왜정말기엔 조선말 한마디에 따귀를 맞고 벌금을 물어야 했던 이 글, 미국식표기법으로 뽀뽀한 우리의 글자, 버림받고 업수임 받는것이 숙명인줄로 아는 모국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낳았던 말인가. 과연 누가 바빌로니아의 탑을 쌓아 올렸는가? 하늘로 오르는 문명의 탑은 저들만이 쌓는다면 서방신사들이 오늘에 와서 앞을 다투어 내나라의 모국어를 배우고저하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날밤 귀중한 책을 가슴에 부여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바빌로니아의 탑에 비할수 없이 위대한 사회주의성공탑을 쌓아올리신 위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내 여직껏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 나라, 내 조국의 말과 글을 이처럼 현대문명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신 걸출한 령도자, 인류해방의 구세주를 왜 진작 일찌기 알아뵈지 못하였던고...)

이튿날 나는 네일스와 다시 만났다. 네일스도 내 얼굴에 비낀 환희의 마음을 읽었는지 활달한 몸가짐으로 일어서며 거뜨거뜨 인도식으로 두손 모아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니요.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는 나의 모국어를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령도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청을 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를 당신들의 학회에 받아줄것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아버지-이!》

나와 딸애, 네일스 세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마주 바라보았다.